

정책자료 2019-10-01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연구

- 동아시아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화: 결혼과 출산 생애의 변화



인구정책연구실

## 【연구진 소개】

Yen-hsin Alice Cheng(aliceyh@gate.sinica.edu.tw)은 대만 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의 연구자로서 주요 연구분야는 가족인구학, 청소년발달, 생애주기연구이다. 최근 연구 주제로 대만과 선진 저출산 국가의 가족 변화, 대만 취약 계층의 인구 분석, 대만의 동성 연애자와 동성혼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등이 있다.

Setsuya Fukuda(fukuda-setsuya@ipss.go.jp)는 일본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의 수석 연구자로서 주요 연구 분야는 인구사회학, 생애주기분석, 젠더, 패널데이터분석, National Transfer Accounts이 포함된다. 최근 수행한 연구에는 교육 특성별 출산율: 양성 출산율 모형 적용, 양성 불평등한 사회로부터의 변화: 일본, 독일, 네덜란드의 성 역할 분업과 출산, 동아시아와 남유럽 국가의 가족 형태, 제6차 일본가족조사 등이 있다.

Anne H. Gauthier(Gauthier@nidi.nl)는 네덜란드 학제간 인구연구소의 교수로서 주요 연구 분야는 가족 정책, 가족 연구 비교, 생활시간조사분석을 포함한다. 최근 연구에는 육아 휴직 정책이 고용, 출산, 양성 평등, 보전에 미치는 영향,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GGS), 생애 과정에서의 양성 불평등성: GGS로 부터의 주요 결과, 동아시아 국가와 선진 국가의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과 출산에 대한 장애 등이 있다.

Stuart Gietel-Basten(sgb@ust.hk)은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로서 인구학, 고령화, 인구정책이 주요 연구 분야이다. 최근 연구물로 왜 인구가 문제가 되는가, 출생아 수·정책·중국의 한자녀 정책, 경제발전·소득불평등과 중국 중년층의 건강, 기대 수명을 고려한 동아시아 국가의 고령화 측정, 후기 인구변동 사회에서 두 자녀에 대한 관념: 대만의 출산 의향, 중국의 출산율: 확실한 미래 등이 있다.

Trude Lappegård(trude.lappegard@sosgeo.uio.no)은 노르웨이 사회학 및 인간지리학과 교수로서 가족사회학, 인구학, 양성평등, 질적 방법론이 주요 연구 분야이다. 최근 연구물로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이 출산 행동을 변화시키는가, 북유럽국가의 교육, 젠더 그리고 코호트 출산율, 왜 유럽에서 결혼과 가족형성 간의 연결이 점차적으로 약화 되는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다양한 파트너와의 출산, 결혼과 동거가 중년 이후 건강에 이득이 되는가 등이 있다.

Yoon-Jeong Shin(yjshin@kihasa.re.kr)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주요 연구 분야는 가족경제, 가족정책, 가족인구학, 출산, 아동 이민 등을 포함한다. 최근 연구로서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전략, 인구변화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 배경 아동의 발생·성장 환경 분석, 배우자 간 사회경제적 격차 변화와 저출산 대응 방안,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 정책 비교 연구 등이 있다.

Tomáš Sobotka(tomas.sobotka@oeaw.ac.at)는 비엔나 인구통계 연구소,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 (비트겐슈타인 인구통계 및 글로벌 인적자원 센터)의 연구자로서 주요 연구 분야는 저출산 국가의 출산율과 가족 변화, 출산율 측정, 출산 의도와 이상적인 자녀 수, 교육과 출산 등이다. 주요 연구물로 저출산 국가의 만혼 현상: 자녀 출산 의도·경향과 결과, 유럽 국가의 무자녀 현상: 1900~1972 출생 여성 대상 장기 분석, 후기 인구 변동 시대의 출산율: 출산 연기·저출산·불안정한 출산율로의 변화 등이 있다.

Zsolt Spéder(speder@demografia.hu)는 헝가리 인구연구소의 원장으로 주요 연구 분야는 가족 형성과 출산율, 가족에 대한 태도와 가치,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국제 비교 연구이다. 최근 연구로서 유럽 4개 국가의 자녀 출산 연기·출산 포기·출산 의도, 출산 의향과 실현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후기 인구 변동 시대에서의 출산 의도의 실현과 실패, 헝가리의 사회 변동 시기의 출산율 하락과 저출산, 결혼과 동거 등이 있다.

Laurent Toulemon(toulemon@ined.fr)은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의 수석연구자로서 주요 연구 분야는 프랑스와 유럽의 출산율 동향과 결정 요인, 출산 의도, 출산율 측정 방법론, 결혼과 이혼, 비혼 동거 부부의 삶, 아동과 가족, 생애 주기별 재생산 보건을 포함한다. 연구 성과물로서 유럽 국가의 출산 동향과 가족 정책, 프랑스의 성인으로 이전에 있어서 성별 격차, 프랑스의 가족 형성 : 개인의 선호와 결과, 프랑스의 안정적인 출산율 하에서 감소하는 출생아 수 등이 있다.

## 【편집】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책자료 2019-10-01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연구

- 동아시아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화: 결혼과 출산 생애의 변화

발행일 2019년 12월  
저자 신윤정  
발행인 조홍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현대아트컴



## 발간사 <<

우리나라는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하여 합계 출산율 작성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수행해 왔고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서도 큰 발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출산율은 이에 대한 원인과 진단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 사회에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모범으로 생각했던 북구유럽 국가와 프랑스에서도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어 출산과 관련한 기존의 이론과 정책의 효과성 평가도 도전을 받고 있다. 세대가 변화하고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출산을 둘러싼 환경도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응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요원한 시점이라고 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그 동안 다양한 국제 협력 연구를 통하여 유럽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글로벌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 정성이 증폭되고 출산율 하락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의 현황을 논의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의성이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동아시아 국가들이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럽 국가의 복지 정책과 가족 정책의 확대가 시사점을 주었다.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출산에 주는 영향력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먼저 경험하였으므로 동아시아 국가의 경험이 유럽 국가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이 클 것으로 본다. 서로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비교하고 공유하면서 저출산고령화라는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이슈를 성공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연구는 “동아시아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화: 결혼과 출산 생애의 변화”라는 주제 하에 최근 유럽과 동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와 이에 수반한 출산율 변동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지난 2019년 12월 5~6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하였다. 본 정책 자료는 동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본 국제 협력 연구는 대만 Yen-hsin Alice Cheng, 일본 Setsuya Fukuda, 네덜란드 Anne H. Gauthier, 홍콩 Stuart Gietel-Basten, 노르웨이 Trude Lappegård, 체코 Tomáš Sobotka, 헝가리 Zsolt Spéder, 프랑스 Laurent Toulemon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본 국제 협력 연구에 참여해주시고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와 유용한 조언을 제공해주신 연구 참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유럽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 간의 지속적인 연구 협력과 상호 교류를 통하여 다가오는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 목 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주요 결과 .....	3
제2절 연구 결과의 시사점 .....	12
<b>제2장 유럽 국가의 출산 동향과 연구 결과</b> .....	<b>15</b>
제1절 글로벌 불확실성과 유럽 국가의 출산율 동향 .....	17
제2절 북유럽 국가의 최근 출산율 감소와 정책적 함의 .....	45
제3절 유럽 국가의 출산 의향과 출산 결정 .....	52
<b>제3장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 동향과 시사점</b> .....	<b>65</b>
제1절 한국의 사회경제적 출산율 현황과 시사점 .....	67
제2절 일본의 최근 결혼과 출산 동향 .....	84
제3절 대만의 성별 및 교육 수준별 출산율 격차 .....	94
<b>제4장 국제 비교를 위한 출산 자료 구축 방안</b> .....	<b>117</b>
제1절 저출산·정책 및 국가 간 비교 자료의 필요성 .....	119
제2절 아시아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구축 방안 .....	131
제3절 프랑스의 무자녀 및 출산 의향에 대한 질적 연구 .....	139
<b>참고문헌</b> .....	<b>163</b>
<b>부 록</b> .....	<b>187</b>
부록 1 .....	187
부록 2 .....	190

---

## 표 목차

〈표 2-1〉 GGS 프로그램에서 출산의향 및 결과(실현)의 측정 .....	55
〈표 2-2〉 다양한 거시적 차원의 변수가 3년 이내에 자녀 출산을 실현하는데 미치는 영향 (계층적 로지스틱 모형) .....	59

## 그림 목차

[그림 2-1] 유럽 국가의 기간 합계 출산율 (2008-2018년) .....	20
[그림 2-2] 유럽 10개 국가의 기간 합계 출산율 (2008년, 2018년) .....	21
[그림 2-3] 체코-핀란드-유럽 연합 28개 국가의 기간 합계 출산율 (2000-2019년) .....	22
[그림 2-4] 유럽 국가의 12~24세 누적출산율 (2000-2018년) .....	23
[그림 2-5] 노르웨이의 12~29세(30세 미만)와 30~54세(30세 초과) 누적 출산율 (2000-2018년) .....	24
[그림 2-6] 6개 유럽 국가의 기간 합계출산율, 템포와 출산순위조정 합계출산율(TFRp*), 첫째아 출산 평균 연령 (2008-2018년) .....	25
[그림 2-7] 미국과 네 유럽 국가의 출산 순위별 TFR 변화율 (2007-2010년, 2016-2018년) .....	29
[그림 2-8] 유럽 국가 이민자 여성과 본국 출생 여성의 기간 합계출산율 (2008-2018년) .....	31
[그림 2-9] 유럽 국가 1970-1995년 출생 여성이 24세와 28세에서의 무자녀 비중 .....	34
[그림 2-10] 2000-2018년 합계출산율(노르웨이, 한국, 남유럽, EU) .....	46
[그림 2-11] 북유럽 국가의 2010-2018년 합계 출산율 .....	47
[그림 2-12] 노르웨이 미래 전망과 출산 의향간의 관계 실험적 연구 결과 .....	50
[그림 2-13] 3년 이내에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7-36개월 이내에 아이를 낳은 사람들의 비율 (2004-2015년) .....	57
[그림 2-14] 1차 웨이브에서 의도된 가족 크기 및 현재 가족크기 .....	61
[그림 2-15] 2001년 연령별 자녀 수 및 2012년 총 자녀수 (코호트 수준 결과) .....	61
[그림 2-16]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1년 이내에 예상 가족규모 실현 (1차 웨이브에서 4차 웨이브까지): 헝가리 .....	62
[그림 2-17]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대 자녀수 변화(1~4차 파동), 헝가리, 개인 차원의 결과 .....	63
[그림 3-1] 기간 합계출산율 및 코호트 합계출산율 추이 .....	71
[그림 3-2] 기간 및 코호트 연령별 출산율 (1970-2017년) .....	72

[그림 3-3] 누적 코호트 연령별 출산율 비교: 1960 출생코호트 기준(CTFR49=2.1) .....	73
[그림 3-4] 누적 코호트 연령별 출산율 비교: 1977 출생코호트 기준(CTFR40=1.5) .....	74
[그림 3-5] 학력 수준별 코호트 합계출산율 .....	75
[그림 3-6] 고졸 및 대졸 여성의 직업 유형별 코호트 합계출산율 (1956~60-1971~75 출생코호트) .....	76
[그림 3-7] 교육 수준별 및 취업 상태별 기간 합계출산율 .....	77
[그림 3-8]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학력 수준별 분해 .....	78
[그림 3-9]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취업 여부별·직업 유형별 분해 .....	79
[그림 3-10] 코호트 합계출산율 변화에서 출산 진도비 변화 영향 분석: 학력 수준별 .....	80
[그림 3-11] 코호트 합계출산율 변화에서 출산 진도비 변화 영향 분석: 직업 유형별 .....	80
[그림 3-12] 일본의 PTFMR과 PTFR 최근 경향 .....	85
[그림 3-13] 출산율 장기적 추이 모형 .....	93
[그림 3-14] 대만의 출생 코호트별 학력 비중 (2010년) .....	105
[그림 3-15] 대만의 15~49세 남성과 여성의 학력 수준별 기간 합계출산율 (1975-2015년) .....	106
[그림 3-16] 대만의 남성 기간 합계출산율과 여성 기간 합계출산율 비율 (1975-2015년) .....	107
[그림 3-17] 대만 남성과 여성의 교육 수준별 출생 코호트별 합계출산율 .....	108
[그림 3-18] 대만의 교육 수준별 출산 진도비 .....	110
[그림 3-19] 대만의 40세 이후 여성과 남성의 무자녀 비중 .....	111

## 부록 그림 목차

[부록 그림 1] 지역별 유럽 국가의 기간 합계 출산율 (2000~2018) .....	187
[부록 그림 2] 유럽 국가의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 (1980~2018) .....	188
[부록 그림 3] 노르웨이의 연령별 출산율의 상대적인 변화율 (2003~2018년) .....	188
[부록 그림 4] 유럽 국가의 1970년 출생 코호트 여성이 한국과 같은 대학 학력(75%)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완결 출산율의 가정적인 변화 .....	189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주요 결과

제2절 연구 결과의 시사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주요 결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에 0.98명으로 집계되어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2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출산율 하락과 이에 따른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먼저 출산율 하락을 경험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저출산 현상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요인을 검토하여 국내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구하고 정책 벤치마킹을 시도하였다. 유럽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출산율이 낮게 지속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관찰하고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십 수년 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출산율은 오히려 1명 이하로 더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재점검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출산에 대한 많은 국내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세대 변화 및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가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출산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배경 요인들을 보다 깊게 분석해야 할 과업에

직면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인구대체수준과 유사한 출산율을 보였던 북유럽 국가와 프랑스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현재 유럽 인구학자들은 전통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유럽 국가의 출산율 차이를 설명하던 요인 이외의 새로운 설명 요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족 정책으로부터 받는 혜택, 유연한 근로 환경에 따른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과거 유럽 국가가 적정한 출산율을 보였던 주요한 배경 요인이었다면,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가,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 등이 최근 유럽 국가의 출산율 하락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유럽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발견되었던 현상이었다. 한국의 고도 성장기인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한국 사회 청년들은 1960~70년대 세대와 비교하여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 1960~70년대 세대들이 높은 경제 성장에 따라 희망에 찬 미래에 대한 기대 하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던 반면에,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적인 투자를 받고 우수한 인적 자본을 갖춘 1980년대 세대들은 과거와 같은 속도의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서 결혼과 자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한국의 복지 수준이 과거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특히 2006년 저출산 대응 정책 확대 이후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서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복지 서비스의 혜택으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갖도록 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하였다.

출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객관적 척도로 측정하는 부의 수준이라기보다 심리적으로 느끼는 상대적인 만족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인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상당부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

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기 보다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급급하였다. 아무리 무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미래에 독립적인 성인으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부모들에게 확신을 주기에는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은 오랜 기간 동안 초저출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낮게 유지하게 하는 동력은 과거와 달리 변해 오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경제적 요인이 등장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책 당국과 학계에서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양육·교육 비용, 일과 가정 생활 양립, 양성 평등, 가족 관념 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출산 이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강화되고 정부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요인들이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글로벌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위협 요인이 대두됨 따라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시대의 출산 영향 요인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도구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유럽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혼과 출산 생애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 비교 공동 연구를 계획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에 수행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연구」의 연속선 하에서 수행하였다. 2018년도 국제 비교 공동 연구를 수행하면서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대두되고 있는 불확실성이 출산율 변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 비교를 통한 심층적인 연구와 이를 위한 분석 도구의 개발 그리고 정책 효과성의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국제 공동 비교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은 본 국제 비교 공동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과 주요 결과

를 정리하고 연구 결과가 갖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제2장은 유럽 국가의 최근 출산 동향과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제1절 글로벌 불확실성과 유럽 국가의 출산율 동향은 최근 하락 추세로 변화된 유럽 국가의 출산율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유럽의 출산율은 출산율 지형을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과거 인구대체수준에 가까운 출산율을 보였던 국가와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수준을 보이던 국가로 양분되었던 유럽 국가의 출산율은 예상치 못했던 출산율 하락과 출산율 상승으로 인하여 수렴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유럽 국가의 출산율 하락은 출산 시기의 연기 그리고 이후의 회복으로 다소 변동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들어 출산 연기가 그대로 출산 포기로 이어져 이후의 출산율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출산율을 지지하는데 영향을 주었던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율은 최근에 와서 내국인과 유사하게 하락하고 있다. 최근 유럽 국가의 출산율 하락은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의 출산율 격차를 설명하였던 가족 정책, 일과 가족 생활 균형, 양성 평등 이외에 글로벌 불확실성에 기인한 바가 크며, 유럽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에서 발견되고 있는 영향력에 대한 국제 공동 비교 연구 수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제2절은 최근 하락하고 있는 대표적인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의 출산율 하락과 이러한 현상이 갖는 정책적인 함의를 논의하였다. 2009년 1.98명 수준을 보였던 노르웨이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56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현재 노르웨이의 청년들은 노르웨이에서 매우 관대한 가족정책이 도입되었던 1990년대 초에 태어나 가족 정책의 혜택을 한 몸에 받고 자라난 세대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도 노르웨이는 가족 정책을 축소할 적이 없으며 2010년 초에 금융 위기에 따른 여파

를 극복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급속하게 하락한 것에 대해 정책 당국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구 유럽 학계에서는 출산율이 하락한 이유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능한 설명 중의 하나는 글로벌화에 따라 오늘날의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특정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나 복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실험설계를 통하여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노출된 집단과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노출된 집단의 미래 출산 의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노출된 집단이 가장 낮은 출산 의도를 보였으며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노출된 집단이 가장 긍정적인 출산 의도를 보였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자녀에 대한 선호가 바뀌고 있으며, 가족정책 한 가지만 가지고서는 가족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제3절은 유럽이 출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출산 의향과 출산 결정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출산 의향이 출산 결정에 갖는 예측력에 대해서는 유럽 학자들 간에서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출산 의향과 실제 출산 간의 간격은 두 척도의 불일치로 인하여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출산 의향의 출산 실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출산 의향이 출산으로 실현되는 확률은 체제전환을 경험한 동유럽국가들이 서유럽 국가의 절반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이나 실업의 변동이 클수록 출산 의향을 실현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 예상치 못한 변화가 출산 계획의 수정이나 출산 연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복지 국가의 개입 정도가 출산 의향의 이행과 실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어 불확실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자녀 출산이나 출산 의향이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국가에서 출산 의향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공공에 대한 기대가 높은 국가에서 출산 의향을 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출산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으로 보았다.

3장은 동아시아 국가의 최근 출산 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분석 내용이다. 1절은 한국의 초저출산 장기화 현상과 사회경제적 출산율 격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이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수준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출산율 하락은 출산의 연기뿐만 아니라 연기된 출산이 이후 연령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향후 출산율의 현격한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과거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였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계층별 출산율 격차는 감소하였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 고학력과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저학력이나 서비스판매직 여성들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 자녀 출산에서 기회비용에 따른 가격 효과 보다 소득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상대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정규직 중심의 육아 휴직 정책을 비공식 부문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에게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2절은 일본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일본은 인구 변천 과정에서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 해당하는 한국과 대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본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한국과 대만 보다 먼저 일어났으며 인구 변천도 이들 두 국가보다 우선적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5명으로 한국과 대만 보다 높다. 그리고 최근 들어 합계 출산율과 초혼율 모두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더 이상 결혼을 미루는 사회적 분위기를 찾아 볼 수 없다. 최근 일본의 기간합계출산율 상승은 템포효과와 둔화나 종료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출산량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1970년생 코호트 이후 결혼과 출산율의 감소는 중단된 것처럼 보이며 1980년생 코호트의 결혼과 출산 회복의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일본 사회에서는 고소득 및 고학력 여성이 저소득 및 저학력 여성 보다 결혼을 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초혼율의 증가는 고등 교육, 도시 거주, 평등주의 성가치관, 조모와의 근거리 거주 등의 특성을 가진 기혼 부부들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이후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이 가능해지면서 정규직 여성이 전업주부보다 둘째 혹은 셋째를 낳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평등성의 확대는 젊은이들의 성 가치를 확대하여 일본 남성들이 여성의 가계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결혼 시장에서 고수입 잠재력을 가진 여성들이 시장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현재 “초저출산 사회”에서 “저출산 사회”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관측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출산율 향방을 예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제3절은 대만의 성별 및 교육 수준별 출산율 격차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대만에서 교육 수준별 출산율의 격차는 감소하고 있다. 완결 코호트의 교육 수준별 출산력 차이는 전체 코호트에 걸쳐 축소되었으며 최근 코호트에서는 남녀 모두 출산율의 사회적 격차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중졸 이하 그룹의 출산율이 급감한 반면에 고학력 그룹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탈산업화 사회에서 사회적 취약 계층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 뒤에 숨어 있는 프로세스를 사회적 불평등

의 심화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대만의 무자녀율은 젊은 코호트에서 남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여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취약 계층의 권한을 증진하는 정책은 혼인율의 감소세를 역전하여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사회적 배경이 다양한 남녀의 사회적 출산 패턴 격차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제4장은 국제 비교를 위한 출산 자료 구축 방안에 대한 내용이다. 제1절의 저출산·정책 및 국가 간 비교 자료의 필요성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비교 가능한 데이터의 부재로 인하여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았다.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출산 의사 결정이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출산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어떤 국가적인 맥락 하에서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유럽 국가에서 출산 결정 과정과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세대 및 성별 조사(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GGS)”의 주요 특징과 동 조사가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수행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GGS의 주요 특징인 회고적 및 미래적 차원의 접근법, 출산 의사 경로 결정, 젠더 차원에서의 접근법, 불확실성·삶의 만족도·직장과 가정 생활 균형, 인생 과정 및 삶의 기타 영역, 정책이라는 다면적인 접근법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GGS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지원으로서 과학적·기술적으로 평가된 설문 조사, 국가 간 비교 및 현장 연구 지침, 혁신 및 데이터 수집의 혼합 모드, 유수의 인구 통계와 협력 기관과의 협업, 접근 가능한 공개 데이터 및 대규모 사용자 커뮤니티를 제시하였다.

제2절은 “세대 및 성별 조사(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GGS)”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수행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제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이슈를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가 부족한 “경험적 진공 상태”에 놓여 있어 저출산을 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동인을 연구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저출산 현상과 관련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해결책을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의 정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국가의 가족 정책을 저출산에 대응하려는 정책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외국의 제도를 토대로 자국의 인구학적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심 지역의 인구학적 미래에 실제로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더욱이 외국의 가족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벤치 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GGS를 도입하여 국제적인 비교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3절은 프랑스 무자녀 및 출산 의향에 대한 질적 연구 사례이다. 출산 결정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이나 출산 결정에 미친 동기를 묻는 설문 문항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성적인 연구를 통해 출산 행위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개인들의 관점과 설문 문항이 적절한지 그리고 개인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타당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출산에 대한 규범과 의향을 조사하기 위한 정량 연구의 준비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이후 출산 의향 및 출산 행위에 대한 패널 연구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된 두 편의 정성 연구의 체계와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생애사 관점에서 마련된 인터뷰와 상황별 시나리오 내용을 소개하고 프랑스에서의 자녀 출산 의향과 무자녀 현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 제2절 연구 결과의 시사점

본 국제 공동 비교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사회경제적 환경과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출산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영향력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에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 보다 더 큰 영향력의 등장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양성 평등이 확립된 북유럽 국가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고 더 이상 양성 평등성이 출산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게 하는데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었다. 현재 유럽 국가의 출산율 하락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요인일 수 있다. 세대가 변화함에 따라 그리고 경제사회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출산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정책적인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는 국제 공동 비교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심화되어 가는 현재 시점에서 저출산에 대한 설명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도구와 분석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출산 행태와 가족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는 수행되고 있지만 출산 결정 과정에 대한 이론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출산 매커니즘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국가 군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출산 관련 자료가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교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 국가의 GGS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GGS를 도입하기 전에 한국적인 특수한 현실에서 출산을 둘러싼 매커니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GS는 유럽을 기준으로 마련된 조사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출산을 둘러싸고 변해가고 있는 사회적인 여건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출산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질적 연구가 보여 주듯이 양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이전에 질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본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지 않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수행한 정책을 냉정하게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성공적이었던 정책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출산율을 둘러싼 무엇인가 더 강력한 요인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하락 추세로 변한 유럽의 출산율에 대해 유럽의 인구학자들이 새로운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모습이다. 우리도 출산율 향상에 효과가 미비한 정책과 설명력이 부족한 요인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타겟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 제 2 장

# 유럽 국가의 출산 동향과 연구 결과

제1절 글로벌 불확실성과 유럽 국가의 출산율 동향

제2절 북유럽 국가의 최근 출산율 감소와 정책적 함의

제3절 유럽 국가의 출산 의향과 출산 결정



# 2

## 유럽 국가의 출산 동향과 << 연구 결과

### 제1절 글로벌 불확실성과 유럽 국가의 출산율 동향

Tomáš Sobotka (비엔나 인구통계 연구소,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 비트젠슈타인 인구통계 및 글로벌 인적자원 센터)

#### 1. 서론

유럽 국가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의 중간 시점인 1920년대부터 1930년대 기간까지 이미 광범위한 출산율 감소를 처음으로 경험한 지역이다(Van Bavel, 2010). 이 시기 이후부터 저출산에 대한 우려는 유럽 전반을 걸쳐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많은 유럽 정부가 저출산율 공공 정책의 주요 관심 분야로 간주해 왔으며 출산율 증진을 위하여 가족 정책에 상당한 노력과 자원을 투입해 왔다(Sobotka et al., 2019). 오늘날 모든 유럽 국가들은 인구 대체 수준 이하의 기간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VID, 2018), 자녀를 높은 연령에 출산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는데(Sobotka, 2017), 이는 대학교 교육의 확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Ní Bhrocháin and Beaujouan, 2012; Neels et al., 2017).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출산율 감소 모습 뒤에 출산율 수준, 변화 동향 및 유형에 국가 간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가장 최근인 2008년 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래로 유럽 국가의 출산율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원래부터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인 많은 국가들조차도 놀랍고 오래 지속

되는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 국가의 출산율 하락은 경제 회복이 이루어진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Comolli et al., 2019). 요약하자면 2010년대는 전 유럽에 걸친 예상치 못했던 출산율의 변화와 역전으로 특징된다. 이러한 출산율 변동과 하락은 부분적으로 유럽의 출산율 경향과 국가 간 출산율 차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론과 설명에 도전을 주고 있다. 과거 십 수 년 간 출산율에 영향을 준 요인들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압력과 걱정, 기술적인 변화, 기후 변화와 같은 새로운 힘들로 설명될 수 있다(Balbo et al., 2013; Basten et al., 2014).

본 절은 유럽 국가의 최근 출산율 변화 특히 2008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나타난 출산율 변화를 살펴본다. 동 기간은 경제 위기가 시작되고 그 후 경제가 회복된 기간이다. 유럽 국가의 기간 합계 출산율 동향을 통하여 젊은 연령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향이 사라지고 높은 연령으로 자녀 출산을 연기함에 따라 출산율 하락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기간 합계 출산율에 대해서 논의하고 국가별 그리고 지역별로 출산율 경향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더 세부적으로 나아가 연령별, 출산 순위별, 이민자, 사회 계층 등 서로 다른 집단별로 출산율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유럽은 현재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과거의 출산율 동향은 출산율이 매우 낮은 국가와 인구 대체 수준에 가까운 약간 낮은 국가의 두 그룹으로 분류되었고 그 차이는 대부분 경제적 불확실성, 젠더 관계 그리고 가족 정책의 차이로서 설명되었으나(Billari, 2018; Reher, 2019), 최근에 와서 이러한 분류와 설명력이 약화되고 있다. 더구나 미래 재생산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이다. 젊은 세대의 삶이 변화하고 자녀 출산이 높은

연령으로 연기됨에 따라 재생산 행위는 변천을 보이고 있다. 유럽은 향후 출산율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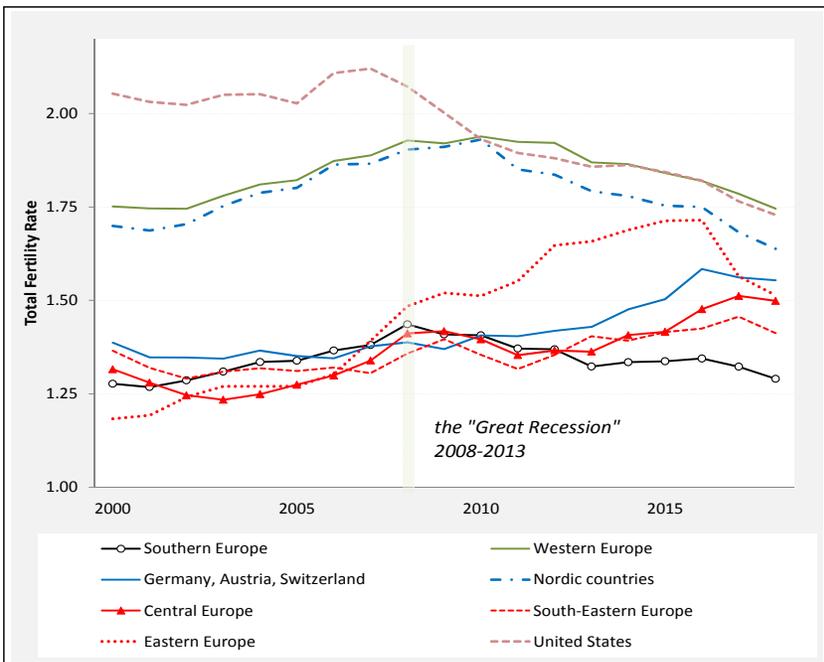
## 2. 2008년 이후 유럽의 출산율 변화와 반전

2008년 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래 최근 유럽의 출산율 경향의 주요한 특징은 무엇일까? [그림 2-1]은 경제위기 기간(2008~2012)과 경제위기 이후 기간(2013~2018)의 기간 출산율의 지역별 차이를 보여준다. 가장 놀랄만한 것은 서유럽 국가와 북유럽국가에서 나타나는 기간 합계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이다. 이 두 지역은 여성 1명 당 약 2명에 가까운 출산율 수준을 보였던 국가들이었다. 이들 국가의 출산율 하락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경제 위기 이후 기간에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았다. 아일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은 경제 위기 이후 기대치 못했던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을 보였으며 2018~2019년에 기록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부록 그림 1] 참조, 북유럽국가의 최근 출산율 하락 동향은 Comoliet et al., 2019; Hellstrand et al., 2019 참조).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 경향은 유럽 국가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구 대체 수준에 가까운 기간 합계출산율 수준을 보였던 미국, 호주, 뉴질랜드도 2008년 이후 출산율이 하락되고 있다 ([그림 2-1]과 [그림 2-2] 참조; Munell et al., 2019; Stone, 2018; Sobotka and Zeman, 2020).

이러한 출산율의 하락과 대조되는 현상이 2005~2015년 기간 동유럽 국가(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기간 합계 출산율의 빠른 상승, 그리고 2013~2016년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와 2013~2016년 중유럽 국가의 약한 변동 모습이다. 이들 국가들은 동 시기 동안 상대적인 경제 번영을 누렸으며 특히 최근 경제 위기가 끝난 이후<sup>1)</sup> 가족 정책에 대한 투

자를 확대하였다(Sobotka et al., 2019). 유럽 국가 출산율을 크기별로 볼 때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남유럽 국가들은 전형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거나 더 하락하였으며 그리스와 포르투갈만이 경제 위기 이후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다 ([부록 그림 1] 참조).

[그림 2-1] 유럽 국가의 기간 합계 출산율 (2008-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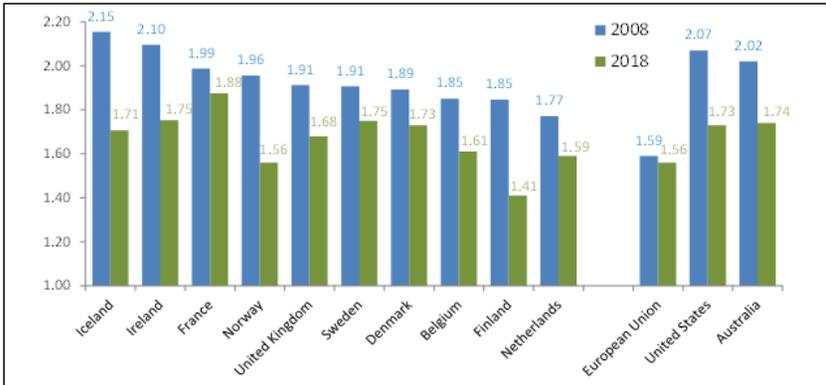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20), Eurostat (2019),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주: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다음과 같다. 북유럽국가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서유럽국가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남유럽국가 (사이프러스, 그리스, 이탈리아, 말타, 포르투갈, 스페인); 중유럽국가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동유럽국가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아, 불가리아, 코소보, 북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세르비아); 동유럽국가 (벨라루스, 몰도바, 러시아, 우크라이나)

1)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2015~2016년까지 상대적인 경제 번영을 누렸으며 이후 경기 회복세는 멈추고 다시 하락 추세로 변화하였다. 2015년 이후 이들 국가들의 기간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경제 상황의 악화와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 유럽 10개 국가의 기간 합계 출산율 (2008년,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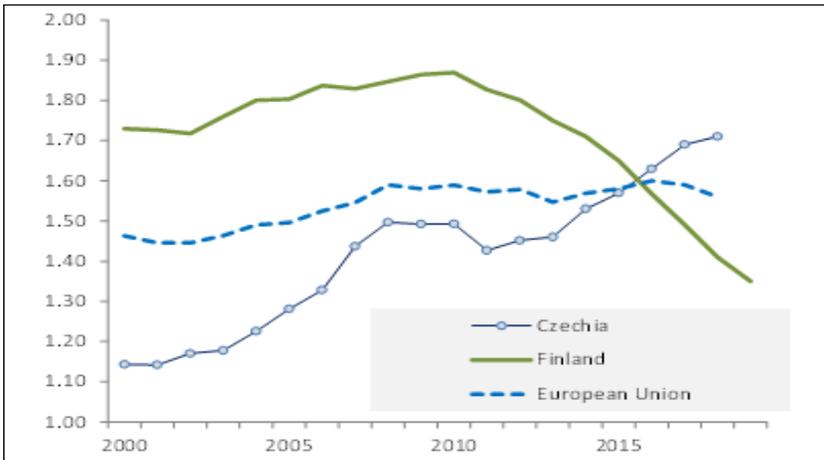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20), Eurostat (2019)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국가별로 출산율 변화 경향이 서로 다르게 전개 된 결과 유럽 국가의 출산율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되고 있다. 적어도 기간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출산율이 낮은 국가와 인구 대체 수준에 가까운 국가로 양분화(McDonald 2006; Rindfuss et al., 2016; Billari, 2018; Reher, 2019) 되었던 과거의 모습은 거의 사라졌다. 2008년에 상대적으로 높은 기간 합계출산율을 보였던 국가들은 이후 10년 동안 출산율의 하락을 보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핀란드, 노르웨이는 동 기간 동안 기간 합계출산율이 0.3~0.5명 하락하였다 ([그림 2-2]). 2008년에 프랑스,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은 1.9명 혹은 그 이상을 보였는데 최근 이들 국가의 출산율 하락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이라는 의미를 재 정의하게 하였다. 2018년엔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기간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는 프랑스로 1.9명 이하이며 그 다음으로 아일랜드와 스웨덴으로 1.75명이다. 그 밖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평균적인” 기간합계출산율 1.4~1.7명 수준을 보인다(Sobotka and Zeman, 2020). 국가별 출산율 격차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

유럽 국가와 동유럽 국가 그리고 덴마크와 스웨덴은 출산율 변화의 반전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Sobotka, 2017; Sobotka et al., 2019). 그 결과 유럽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설명이 어려운 변이가 관찰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00년과 2019년 기간 동안 체코는 유럽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상승하였으며, 핀란드의 경우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서 매우 낮은 수준인 1.35명으로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3] 혹은 아래 템포 효과에 대한 설명 참조).

[그림 2-3] 체코·핀란드·유럽 연합 28개 국가의 기간 합계 출산율 (2000-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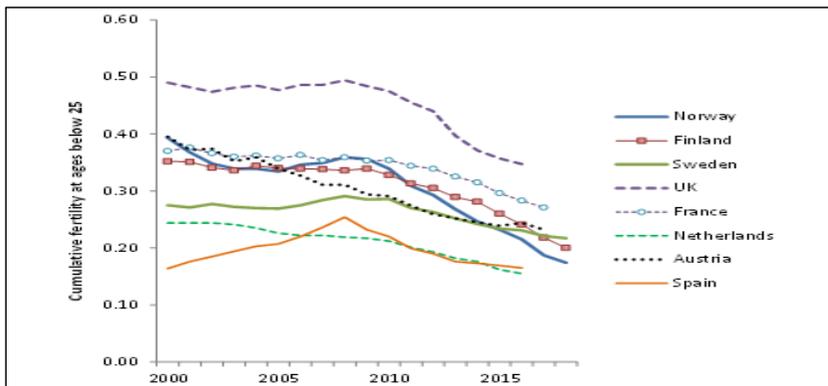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20), Eurostat (2019)

### 3. 최근 출산율 변화에서 출산 시기 변화와 템포 효과의 역할

최근 유럽 국가의 출산율 변화는 출산 시기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은 첫째로 출산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핀란드, 노

르웨이, 스페인에서 나타나고 있다(부록 그림 2 참조). 반대로 자녀 출산이 늦추어지는 경향은 체코와 헝가리를 포함한 중유럽국가와 동유럽국가에서 저하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국가에서 출산율 하락은 특히 25세 미만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와 비교하여 반전된 모습이다. 2008년 이전 젊은 여성들의 출산 연령은 안정화되었고 많은 유럽 국가에서 오히려 젊은 여성들의 출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예를 들면 스페인) 이는 부분적으로 이민자 여성이 젊은 연령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이었다(Vila and Martin, 2007). 2008년 이후 이들 국가에서 젊은 여성의 출산 빈도는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특히 북유럽국가(핀란드, 노르웨이)를 비롯하여 영국과 스페인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그림 2-4). 과거 높은 10대 출산율 - 낮은 피임률과 계획하지 않은 임신의 높은 빈도 -을 보였던 국가들은 어린 연령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전형적이지 않은 다른 유럽 국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Tomkinson, 2016).

[그림 2-4] 유럽 국가의 12~24세 누적출산율 (2000-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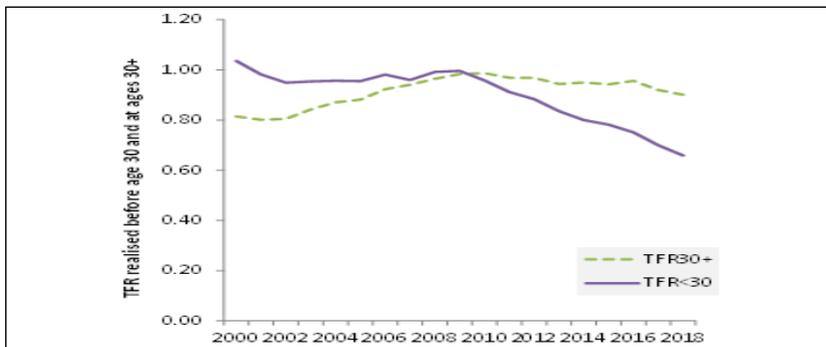


주: 이 그림은 12~24세 연령별 출산율의 누적치이며 해당 연령의 여성들이 합계출산율에 기여한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20), Eurostat (2019)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그러나 어린 연령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향이 감소한 것이 유럽 국가 출산율 하락을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자녀 출산의 연령별 동향의 변화를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2010년 이후 자녀 출산 연령이 높은 연령대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노르웨이가 이러한 경향을 잘 설명해 준다. 2002년과 2009년 사이에 기간 합계출산율의 증가는 30세 이하 여성의 안정적인 출산율(전체 합계출산율에서 여성 당 1.0명 기여)과 30세 이상 여성의 출산율 상승에 의한 것이었다([그림 2-5]와 [부록 그림 3]). 30세 이상 여성의 출산율 상승은 젊은 연령에서 자녀 출산을 연기한 코호트 여성들이 높은 연령에서 출산을 회복하였기 때문이다. 2009년 이후 두 가지 변화된 모습이 관찰되었다. 첫째, 10대와 20대 여성들의 출산율이 하락하였다. 둘째, 높은 연령 여성들의 출산율 상승이 멈추었고 안정되거나 혹은 약간 하락하여 적어도 임시적으로 출산 회복 경향이 멈추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노르웨이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2013년 이후에도 가속되어 30세가 넘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출산율은 하락하였으며 젊은 연령 여성들의 출산율 하락도 심화되었다([부록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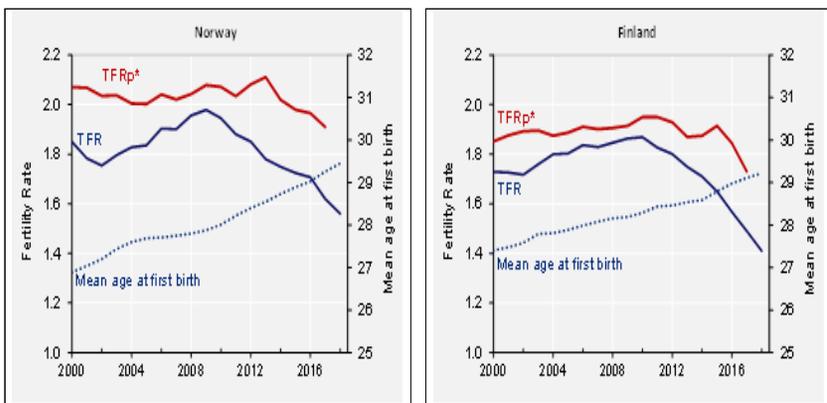
[그림 2-5] 노르웨이의 12~29세(30세 미만)와 30~54세(30세 초과) 누적 출산율 (2000~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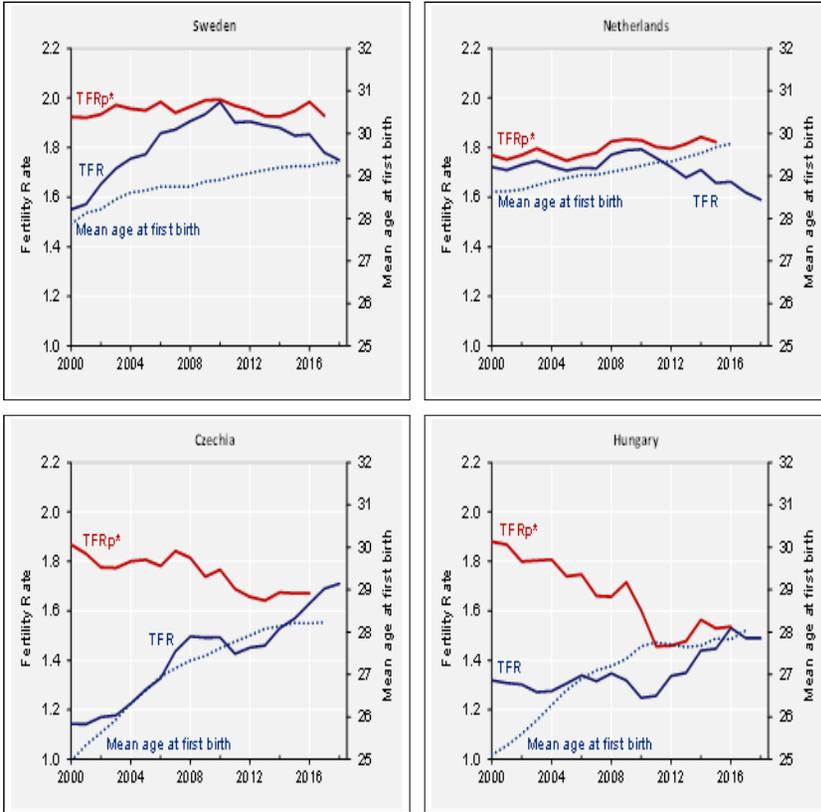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20)

유럽 전역에 걸쳐서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는 출산율 변화는 템포 효과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유럽 국가의 출산율 하락은 출산이 높은 연령으로 연기되었기 때문인가? [그림 2-6]은 템포 및 출산 순위 조정 합계출산율(TFRp\*; Bongaarts and Sobotka, 2012)을 이용하여 템포 효과를 조정한 유럽 6개 국가의 출산율을 보여준다. 동 지표는 템포 효과를 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 가능 연령대에 있는 여성 인구의 순위별 출산 분포도 함께 조정하였다. 템포 및 출산 순위 조정 합계 출산율은 다른 방식으로 템포 효과를 조정한 출산율 측정치 보다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며, 최고 생산 가능 연령에서의 코호트 완결 출산율의 변화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2-6]에서는 합계출산율이 하락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네 국가와 최근 합계출산율이 상승한 체코와 헝가리의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6] 6개 유럽 국가의 기간 합계출산율, 템포와 출산순위조정 합계출산율(TFRp\*), 첫째아 출산 평균 연령 (2008-2018년)



26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연구 - 동아시아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화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20).  
 주: TFRp\* 자료는 Kryštof Zeman이 계산함

북유럽국가와 네덜란드는 분석 기간 동안 기간 합계출산율과 템포 및 출산 순위 조정 합계출산율의 변화가 공통적인 양상을 보인다. 2009~2010년까지 두 지표의 차이는 북유럽국가의 경우 좁혀졌으며 네덜란드는 지속적으로 적은 차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동 기간 동안 출산 연기와 이로 인한 템포 효과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합계출산율은 상승하였고 기간 합계출산율이 템포 및 출산 순위 조정 합계출산율에 가깝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후 경제 위기가 시작되

고 난 후 기간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첫 번째 기간인 2010~2014년 동안 출산 연기가 증가되었고 기간 합계출산율은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템포 및 출산 순위 조정 합계출산율은 일정한 수준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다. 기간 합계출산율과 템포 및 출산 순위 조정 합계출산율간의 간극은 다시 커지기 시작하였다. 가장 최근에 와서 특히 2016~2018년 기간 동안 북유럽국가의 템포 및 출산 순위 조정 합계출산율은 기간 합계출산율 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기간 합계출산율과 함께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2015년 이후 기간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템포 효과 뿐만 아니라 출산량의 감소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양상은 서유럽 국가와 북유럽 국가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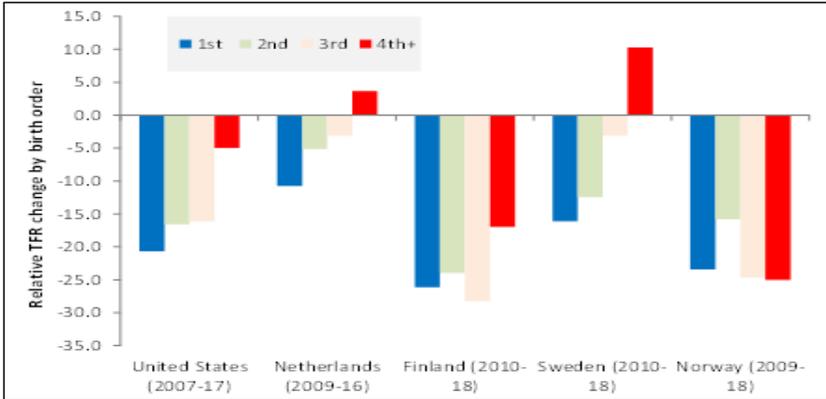
반대로 지난 10년 동안 기간 합계출산율이 상승한(경제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던 2010년에 하락한 적은 있었지만) 체코와 헝가리와 같은 중유럽 국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국가에서 기간 합계출산율의 상승은 출산 연기가 감소하여 기간 합계출산율과 템포 및 출산 순위 조정 합계출산율 간의 간극이 좁혀져서 2016년에 와서 두 수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게 되었다. 실제로 템포 및 출산 순위 조정 합계출산율은 기간 합계출산율의 변화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기간 합계출산율의 상승이 출산율 회복을 말해 줄 수 있지만 템포 및 출산 순위 조정 합계출산율은 경제 위기에 해당하는 2008~2011년 기간 전체에 걸쳐 하락하였고 특히 헝가리에서 빠른 속도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 4. 출산 순위·이민자 출산·사회경제적 계층별 출산

최근 출산율 하락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출산 순위, 이민자 출산, 사회경제적 지위 등 계층별 출산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최근의 출산율 변화가 인구 전반에 걸친 출산 행태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그룹의 여성들이 다른 그룹의 여성들 보다 더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경험한 것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분석은 미국의 최근 출산율 하락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 이민, 소수 인종, 저학력 - 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출산율 하락에 기인한바 크다는 연구 결과에 동기를 받고 수행하였다(Livingston and D’Vera, 2012; Hamilton and Kirmenyer, 2017; Bagavos, 2019). 본 분석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최근 출산율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가장 “혼돈스러운” 출산 경향을 보이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2-7]은 젊은 연령에서의 급속한 출산 감소와 함께 첫째아 출산도 상당 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출산율이 출산 순위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첫째아 출산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높은 순위의 출산이 가장 적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넷째아 혹은 더 높은 순위의 출산은 약간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경우 기간 합계출산율은 모든 출산 순위에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둘째아 출산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관찰된다).

[그림 2-7] 미국과 네 유럽 국가의 출산 순위별 TFR 변화율  
(2007-2010년, 2016-2018년)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20)

과거 십수년 동안 유럽에서 이민자 인구는 증가하였으며 이민자들이 총 출생아 수와 출산율에 기여하는 정도는 증가하였다(Sobotka 2008a; Sobotka et al., 2015; Bagavos, 2019).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민자 여성은 본국 출생 여성들 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이민자 여성과 본국 출생 여성 간의 출산율 수준이 점차 비슷해지고 있어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는 본국 출생 여성과 외국 출생 여성 간의 출산율 수준이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Sobotka et al., 2015; Bagavos, 2019; Tønnessen,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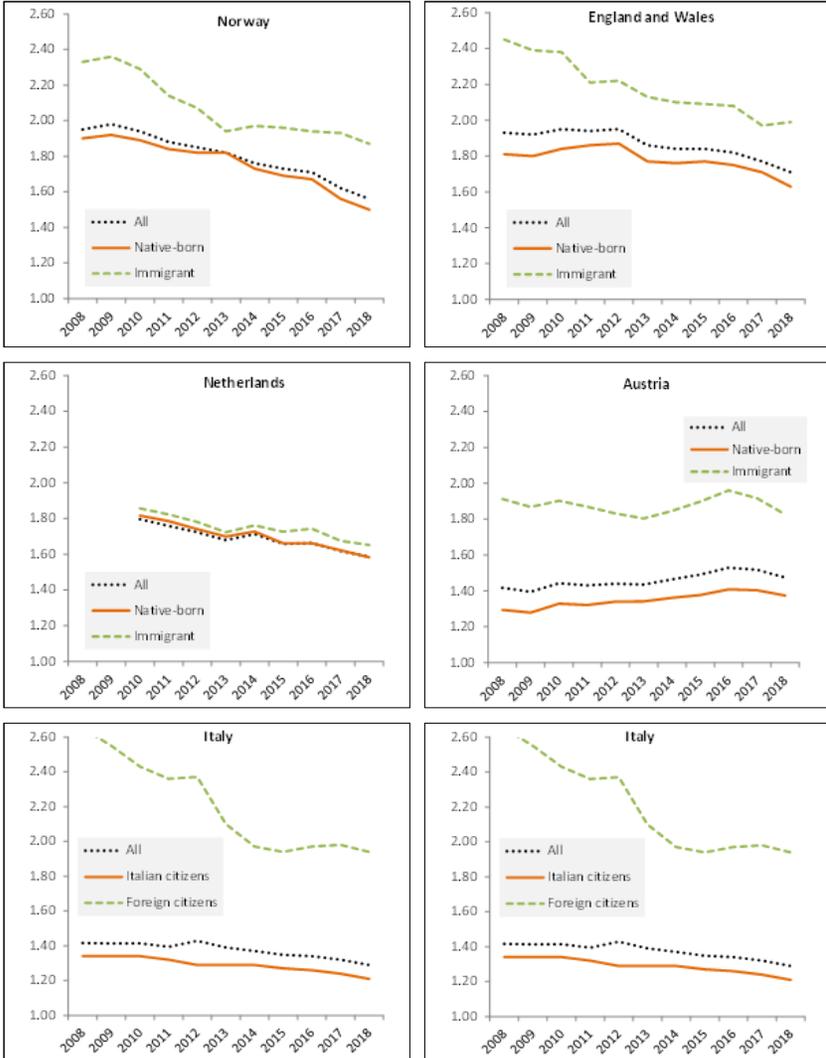
2008년 이후 이민자들의 출산율의 현황은 어떠하며 이들의 출산율이 자국민 여성과 유사해지는 장기적인 추이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경제 위기 동안 이민자들의 출산율도 하락되었을까? 이러한 가정은 이민자 여성과 그 가족들이 다른 집단들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유럽의 네 국가와 지역(영국과 웨일즈,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을 대상으로 2008년

과 2018년 기간 동안 이민자 여성과 본국 출생 여성들의 기간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 동안 이민자 여성의 자료가 없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대상으로 시민권이 있는 여성들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민자 여성과 본국 출생 여성 간의 출산율 추이는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몇 가지 공통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 본국 출생 여성과 이민자 여성(혹은 외국 시민권을 가진 여성)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평행적인 모습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간과 국가에서 두 집단은 평행적인 출산율 감소를 보이고 있다.
- 처음부터 이민자 여성이 높은 출산율을 보인 국가들 (영국과 웨일즈, 이탈리아, 노르웨이)은 2008년에 기간 합계출산율이 2명 수준을 넘었으나 이후 이민자 여성들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본국 출생 여성과 이민자 여성 간의 출산율 격차가 좁혀졌다
- 그러나 두 집단의 출산율이 유사해 지는 양상은 대부분 경제 위기 이전부터인 2008~2013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 본국 출생 여성과 이민자 (외국인) 여성들의 출산율은 유사한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일반화는 이민자 여성들이 서유럽, 북유럽, 남유럽의 출산율 감소 경향에 “동참”하고 있으며 본국 출생 여성들과 유사한 출산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말한다. 2018년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민자 여성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2명 혹은 그 이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는 국가들도 있어 프랑스는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Bagavos, 2019). 독일은 2015년 즈음에 난민 이민자들이 유입되었을 때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이 상승하기도 하였으며 (Pötzsch, 2018), 그 수준은 낮지만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에서도 이민자 출산율이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림 2-8] 유럽 국가 이민자 여성과 본국 출생 여성의 기간 합계출산율 (2008-2018년)



주: 오스트리아, 영국과 웨일즈, 노르웨이, 네덜란드의 자료는 이민자 여성(다른 국가에서 태어난 여성)과 본국 출생 여성(본국에서 태어난 여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자료는 시민권 소유 여부에 따라 출생 장소와 무관하게 외국인과 자국 시민으로 구분하고 있음

자료: Austria: Birth Barometer 2019 (Zeman et al. 2019); England and Wales: ONS (2019a); Norway: Statistics Norway (2019); the Netherlands: CBS Statline (2019); Spain: INE (2019); Italy: ISTAT(2019)

사회계층별로 출산율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최근 출산율 변화를 이해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전체 인구 중에서 높은 교육 수준의 여성과 남성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출산 행동도 전체 출산 경향과 양상을 결정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Adsera, 2017). 사회 계층별 특히 교육 수준별 출산율이 미래에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Sobotka et al., 2017). 이러한 견해 중에 한 부류는 고학력 부부가 자녀 돌봄과 가사 노동에서의 양성 평등을 이끄는 선도자로서 더 안정적인 직업, 높은 수입, 안정적인 부부 관계,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과 부부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 확대되어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되어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높은 출산율 수준을 따라 잡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사회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상반되는 견해는 낮은 교육 수준의 여성과 남성이 직업을 가질 기회가 적고 임금도 오르지 않으며 불안정한 가족생활을 하여 점점 더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Adsera, 2017). 그 결과 이들의 출산율이 하락하여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율 보다 낮게 된다는 것이다.

코호트 출산율 자료에 기초한 실제적인 장기적 동향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1940~1970년에 태어난 여성들의 코호트 출산율의 교육 수준별 격차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Sobotka et al., 2017, 2018), 이와 유사한 결과가 미국(Munnell et al., 2019)과 호주(Gray and Evans, 2019) 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과 남동유럽 국가 및 동유럽 국가에서는 완결 코호트 출산율의 교육 수준별 격차가 커지고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Berrington et al., 2015; Sobotka et al., 2018). 저학력 여성과 남성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러한 저학력 집단은 주변화 되고 사회적 및 경제적 불이익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해 가

족 관련 행동도 영향을 받게 된다 (Jalovaara et al., 2019). 북유럽국가에서는 1945~1974년 사이에 태어난 저학력 여성들의 무자녀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고학력 여성의 무자녀 비중을 상회하게 되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저학력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감소하였으며 고학력 여성의 자녀수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게 되었다 (Jalovaara et al., 2019).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 수준별로 최근 출산율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핀란드는 2010년 이후 여성과 남성 모두 모든 교육 수준에서 유사한 크기로 기간 합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Statistics Finland, 2019). 유럽 외 국가 중 호주에서 최근 출산율의 감소가 2차 교육만 받은 저학력 여성들의 출산율 하락에서 기인한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McDonald and Moyle, 2019). 교육 수준 이외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경제 위기 기간 동안 출산율이 높게 유지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정규적인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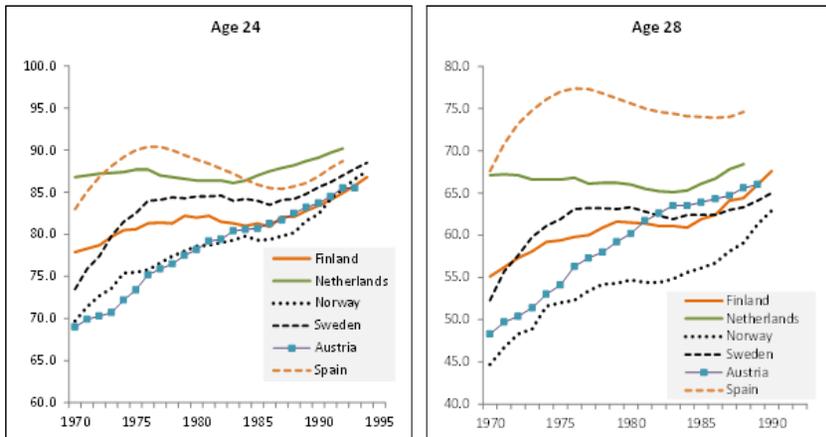
(Ramiro-Fariñas et al., 2017).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육 수준과 무관하게 임시직 여성이나 비취업 여성이 더 빠른 첫째아 및 둘째아 출산율의 감소를 보였다.

## 5. 최근 출산율 하락의 장기적인 결과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국가에서 지속된 기간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1980~1990년대에 태어나서 지난 15년 동안 성인기에 접어든 여성들의 코호트 합계출산율과 무자녀 현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포함하여 젊은 연령에서 출산율 하락과

함께 높은 연령에서 출산 회복이 멈추어진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자녀 현상은 1975년 이후 출생한 여성들 사이에서 종결되었으나 최근 20대 여성의 자료를 보면 무자녀 경향에서 반전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임시적으로 젊은 여성들의 무자녀율은 1980년 경에 태어난 여성들을 중심으로 변화가 없거나 하락하였으나 1985년 이후에 태어난 여성들 사이에서 무자녀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의 24~28세 여성들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9]). [그림 2-9]는 또한 유럽 국가 젊은 여성들의 출산이 하락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에서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여성들 중 10~12%만이 24세에 자녀를 낳았다. 이러한 유래 없이 낮은 비중과 유사한 양상은 서유럽, 북유럽, 남유럽을 포함하여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슬로베니아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10~15%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 2-9] 유럽 국가 1970~1995년 출생 여성이 24세와 28세에서의 무자녀 비중



주: 두 그래프의 y축은 서로 다르며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20)

향후 10년 동안 30세 여성들 사이에서 현격한 출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근 출산율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무자녀율 뿐만 아니라 완결 출산율도 영구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85년 이후 출생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무자녀율의 변화와 함께 코호트 합계출산율에서도 반전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과 웨일즈에서 1988년과 1998년 사이에 태어난 코호트 여성들은 이전 출생 코호트 여성들과 비교하여 20대에서의 누적 출산율이 현저하게 낮고 높은 연령에서 출산율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경향도 보이지 않고 있다 (ONS 2019b). 더 많은 여성들이 30대 후반에 무자녀로 남아 있고 출산을 의도하는 연령이 더 높은 연령으로 옮겨감에 따라 더 많은 여성들과 부부들이 출산 계획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Sobotka and Beaujouan, 2018). 향후 출산율의 회복은 재생산이 가능한 남아 있는 기간과 불임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것이다(Ciganda and Todd, 2019). 서로 다른 방법론에 기초한 북구 유럽 국가의 코호트 출산율 추계 결과를 보면 1980년대에 태어난 여성들 중에서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에서 현격한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이보다는 약한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핀란드의 코호트 합계출산율 추계치는 1988년 코호트 여성의 경우 1.44~1.65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1975년 코호트 여성의 1.90명 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EU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볼 때 1976년 코호트 여성의 코호트 출산율 1.65명에서 더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준다(영국을 제외한 EU 27개 국가, VID, 2018).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코호트 출산율이 현재 1.8명에서 더 하락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6. 토론: 불확실한 세계에서의 출산

1988년 David A. Coleman은 “알려지지 않은 세계에서의 재생산과 생존”이라는 강연에서 출산율 감소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이해와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출산율 변화가 가지고 있는 패러독스를 지적하였다.

“우리는 현재 유래 없이 풍부한 인구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학적 행동 매커니즘에 대한 설명과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아주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신 인구학적 무지에 직면하여 현재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는 볼 수 있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관찰은 30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더욱 타당하다. 유럽 국가의 출산율은 현재 갈림길에 놓여 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국가는 인구 대체 수준에 가까운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와 저출산을 보이는 국가로 양분되었었다. 이러한 이분화는 현재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각 국가의 기간 합계출산율 자료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그림 2-1]). 200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초저출산이라는 잠재적인 뒷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Goldstein et al., 2009). 인구학자들은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요인에 대해서 토론하였다(Billari, 2018).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구 대체 수준에 가까운 출산율을 보이거나 지속적인 출산율 회복을 보이는 국가들은 높은 경제 발달 수준, 높은 수준의 양성 평등, 관대하고 안정적인 가족 정책, 청년층의 번영(이른 연령에서의 주거 독립 포함), 안정적인 경제 상황 등 제도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대에 와서 이러한 모습은 흔들리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출산율 수준이 인구 대체 수준에 머물렀던 서유럽 국가와 북유럽 국가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출산율의 하락은 유럽 국가에 한정해서만 나타나지 않고 인구 대체 수준에 가까운 출산율을 보였던 미국이나 호주 등 모든 선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하락은 경제 위기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2012년 이후 경제가 회복되고 실업율이 하락하는 등 경제 위기가 극복되고 난 후에도 출산율 하락은 지속되고 있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영국에서 2013~2018년 경제 위기가 끝난 시점에서 이들 국가에서 어떠한 현저한 체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합계출산율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코틀랜드를 포함한 몇 개의 국가와 지역은 역사상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본 절의 분석 결과는 유럽 국가의 출산율 하락이 곧 사라질 템포 효과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유럽 국가의 출산율 하락은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민자 혹은 저학력 집단 등 서로 다른 사회적 계층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출산율 하락은 젊은 연령에서의 첫째아 출산 연기, 혼인율 감소, 높은 연령에서 출산율 회복의 약화 등 복합적인 양상의 결과이다(북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Hellstrad et al., 2020 참조). 템포 조정 합계출산율 측정치는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와 북유럽 국가에서 출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독일어권 국가(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와 중유럽 및 동유럽 국가 그리고 일부 남동 유럽 국가에서 기간 합계출산율은 안정적이거나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바로 강한 경제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국가들은 가족에 대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새로운 가족 정책을 도입하였다. 국가마다 다양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에스토니아와 독일의 경우 북유럽 국가 스타일의 보육 서비스나 육아 휴직 제도를 확대하였고,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은 다자녀 가족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 조세 및 대부 정책 등 출산장려적인 정책을 도입하였다.

한편,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을 보이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2015년 이후에도 출산율 하락은 이어지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몰타에서 기간 합계 출산율은 다시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에 이들 국가들이 초유의 저출산 양상을 보였을 때와 유사한 수치이다(Sobotka, 2004; Goldstein et al., 2009). 남유럽 국가에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남유럽 국가에서는 초저출산과 관련된 체계적인 특징인 높은 실업율, 불안정한 일자리, 제한된 가족 정책, 낮은 양성 평등, 청년들의 낮은 지위(Billari, 2018), 늦은 연령에서의 독립과 결혼 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남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초저출산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다(Ferrera, 2016; Gietel-Basten, 2019; Sobotka, 2017).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중간 수준의 출산율로 변동하고 있어 유럽 국가 간 출산율 차이는 감소하고 있으며 적어도 당분간은 사회 체계적 조건과 출산율 간의 관계는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Sobotka and Zeman, 2020). 기간 합계출산율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출산 시기의 변화에 의한 바가 크다. 출산율의 국가 간 그리고 지역 간 차이는 사라지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논쟁되어 왔던 체계적인 조건(경제 발전, 양성 평등, 여성 노동 시장 참여율, 가족 구조 변화 등)과 출산율 간의 관계는 약해지고 있다(Billari and Kohler, 2004;

Myrskylä et al., 2009; Luci-Greulich and Thévenon, 2014; Arpino et al., 2015).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인 양상일 수 있으며 유럽 국가 간의 코호트 출산율과 자녀 수의 근본적인 차이를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간 합계출산율의 변화는 유럽 국가의 출산율 지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과거 출산율 양상에 기초하여 유럽 국가의 미래 출산율 추이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이 새로운 출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관찰 가능하다.

1. 불안정한 출산율: 선진 국가의 출산율은 안정화되고 있다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래의 부모들이 경제적 및 체계적 조건 변화, 새로운 정책, 부부, 가족, 자녀 출산에 대한 변화하는 관념들에 대해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Sobotka, 2017). 과거 20년 동안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장기적인 출산율 변화가 하나의 균형 상태에서 다른 균형 상태로 변화하여 결국에 U 모양의 과정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그러나 실제적인 증거를 보면 많은 국가들의 출산율이 급작스러운 상승과 하강을 보이고 있고 체코, 러시아, 스웨덴 및 독일의 동쪽 지역에서는 출산아 수의 급증과 급감을 보이고 있다.
2. 초저출산: 약 10년 전에 기간 합계출산율이 현저하게 낮았던 양상이 사라지고 난 후 다시 초저출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한국, 스페인,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와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 기간 합계출산율은 1.3명 이하이다. 현재 많은 유럽 국가에서 기간 합계출산율이 1.3~1.5명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국가가 이러한 초저출산 양

상을 보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북유럽, 남유럽, 서유럽 국가에서 첫째아 출산이 연기되거나 첫째아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이는 향후 둘째아 출산과 셋째아 출산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출산율 하락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제 하락에 의해 영향을 받은 국가에서 더 심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3. 템포 효과는 유럽 국가 출산율 경향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유지될 것이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 첫째아 출산 평균 연령이 약 30세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출산 연기는 유럽 국가의 출산율 경향 및 국가 간 차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유지할 것이다(Sobotka, 2017; Hellstrand et al., 2020). 20년 전 상황과 유사하게(Sobotka, 2004) 기간 합계출산율의 장기적인 변화와 국가 간 출산율의 차이는 출산의 연기 정도와 양상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체코에서의 기간 합계출산율 상승은 출산 연기의 감소와 이후 연령대의 안정적인 출산에 따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반면에 핀란드의 장기적인 기간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청년들의 자녀 수 감소라기보다는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양상이 현저해졌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될 수 있다.

## 7. 최근 출산율 하락이 주는 시사점

최근 출산율 변화는 유럽 국가의 출산율 지형을 임시적으로 다시 그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인가? 유럽 출산율 변화의 특성에 대한 진단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유럽의 출산율 변화는 미래 출산율에 대한 예측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측정하고 해석함에 있어 중

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본 절의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출산율 변화의 특성과 개념에 대해서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벨기에,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그리고 기타 다른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 출산율 하락에 대해 인구학자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십년 동안 출산율 변화와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은 (Basten et al., 2014) 최근 일어나고 있는 출산율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출산율 변화를 설명하였던 요인들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노동 시장 조건(Adsera, 2004; Sobotka et al., 2011; Adsera, 2017; Comolli, 2017), 양성 불평등과 젠더 규범(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Goldscheider et al., 2015), 가족 정책(Thévenon and Gauthier, 2011), 청년들의 취약성(Mills and Blossfeld, 2005; Billari, 2018), 경제 발전(Myrskylä et al., 2009; Luci-Greulich and Thévenon, 2014), 행복감(Billari, 2009), 가족 변화와 자녀 출산 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Rindfuss et al., 2003; Sobotka, 2008b; Rindfuss et al., 2016) 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출산율 변화를 설명하는데 아직까지도 적절하지만 최근의 출산율 변화를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출산율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찾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요인으로 소셜 미디어, 디지털 기술, 성관계, 파트너쉽과 부모됨이 포함될 수 있으며 기후 변화, 경제적 불평등, 정치의 양극화, 주거, 고등 교육을 위한 경쟁, 안정적인 고용 등에 대하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근심과 걱정들이 포함될 수 있다. 사회에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생존 실패 신드롬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Mills and Blossfeld, 2005; Sanderson et al., 2013; Billari, 2018).

둘째, 코호트 지표와 템포를 조정한 기간 출산율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간 합계 출산율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국가 간의 반전과 교차 양상은 출산 시기의 변화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과 관련이 있다. 기간 합계출산율은 출산율의 경향과 변화를 이해하는데 부족한 지표이다. 출산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장기적인 경향에 주목해야 하고 코호트 출산율과 템포 및 출산 순위가 조정된 기간 합계 출산율의 변화 경향을 살펴 보아야 한다. 이것은 특히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하다. 이들은 기간 합계출산율을 정책을 설정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로 보고 단기적으로 기간 합계출산율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마치 정책이 효과를 가져온 것처럼 여기고 있다(Sobotka et al., 2019). 기간 합계출산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출산율의 경향과 정책 효과를 잘 못 이해하는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출산율 추계는 저출산의 장기 지속성에 대한 시나리오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십 년 전에 인구학자들은 후기 산업화 사회에서 출산율이 안정되거나 인구 대체 수준에 가깝게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생각은 유효한데 많은 인구 추계에서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가깝게 회복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World Population Prospects로서 1년에 두 번씩 UN이 발간하는 세계 인구 추계에서 채택한 3단계 출산율 변화 모형이다. 동 모형은 출산율 변천의 끝에서 출산율의 변화 모습은 U 자형을 따를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Alkema 외(2011: 826)은 장기적으로 “기간 합계 출산율은 인구 대체 수준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수렴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비교되게 많은 인구 전문가들과 국가 인구 추계는 선진 국가에서 인구 대체 수준 이하의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Basten et al., 2014; Sobotka et al., 2016). 동유럽 국가, 남유럽 국가, 동아시아 국가의 최근 경험을 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 출생한 여성들의 완결 출산율이 1.3~1.5명이라는 매우 낮은 수준을 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볼 때 장기 추계 시나리오는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이 장기간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고학력 여성의 가족 형성이 미래 출산율의 행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과거 십수년 동안 고학력화가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교육 수준의 향상은 특히 여성들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모든 유럽 국가에서 대학 학력 비중은 여성이 남성을 압도하고 있다(VID, 2016). 영국, 러시아, 스위스 그리고 많은 다른 국가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자의 비중은 과거 세대를 앞질렀다(OECD, 2019; Wittgenstein Centre, 2020). 이러한 경향은 출산율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저학력 여성보다 고학력 여성이 출산이 낮은 국가에서는 고학력 여성들은 대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난 후 직업과 가족생활을 함께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 한국의 사례를 기준으로 가정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해 보았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비중이 높으며(OECD, 2019), 25~29세 여성의 77%가 2차 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Wittgenstein Center, 2020). 만일 유럽 국가가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여성 대학교 졸업자 비중을 갖게 된다면 완결 출산율이 어느 정도로 감소할까? 1970년 출생한 여성들 대상으로 출산율을 관찰되고 있는 수준으로 고정 한 후 유럽 국가 여성들의 학력이 한국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가정 한 후 출산율의 교육 수준별 격차를 보았다(부록 그림 4). 북유럽 국가의 경우 여성들의 교육 수준 확대가 완결 출산율 수준에 거의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에 남유럽 국가, 중유럽 국가, 남동유럽 국가에서는 완결 출산율이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가장 큰 감소를 보인 국가는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로 여성 1명당 약 0.3명의 자녀 수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남유럽 국가, 남동유럽 국가, 동유럽 국가에서 여성의 학력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되고 고학력 여성의 출산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못한다면 코호트 출산율이 1.3~1.4명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정적인 인센티브에 기초하여 새로운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한 중유럽 국가, 남동유럽 국가, 동유럽 국가가 가족 정책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한다(Sobotka et al., 2019).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보육 시설에 대한 투자, 유연하고 급여가 충분한 육아 휴직, 남성들의 육아 참여, 부모들의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일 것이다. 가족정책은 일괄적인 유형의 정책이 아닌 가족의 선택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공하고 미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욕구와 선호를 반영하며 가족의 다양성과 국가별로 차별적인 가족생활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 제2절 북유럽 국가의 최근 출산율 감소와 정책적 함의

Trude Lappegå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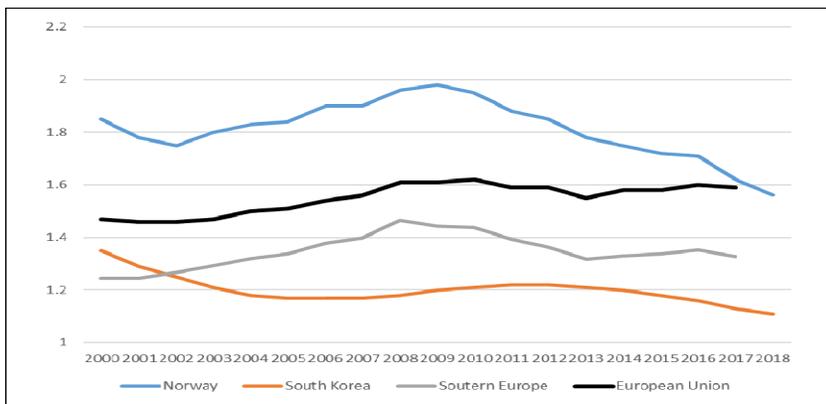
오슬로 대학교

본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출산율 감소 추세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했다(Comolli et al., 2019).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10년에 걸쳐서, 노르웨이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1.98명에서 1.56명으로 감소했다. 출산율 감소 시점이 2008년 금융위기와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르웨이 노동시장의 상황은 그 때부터 지금까지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 정부가 비교적 관대한 복지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경제 위기의 결과로 출산율이 감소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지나친 비약으로 보인다. 세계화, 미디어의 보급,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이미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으며, 무자녀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부부의 결정은 세계 경제, 정치, 문화의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국경을 넘어 주변국으로 확산되면서 자국경제 혹은 지역경제가 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된다(Comolli et al., 2019; Comolli and Vignoli, 2019). 따라서 이러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출산을 결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의 어떤 측면이 다른 측면에 비해서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랫동안 북유럽 국가들은 출산율과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는 복지정책을 통해서 기혼남녀가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충분한 뒷받침을 해왔기 때문이다(McDonald, 2000). 연구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의 여성 고용과 출산율 사이에는 긍정

적인 관계가 있다. 이러한 관계는 기혼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한 북유럽국가들의 지원을 늘림으로써 여성 교육 및 고용 증가의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시키는데 앞장서 왔다는 것과 그에 따라 출산이 여성의 경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Jalovaara et al., 2019).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해서 사상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몇몇 북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이러한 추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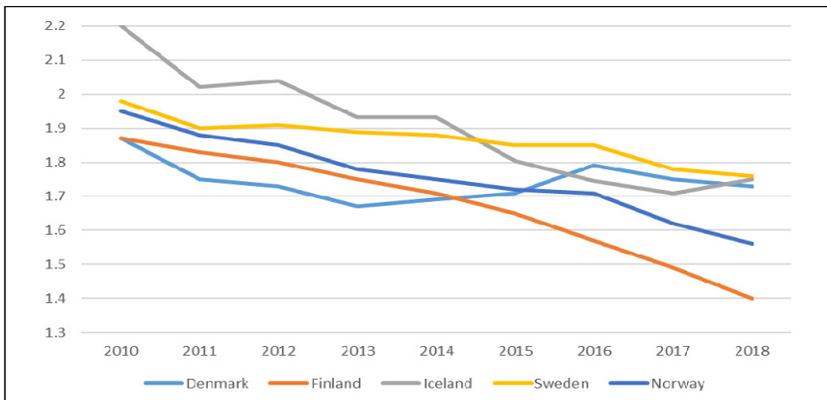
[그림 2-10] 2000-2018년 합계출산율(노르웨이, 한국, 남유럽, EU)



북유럽 국가의 경제주기에 따른 출산율 추이에 대한 최근의 한 연구는 1990년대와 2010년대의 경제 위기를 비교해서 1990년 이후 북유럽 국가들의 출산율 사이에 첨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2008년 이후 북유럽 5개국은 경제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Comolli et al., 2019). 1990년대 초 경제위기 상황과 비교했을 때, 2008년 경제 위기는 회복 속도가 더 빨랐지만, 출산율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2010년대까지 오랜 시간 지속됐다. 연구자들은 오늘날의 세계가 이전보다 좀 더 밀접하게 연결됨에 따라, 특정 국가의 경제나 복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다른 북유럽 국가 개개인의 불확실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Comolli et al., 2019). 2008년 금융위기 전후 수년 간에 걸쳐 다양한 경제적 요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노르웨이에서 수행된 한 연구는 직업을 갖는 것이 출산을 계획할 때 좀 더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연구는 요즘 젊은 세대의 경우, 직장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오랜 시간을 보낸 후 비로소 출산을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Dommermuth and Lappegrdrd, 2017).

[그림 2-11] 북유럽 국가의 2010-2018년 합계 출산율



노르웨이인들의 출산과 실업 간의 관계에 대한 최근 한 연구에서는 개인과 전체 여성과 남성의 출산행위 및 실업 간의 보편적이면서 일관된 상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Kristensen, 2019). 첫째, 남녀의 총 실업률 보다는 개인의 실업이 출산에 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총 실업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

화하고 더 다양해지는 반면, 개인 실업과 출산 사이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일관되게 나타난다. 아이가 없는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개인 실업은 첫 출산을 결정하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가했으나, 노르웨이의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에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이가 없는 남성과 여성의 총 실업의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하게 변했으며, 긍정적인 영향에서 부정적 영향 혹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옮겨갔다. 남성의 경우, 개인 실업과 총 실업이 둘째 아 출산을 결정할 때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여성의 경우, 개인 실직이 둘째 아 출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셋째 아 출산이 넘어갈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실업의 영향은 부정적이지만,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은 감소했다. 이 연구에서 나온 결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실업과 총 실업이 자녀가 있는 부부보다는 자녀가 없는 부부의 출산 결정에 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비슷하게 감지된다. 이는 실업과 출산행동의 관계가 각기 다른 집단에서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전망이 불투명(Bloom, 2014)한 경제 불확실성이 출산과 같은 인생의 중대 결정을 미루는데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한다(Comolli, 2017). 예를 들어, 흔히 실업률의 증가로 나타나는 한 사회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과거에는 한 국가의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경기 호황기에는 출산율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Sobotka et al., 2011; Goldstein et al., 2013; Neels et al., 2013; Comolli, 2017) 미시적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개개인들이 자녀 출산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돌이킬 수 없는 삶의 전환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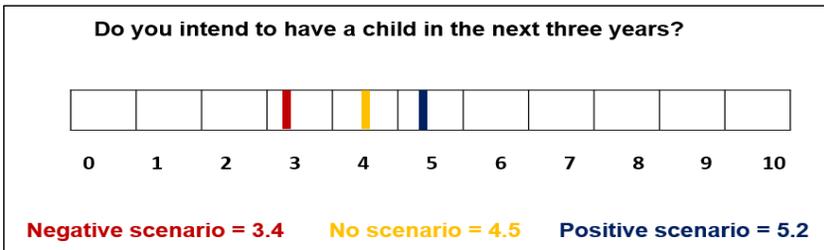
직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 혹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개인의 경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Kreyenfeld et al., 2012; Vignoli et al., 2012; Krayenfeld, 2016; Vignoli et al., 출간 예정).

연구자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부부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개개인 및 거시적 차원에서,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상상력을 활용해서 미래에 대한 개개인의 이야기를 창조한다(Vignoli et al., 출간예정). 이는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제약이나 주관적인 인식과 무관하게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실험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출산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했다. 미래가 불안하고, 경제가 둔화될 것이며, 실업이 증가하고, 고용 불안이 증가하고, 불리한 조건에 고용 계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는 부정적인 경제구조적 제약을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구조적 제약에 대한 시나리오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을 세 개의 집단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 그룹은 부정적인 미래 경제 시나리오에 노출되었고, 두 번째 그룹은 긍정적인 미래 경제 시나리오에 노출되었다. 반면 세 번째 그룹은 어떠한 시나리오에도 노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대조군의 기능하게 된다. 연구자들은 부정적 시나리오에 노출된 집단이 긍정적 시나리오에 노출된 집단에 비해 출산 의향이 낮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9년 9월, 400쌍의 노르웨이 부부 (총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여성 참가자들의 연령은 20세-40세, 남성 참가자의 경우 20세에서 45세였다. 참

가자들은 온라인 설문에 답하기 전에, 상기에 언급된 경제 전망과 관련된 텍스트를 읽었다. 그런 다음, 0에서 10 사이의 척도를 사용해서 향후 3년 안에 출산 의사를 표시할 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때, 척도 0은 “출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의미하고 10은 “출산 의사가 확실하게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고용 상황(정규직, 계약직, 무직 등)에 있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미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의 결과가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특히 초점을 맞췄다. 분석 결과,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노출된 집단이 가장 낮은 출산 의도를 보였으며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노출된 집단이 긍정적인 출산 의도를 보였다. 통제 집단은 출산 의도에서 중간 수준의 수준을 보여 이러한 분석 도구가 적절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림 2-12]).

[그림 2-12] 노르웨이 미래 전망과 출산 의향간의 관계 실험적 연구 결과



북구 유럽에서 보이고 있는 출산율 하락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청년들이 젊은 시기에 미룬 출산을 이후 연령에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출산 회복이 노르웨이가 과거에 보였던 출산 회복과 유사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점점 더 늦게 연기한다면 출산율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과거에 노르웨이 사람들이 가졌던 다자녀에 대한 선호가 바뀌고 있어 다자녀 출산이 이루어지는 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르웨이에서 출산을 둘러싼 현실이 바뀌고 있다. 오늘날 노르웨이의 청년들은 국가가 매우 관대한 가족 정책을 도입한 시기인 1990년대 초에 태어난 세대이다. 그렇다면 가족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노르웨이의 가족 정책은 자녀에 있는 가족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였으며 아직까지도 자녀를 낳을 것을 결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가족 정책은 파트너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의 결혼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적절하지 못하며, 파트너를 가지고 가족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 실업 상태로 있는 것은 파트너를 갖고 결혼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이혼은 촉진하며 적은 수의 자녀를 갖도록 한다. 따라서 가족 정책 하나만 가지고서는 가족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르웨이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가족 형성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일 것이다.

## 제3절 유럽 국가의 출산 의향과 출산 결정

Zsolt Spéder  
헝가리 인구연구소

###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단기 계획 및 가족 규모가 출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하는 역할을 이해하는데 있다. 본론에서는 출산의향에 대한 개념화를 짧게 고찰하고 이후 결과변수의 중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그 뒤 출산 의향의 실현여부에 대한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출산 의향이 실천으로 이어지기까지 방해 혹은 지지하는 요소를 개인, 국가, 지역 차원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가족 규모에 대한 계획을 감안하여 10년 간 장기간의 가임 인구의 변화를 추적하고, 가족 규모 및 출산 의향의 실현에 따른 그룹핑을 실시한다. 보다 면밀하게, 달성자, 미달성자 및 초과달성자를 구분하고, 그룹 구성원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을 생각해본다.

### 2. 출산 의향 및 결과의 측정

출산행위에 의향이 미치는 영향력 및 예측도(predictive value)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의견은 분분하다. 출산의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는 의도의 설명력이 예외적으로 높고, 의도가 독립적이며, 단순히 출산행위의 중재요인만은 아니라고 결론짓는다(Schoen et al., 1999; Berrington, 2004; Beaujoun and Berghammer, 2019) 그러나, 비판적인 접근방식은 출산의향만으로는 출산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이 전무하거나 거의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즉, 출산의향을 증재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는 것이다(Westoff and Ryder, 1977, Toulemon, Testa 2005). 출산의향의 초과달성 혹은 미달성의 높은 비중, 또는 출산의향의 확고함 부족을 출산의향이 거의 역할을 못하거나 미약한 역할을 하게 하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Quesnel-Vallée and Morgan, 2003). 따라서 출산과정에서 의향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진술문들이 각기 다른 의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러한 의향들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문헌을 분석해보면 의향에 대한 각기 다른 세 가지 척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첫째, 더 이상 출산 의향이 없음, 둘째, 특정 기간 내에 하나 혹은 또 다른 자녀를 출산할 의향, 셋째 계획/예상한 가족의 규모이다. 더불어, 출산의향의 확고함 정도와 그것이 배우자의 의향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분석에 포함되어 있다.

(더 이상) 출산 의향이 없는 이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론이 도출됐다 (Westoff and Ryder, 1977; Schoen et al., 1999; Berrington 2004). Westoff와 Ryder는 출산의향의 독립적인 영향력에 대해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한다. 반면 Berrington의 연구에서는 출산의향의 독립적 영향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Schoen 외 등은 출산의향이 예측력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녀의 출산여부 혹은 아이를 더 낳겠다는 의향 및 미래에 자녀를 낳겠다는 확고한 의향이 미래 출산행동과 일관되게 일어난다(Schoen et al., 1999:798)."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점과 의존적인 의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일치된 결과가 없다. Schoen 등에 따르면, 만약 그 의도가 "예측 가능한 미래"(그들의 경우, 4년 이내)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출산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생각은 Rindfuss 외 연구진(1988)의 의견과 일치한다. 반대로, Westoff와 Ryder는 향후 2년 동안의 의도는 그 2년 기간 내의 실현에 대해 높은 예측이 되지 않지만 먼 장래에 출산의 가능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냈다. Toulemon과 Testa 비슷한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것은 다른 많은 요인에 의존하기 때문에 출산의향과 실제 출산행동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느슨하다는 것이다(Toulemon and Testa, 2005:4). 미국의 시간 의존적 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과반수(70%)는 출산의향을 실현하는데 실패한 원인을 다양한 요인(Westoff and Ryder, 1977: 433)으로 인한 의도의 변화에서 찾았다.

예상 가족규모와 관찰된 출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종적 연구는 (개인의) 출산 완료가 출산의향의 미달성과 초과달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Quesnel-Vallée and Morgan, 2003, Rackin and Morgan, 2010). 프랑스(Monier, 1989)와 헝가리(Kamarahs and Szukics, 2003)의 보고서도 미래의 가족 규모에 대한 과대평가(의도의 미실현)를 지적했다. 이 문제를 면밀하게 고찰한 Liefbroer는 예상 가족 규모의 하향(및 상향) 조정뿐만 아니라 개별 예상 가족 규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와의 관계와 활동 상태의 변화, 출산, 노화 등과 같은 요소와 메커니즘을 고찰하였다(Liefbroer, 2008).

서로 다른 견해와 혼합된 결과는 부분적으로 출산의향 측정의 차이, 부분적으로 각기 다른 연구문제, 또는 출산결과의 측정에서 초래된다. 출산율 척도와 출산의향 척도가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둘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Bejaoun and Berghammer 2019). 가장 두드러진 예는 국가 차원의 의도한 또는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가족 규모를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과 비교할 때다(즉, TFR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일 때만 정의에 일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출산 의향과 결과 척도는 <표 2-1>과 같다.

<표 2-1> GGS 프로그램에서 출산의향 및 결과(실현)의 측정

의향의 유형	결과척도 (이상적)	결과척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내에 자녀 혹은 자녀 한 명을 더 낳을 의향이 있음</li> <li>• 최종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자녀의 수 (현재 자녀 수 + 추가 자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9개월-45개월) 안에 한 자녀를 낳을 계 획입</li> <li>• 출산을 50세에 마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6개월 안에 임신이 된다면 (9-45 개월 안에 출산) (개인별 척도)</li> <li>•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 내에서 의도 한 자녀의 출산율(국가 차원의 척도)</li> <li>• 11년 안에 의도한 자녀의 수를 출산 하였는지 여부 (개인별 차원의 척도)</li> <li>• 출산 자녀수 별 코호트 내 사람들의 비율(코호트 수준의 척도)</li> </ul>

### 3. 선행 연구

#### 1) 개별적 결정요인

상당히 방대한 양의 문헌들이 한 국가에서 출산의향을 실현하거나 실현을 방해하는 개인(집단별)의 결정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Heaton et al., 1999; Berrington, 2004, Toulea, 2006; Morgan and Rackin, 2010; Dommermuth et al., 2014; Kunst and Trape, 2016; Pailhé and Regnier-Lolier, 2017). 또한 일부 비교 분석에서는 단기 출산의향의 실현을 지원하는 보편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특징을 강조한다 (Regnier- Lolier and Vignoli, 2011, Kapitány-Spéder, 2012).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몇 가지 공통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 배우자와의 관계 상태 및 출산경력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실현의 성패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중년, 동반자 관계가 아닌 상태로 거주하면서 출산아 수가 많은 경우, 출산 계획을 실현할 가능성이 낮다. 몇몇 국가들(이탈리아, 헝가리, 스위스)에서는 무자녀 커플들이 자녀가 있는 커플들보다

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이 더 높다. 분명한 것은 파트너십이 출산의향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파트너십의 형태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헝가리에서는 파트너십의 형태에 따라 출산결정의 불확실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회·경제적 지위(교육, 소득, 여성과 배우자의 직장)의 영향은 포괄적이지 않으며 분석된 국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이탈리아에서는 남성 배우자의 교육 수준이 출산의향의 실현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 반면,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중대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은 또한 특히 이탈리아인들의 출산의향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독일에서는 남성이 실직 상태이거나 여성이 정규직인 경우 출산의향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탈공산주의 국가들만을 살펴보면, 주관적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출산의향을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더 낮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혼란기”에 출산의향이 실천에 옮겨질 가능성은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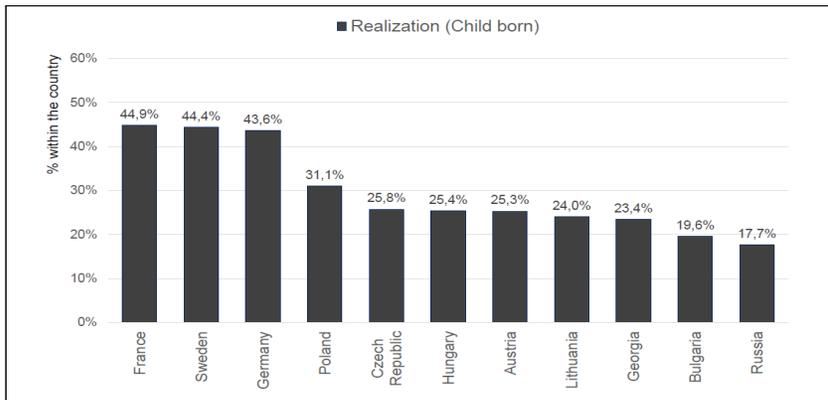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가족의 규범과 태도 또한 중요하지만, 영향력이 덜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주관적 규범이 큰 영향을 미친다(Heaton et al. 1999, Kuhnt and Trappe 2017). 즉, ‘중요한 타인’이 그들의 출산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출산의향을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더 높다.

## 2) 비교 결과

비교 연구는 특히 단기 출산의향의 실현에서 서유럽과 동유럽 국가들 간 국가별 중대한 차이를 발견했다. 3년 안에 아이를 갖겠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 실제로 아이를 출산한 사람은 프랑스와 독일이 5분의 2, 헝가리

와 그루지야의 경우 3분의 1, 불가리아에서 5분의 1로 나타났다(Spéder and Kapitány, 2014, Spéder, 2019). 출산의향을 갖기 시작해서 실현 되기까지 2년의 시간 차에서 국가별(네덜란드, 스위스, 헝가리, 불가리아) 출산의향 실현율을 고려한 후에도 서유럽과 동유럽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비교한 결과, 두 국가(Regnier-Lollier and Vignoli 2011) 간에 큰 차이는 없다. 마지막으로 다변량 모델을 채택한 후 비교해본 결과, 서유럽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 간의 차이가 증가한다. 탈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우, 출산의향을 행동으로 옮길 확률은 서유럽 국가들의 절반을 하회한다.

[그림 2-13] 3년 이내에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7-36개월 이내에 아이를 낳은 사람들의 비율 (2004-2015년)



자료: 자체 산출, GGS 1차 및 2차 웨이브  
주: 21-44세의 모든 유럽 여성, 배우자 남성의 나이는 21-44세

그러나 더 많은 국가가 포함시키면, 서유럽과 동유럽 국가들 내에서도 일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스위스는 네덜란드(Kapitány and Spéder, 2012)보다 실현률이 낮았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비교에 따르면 양국 간 차이는 실현률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Rieder and Bubner-Ennsner, 2016). 마지막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탈 공산주의 국가인 헝가리와 불가리아의 차이도 눈에 띈다.

연구자들의 최근 분석(Spéder, 2019)의 목표는 단기 출산 의도의 실현에 있어 나머지 국가 차원의 차이를 만드는 거시적 차원의 결정요인들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진의 분석에는 네 가지 종류의 거시적 차원의 결정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i) 경제 발전, 부유한 사회(PPP 기반 1인당 GDP), (ii) 복지 국가 체계, 특히 가족 관련 지원의 보급 및 강도, (iii) 경제 역동성, 일상생활의 구조적 상황의 변화(예측 불가능성), (iv) 문화적 기후. 출산 및 가정생활에 대한 지배적인 믿음.

연구진은 모집된 데이터집합에 포함된 11개 유럽 국가 간의 출산의향의 실현을 모형화하기 위해 다단계 이항형 로지스틱 회귀기법을 사용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같은 국가 내의 응답자는 일반적인 맥락 효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결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 개별 수준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다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군집 상관관계 내의 처리는 조사된 현상에 대한 적절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무작위 절편을 갖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사용했다. 이 모델은 클러스터(국가) 특정 랜덤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 내 응답자의 유사성 정도에 대한 추정치는 개인의 출산 행동에 대한 집단 수준의 영향과 관련해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연구진의 주된 관심사에 따라 다른 구조적 조건의 효과의 크기를 명시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국가별 특성을 추가하여 모델을 확장했다.

조사 결과, 출산 의향의 실현에 있어서 국가별 차이는 경제적 역동성과 불확실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이나 실업의 변동(경제적 불확실성의 측정)이 클수록, 단기적 출산의향을 실현할 가능성은 낮다. 예상치 못한 변화가 계획수정이나 출산 연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반면에 복지 국가의 개입/지원이 출산의향의 이행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국가 개입의 정도가 일종의 안정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복지 국가 개입의 효과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그림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 출산이나 출산의향이 전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출산의향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서 연구진은 공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사회와 사회 집단일수록 출산의향을 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출산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표 2-2〉 다양한 거시적 차원의 변수가 3년 이내에 자녀 출산을 실현하는데 미치는 영향  
(계층적 로지스틱 모형)

국가차원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인플레이션	0.8828***		
가족정책 지출의 비중(%)		1.5083 **	
첫째 혹은 (추가) 자녀 출산 결정에 대한 개인의 선택 존중의 태도			1.0260 ***

주: \*\*\* p<0.001, \*\* p<0.01

자료: 자체 산출, GGS 1차 및 2차 파동

#### 4. 예상 가족규모 및 (단기) 출산의향 실현: 코호트 및 개인별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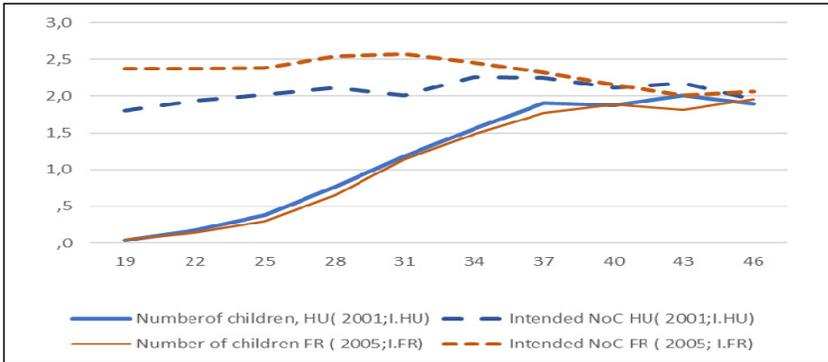
앞서 언급했듯이 예상 가족규모의 실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시간 추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상가족규모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GGS) 데이터 수집은 3년이라는 시간대에 맞춰져 있고, 3회라는 조사 횟수에 그리고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GGS의 3차 웨이브를 이용하여 1차 웨이브와 3차 웨이브 사이의 6년의 시간차를 뒀다. 수집된 데이터 중 예상 가족규모를 묻는 데이터는 일부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측정에 할애된 시간차는 우리의 연구 질문에 답을 할 만큼 충분한 여유가 있다. 미국의 National Survey of Youth 와 영국의 Understanding Societies가 그런 종류의 조사 프로그램이다 (Rackin 와 Morgan 2010; Iacovou와 Tavare 2011, Liefbroer 2009). 그러나 제한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GGS는 국가별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더 많은 웨이브가 존재하고 혹은 각 웨이브 사이에 보다 긴 시간차가 존재하는 국가들의 경우 (예: 헝가리) 가족규모의 정확성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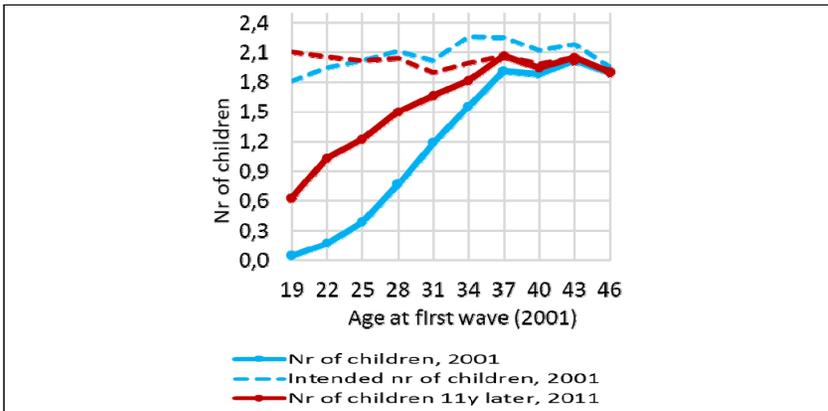
먼저 헝가리와 프랑스의 예상 가족 규모를 비교하고, 10년 후의 헝가리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자. 그 후, 정확성을 측정하여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상 가족규모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초 예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축소하거나, 당초 예상을 확대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예상 가족 규모와 현재 가족을 비교해 보면 특히 현재 가족 크기의 경우 생애 주기에 따라 매우 유사한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현재의 가족 크기는 연령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40세 이후 안정화된다. 현재 가족 크기에서 프랑스와 헝가리의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예상 가족규모는 안정되어 있는 것 같으며, 연령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헝가리와 프랑스의 예상가족규모의 차이가 현저하게 눈에 띈다. 특히 프랑스의 젊은 코호트는 헝가리 코호트에 비해 훨씬 큰 가족규모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 젊은 코호트들이 궁극적으로 예상하는 가족규모는 2.5수준이며, 헝가리 코호트의 예상 가족규모는 2.0수준이다.

[그림 2-14] 1차 웨이브에서 의도된 가족 크기 및 현재 가족 크기



[그림 2-15] 2001년 연령별 자녀 수 및 2012년 총 자녀수 (코호트 수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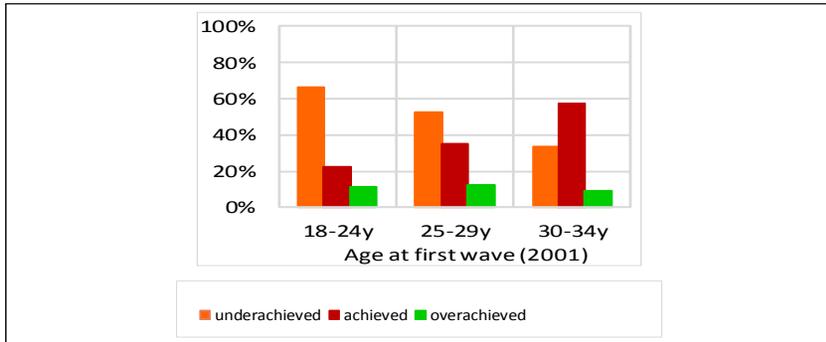


예상대로 현재 가족규모는 연령에 따라 증가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증가가 현저했다. 22세에 0.21명의 아이를 낳은 이들의 가족 수는 10년 후 32세가 되었을 때 평균 1.20명이 돼 있었다. 1차 웨이브에서 31세였던 사람들의 변화는 그들의 잠재적 출산종료시점을 가늠하게 한다. 31세 때 여성 1인당 출산 자녀 수는 1.34명이고, 41세 때는 1.70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시간 동안, 이 여성들이 의도한 가족 크기는 2.12명

(2001년)에서 1.83명(2011년)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연령대 중에서 아이를 더 낳으려는 동기가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 의도했던 가족의 규모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정성 외에 의도된 자녀의 수를 감안할 때, 두 가지 약간 반대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초기 가임기(20대 초반)의 예상 자녀 수는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지만, 십년 후 예상 자녀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30대 초반의 여성들은 낙관적이며, 평균 이상의 의도된 자녀 수를 예상한다. 그리고 이들이 40세가 됐을 때, 예상 자녀 수는 감소한다.

[그림 2-16]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1년 이내에 예상 가족규모 실현 (1차 웨이브에서 4차 웨이브까지): 헝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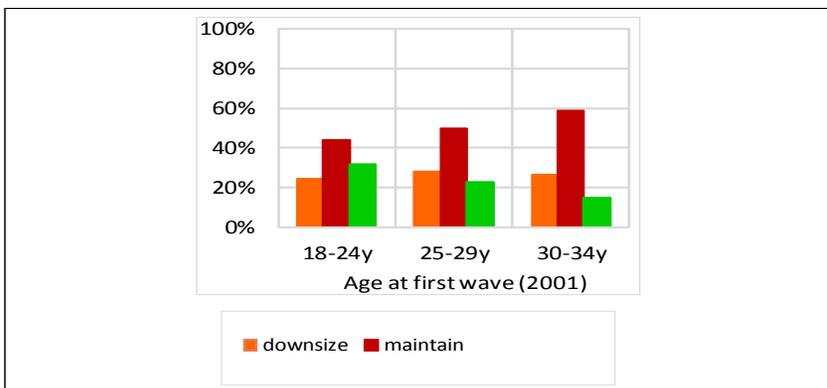


GGs의 후속 설계는 개인 및 코호트 수준에서 예상 가족 규모의 실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주어진 기간 동안 다른 코호트가 그들의 의도에 얼마나 접근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완전한 출산 이력을 추적하기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30세 이상의 참가자들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2001년 30-34세 연령 집단을 집중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연령집단을 선택한 이유는 40대 중반이나 후반에 출산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cf. Frejka and Sardon, 2003).

우리는 Rankin과 Morgan의 주장에 따라, 개인의 행동을 통합하기 위해 응답자들을 모두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2001년에 언급한 예상 가족 규모를 2011년경 달성한 사람들이며, 2011년 40대 초반인 사람들로 이들에게는 “달성자”라는 명칭을 붙였다. 의도한 자녀수 보다 적게 자녀를 낳은 사람들에게는 “미달성자”라는 명칭이 붙었다. 또한 애초 의도했던 자녀수보다 많은 자녀를 출산한 사람들에게는 “초과달성자”라고 명명하였다(Rackin and Morgan, 2010). 의도한 가족규모가 하는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 적어도 20년의 관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에는 10년이라는 시간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긴 시간이다.

달성자가 가장 많은 집단(61.8%)은 30-34세(2001년) 집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해당 연령 집단의 나머지 5분의 2는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미달성자의 비율은 약 3분의 1 (31.4%)에 근접하고, 초과달성자의 비율은 겨우 6.8%에 불과하다. 요약해 보면 현재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초과달성자가 현저히 적고 기존의 예상 가족규모를 달성하지 못한 미달성자가 4배 이상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7]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대 자녀수 변화(1~4차 파동), 헝가리, 개인 차원의 결과





제 3 장

##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 동향과 시사점

제1절 한국의 사회경제적 출산율 현황과 시사점

제2절 일본의 최근 결혼과 출산 동향

제3절 대만의 성별 및 교육 수준별 출산율 격차



# 3

##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 동향과 << 시사점

### 제1절 한국의 사회경제적 출산율 현황과 시사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 서론

2001년부터 한국의 기간합계출산율(Period Total Fertility Rate: PTFR)이 1.3명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18년에는 TFR이 0.98명으로 집계되는 등 한국 사회에서 초저출산 현상은 거의 2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출산 연기에 의한 바가 크다. 이러한 사실은 지속되고 있는 첫째 아 출산 연령의 증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출산 연기는 청년들이 결혼을 점점 더 늦게 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기된 출산이 이후에 회복된다면 출산율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연기된 출산은 많은 부분 출산 포기로 귀결된다. 대부분의 출산이 결혼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미혼자가 증가하고 있고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를 낳지 않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부터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보육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하였으며 아동수당과 양육 수당이 도입되고 육아휴직제도에서도 큰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1명 이하로 더 하락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지향해 왔던 유럽식 모형과 기존의 이론들이 한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저출산 장기화 현상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과 설명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불확실성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자녀 출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과 아동 수당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보편적인 시각 하에 자녀 양육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취약성이나 양육하고 있는 자녀 수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과거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였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들이 이러한 사회경제적 그리고 정책적인 환경 하에서 자녀 낳는 것을 주저하여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더 급격하게 하락하고 한국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을 야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는 통계청 인구센서스 2% 샘플 자료와 인구동향조사 출생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에서의 초저출산 장기화 추이 경향을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사회 계층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합계출산율을 파악하고자 출산율을 학력 수준별·취업 여부별·직업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합계출산율의 하락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사회경제적 집단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해와 표준화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최근 한국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이 가지고 있는 함의점과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 2. 자료 및 분석 방법론

합계 출산율의 장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976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합계출산율과 1946년 출생코호트부터 1977년 출생코호트까지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Myrskylä 외(2013)가 제공한 1961~2010년 한국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를 이용하였다. 2011년 이후 연도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는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출생 자료와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구축한 1976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는 기간 지표를 분석하는 데에 활용하였으며, 1961년~2017년 연령별 출산율 자료를 1946 출생코호트부터 1977 출생코호트까지 재구성한 후 코호트 관련 지표를 분석하였다. 가장 최근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출산이 완료되는 시점을 40세로 정의하였다. 코호트 합계출산율과 기간 합계출산율의 장기적인 추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기간 합계출산율도 코호트 합계출산율과 연령 구간을 동일하게 하여 출산이 완료되는 시점을 40세로 보았다. 따라서 장기적인 추이에서 살펴 본 기간 합계출산율이 측정된 연령은 15세부터 40세까지이다.

사회계층별 코호트 출산율 분석에서는 비교를 위한 샘플 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5개년간의 출산 코호트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코호트부터 분석하였다. 비교 대상 출생 코호트는 1956~60 출생코호트, 1961~65 출생코호트, 1966~70 출생코호트, 1971~75 출생코호트이다. 분석을 위해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센서스 2% 자료 2000년(1956~60 출생코호트), 2005년(1961~65 출생코호트), 2010년(1966~70 출생코호트), 2015년(1971~75 출생코호트)자료를 활용하였다. 인구센서스 자료가 5년마다 구

측되고 있고 분석 대상 코호트를 5개년으로 묶어서 비교하였기 때문에 출산이 완료된 시점을 40~44세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1956~60년 코호트의 경우 출산이 완료된 시점을, 1956년 출생 코호트는 44세, 1957년 코호트는 43세, 1958년 코호트는 42세, 1959년 코호트는 41세, 1960년 코호트는 40세로 정의하였다.

사회계층별 기간 합계출산율은 1997년,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 2017년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출생 자료와 주민등록연앙인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가임기 여성의 정의를 적용하여 연령 구간을 15세부터 49세로 하여 기간 합계출산율을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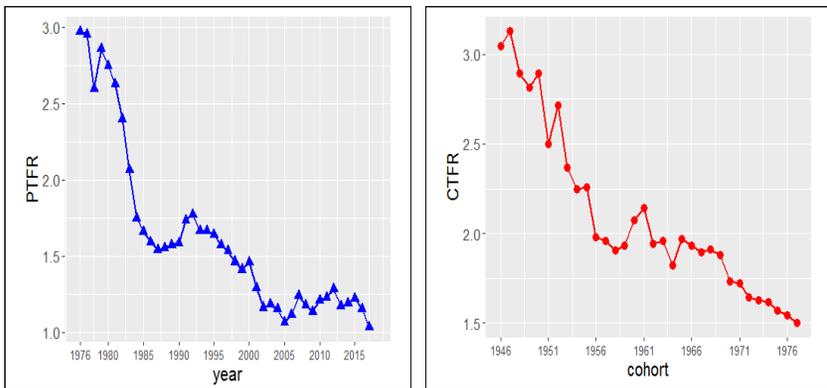
코호트 합계 출산율 변화에서 사회경제적 집단별 출산율의 변화와 인구 구성비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Das Gupta(1993)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적 집단별 출산 진도비의 변화가 코호트 합계 출산율 변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Zeman 외(2018)의 분해와 표준화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3. 한국의 합계출산율의 장기적인 추이

한국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1976년에 3명의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84년부터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하였다. 2001년 이후부터 기간 합계출산율은 1.3명의 초저출산 상태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2017년 현재 1.03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8년도 합계출산율은 1명보다 더 낮은 0.98명으로 집계 되었다(통계청, 2019a). 코호트 합계출산율은 1946 출생코호트에서 3명 수준을 보였으며 1955 출생코호트까지 2명 이상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2명을 넘나들기 시작하였다. 코호트 합계출산율은 1962 출생코호트부터 2명 이하

로 하락하였으며 1977 출생코호트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5명이었다. 기간 합계출산율과 함께 코호트 합계출산율도 하락하였다는 사실은 여성이 평생 가임 기간에 낳는 평균적인 자녀의 수가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차 하락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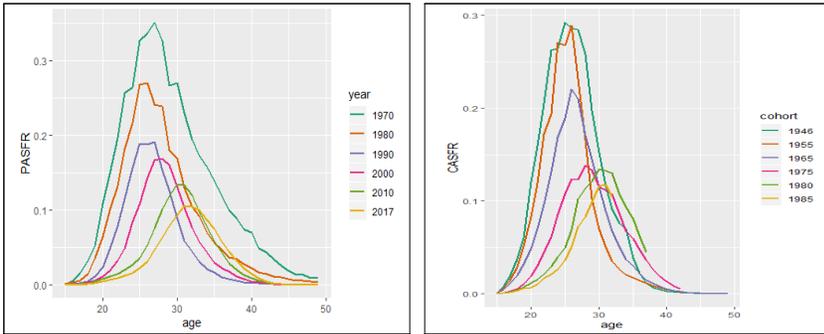
[그림 3-1] 기간 합계출산율 및 코호트 합계출산율 추이



주: PTFR(기간합계출산율), CTFR(코호트 합계출산율), year(연도), cohort(출생코호트)  
 자료: Shin et. al (2019)

여성들이 출산을 늦은 연령으로 미루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낳는 출생아 수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연령별 출산율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간 연령별 출산율 그래프는 연도가 진행됨에 따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자녀를 낳는 평균 연령이 증가하였음을 말해 주고, 연도가 진행됨에 따라 그래프의 높이가 낮아져서 평균적으로 출산한 자녀 수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코호트 연령별 출산율 그래프의 변화도 기간 연령별 출산율 그래프의 변화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자녀 출산 평균 연령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그래프의 높이가 낮아져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 수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 기간 및 코호트 연령별 출산율 (197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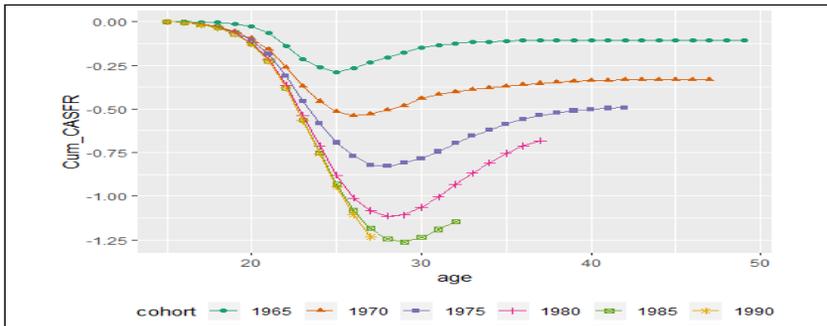
주: PASFR(기간 연령별 출산율), CASFR(코호트 연령별 출산율), age(연령)  
 자료: Shin et. al (2019)

기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낮게 지속되는 이유는 여성들이 출산을 늦은 연령으로 미루었으며 미루어진 출산이 이후 연령에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산을 미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늦은 연령에 출산을 얼마만큼 회복하였는가를 Frejka와 Sardon(2003)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코호트 연령별 출산율 자료를 활용하여 누적 코호트 연령별 출산율을 산출한 후 비교 연도의 누적 코호트 연령별 출산율과 기준 연도의 누적 코호트 연령별 출산율의 차이를 구하여 비교 연도 코호트가 기준 연도 코호트의 출산율을 얼마나 따라 잡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그림 3-3]은 15~49세 합계출산율이 2.1명 수준을 보인 1960 출생코호트와 비교하여 1965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에 태어난 출생코호트들이 1960년에 태어난 출생코호트의 출산율 수준으로 얼마나 회복되었는가를 보여 준다. 그래프의 최저점은 비교 연도 출생코호트와 1960 출생코호트의 누적 연령별 출산율 격차가 가장 큰 연령이다. 비교 연도 코호트는 그래프의 최저점에 달하는 연령까지 1960 출생코호트의 출산율과 격차가 벌어지고 이후부터 출산율 회복이 이루어진

다고 볼 수 있다. 1960 출생코호트가 보인 출산율만큼 비교 연도 코호트의 출산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y축 값이 원점인 수준, 즉 x축까지 상승하여야 한다. 그러나 1965년 이후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들의 그래프는 x축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x축과의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진다. 특히 가임기가 완료된 1965 출생코호트와 1970 출생코호트는 1960 출생코호트가 보인 수준으로 출산율이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이후에 출생한 코호트들도 1960 출생코호트 이전에 출생한 코호트의 출산율 수준만큼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림 3-3] 누적 코호트 연령별 출산율 비교: 1960 출생코호트 기준(CTFR4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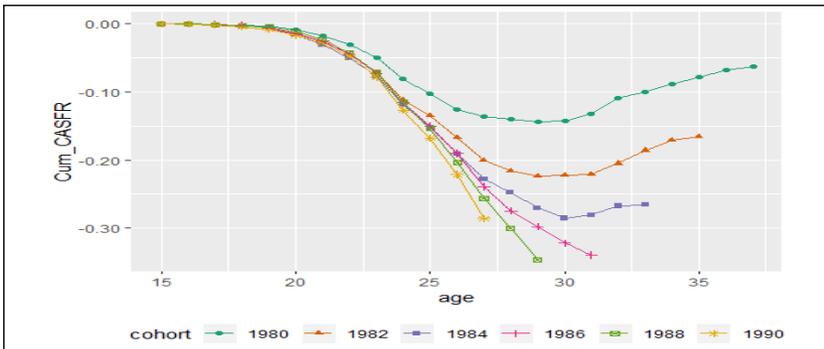
주: Cum\_CASFR(누적 코호트 연령별 출산율), age(연령), cohort(출생코호트).

자료: Shin et. al (2019)

[그림 3-4]은 40세에 이르기까지 1.5명의 완결 출산율을 보인 1977 출생코호트와 이후에 출생한 코호트 간의 누적 출산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들이 40세에 이를 때 까지 1.5명의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1980 출생코호트는 그래프가 최저점을 지난 후에 계속 x축에 접근하고 있어 40세에 도달할 때까지 1.5명의 출산율로 회복될 가능성을 보인다. 하지만 1982년 이후에 태어난 출생코호트들은 그래프의 최저점이 이미 너무 낮아 최저점을 지

난 이후에 반등을 하더라도 x축까지 도달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1982년 이후에 태어난 코호트들은 1977 출생코호트와 비교할 때 30세를 전후로 하여 출산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30세 이후 연령에서 출산율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않는 한 1977 출생코호트의 1.5명 출산율 수준까지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 누적 코호트 연령별 출산율 비교: 1977 출생코호트 기준(CTFR40=1.5)



주: Cum\_CASFR(누적 코호트 연령별 출산율), age(연령), cohort(출생코호트).  
 자료: Shin et. al (2019)

#### 4. 사회계층별 합계 출산율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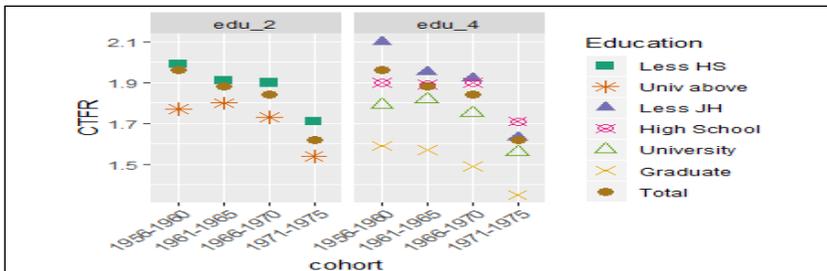
학력 수준을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코호트에서 대졸 이상의 합계출산율이 고졸 이하의 합계출산율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고졸 이하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대졸 이상보다 빠르게 하락하여 두 집단 간 격차는 최근 코호트에 와서 더욱 좁혀졌다. 1956~60년 코호트와 1971~75 코호트 간의 코호트 합계출산율 변화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 1.77명에서 1.54명으로 0.23명 하락한 것에 비해, 고졸 이하는 1.99명에서 1.71명으로 0.28명으로 하락하여 대졸 이상 보다 높은 하락을 보였다.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의 코호트 합계 출산율의 격차는 1956~60 코호트에서 0.22명이었으나 1971~75 코호트에 와서 0.17명으로 좁혀졌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 수준을 중졸 이하, 고졸,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을 때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1956~60년 코호트와 1971~75 코호트 간의 합계출산율 격차는 대학원 졸업의 경우 0.24명인 것에 반해 중졸 이하에서는 0.47명으로 하락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인 집단과 가장 높은 합계 출산율 보인 집단 간의 차이는 1956~60년 코호트에서 0.51명 이었던 것에 비해 1971~75 코호트에 와서는 0.36명으로 그 격차가 상당 수준 좁혀졌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교육 수준을 두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보다 네 집단으로 구분한 경우 가장 낮은 교육 수준을 가진 중졸 이하의 합계 출산율이 1971~75 코호트에 와서 고졸 이하보다 낮아진 점이다. 중졸 이하 여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경제적인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가정해 볼 때 최근 코호트에 와서 자녀 출산을 결정함에 있어 저학력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소득 효과가 가격 효과(기회 비용)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대목이라고 보인다.

[그림 3-5] 학력 수준별 코호트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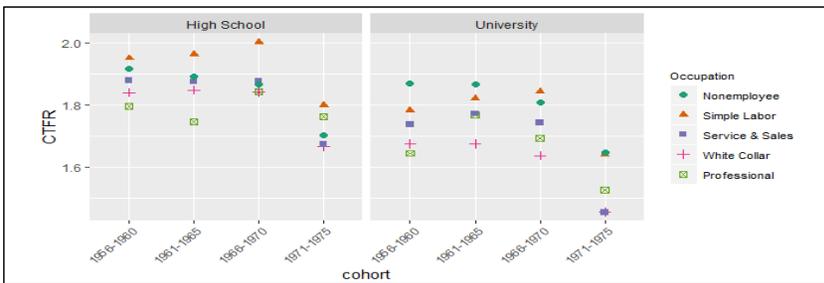


주: CTFR(코호트 합계출산율), edu\_2(두 가지 학력 수준), edu\_4(네 가지 학력 수준), Education (학력 수준), Less HS(고졸 이하), Univ above(대졸 이상), Less JH(중졸 이하), High School (고졸), University(대학교졸), Graduate(대학원졸), Total(전체), cohort(출생코호트).

자료: Shin et. al (2019)

고등학교 졸업 여성 그리고 대학교 졸업 여성 각각에 대해 직업 유형별로 세분하여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전문직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서비스 판매직 혹은 사무직 여성 보다 높아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sup>2)</sup>. 고졸 여성의 경우 1956~60 코호트부터 1966~70 코호트까지 전문직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다른 직종의 여성들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1971~75 코호트에 와서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1.76명으로 서비스판매직 혹은 사무직의 1.67명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 졸업 여성들을 살펴보면 1956~60 코호트에서는 전문직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다른 직종의 여성들 보다 낮다. 하지만 1961~65 코호트부터 사무직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전문직 여성의 합계 출산율 보다 낮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1971~75 코호트에 와서는 사무직 여성뿐만 아니라 서비스판매직 여성의 합계 출산율도 전문직 여성보다 낮은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그림 3-6] 고졸 및 대졸 여성의 직업 유형별 코호트 합계출산율  
(1956~60-1971~75 출생코호트)



주: CTFR(코호트 합계출산율), Occupation(직업 유형), Nonemployee(비취업), Simple Labor(단순노무직), Service & Sales(서비스판매직), White Collar(사무직), Professional(전문직), cohort(출생코호트), High School(고졸), University(대학교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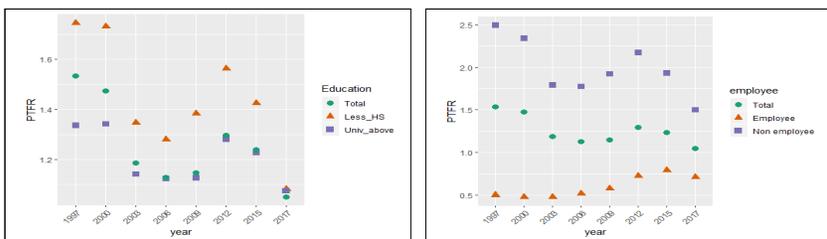
자료: Shin et. al (2019)

2) 여성들의 취업 상태와 직업 유형은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측정된 40~44세에서의 상황이다.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에 따라 취업 상태가 변하거나 직업 유형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여성들의 취업 상태와 직업 유형은 출산이 완료된 상태에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취업 상태와 직업 유형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특성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교육 수준별 및 취업 상태별 기간 합계출산율도 그 격차가 현격하게 감소하였다<sup>3)</sup>. 교육 수준별 기간 합계출산율의 격차가 감소한 이유는 저학력 여성과 고학력 여성 모두 출산율이 하락하였지만 저학력 여성에게서 더 급격한 출산율 하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97년과 2017년 기간 동안 이루어진 기간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1.34명에서 1.07명으로 0.27명 하락한 반면에,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은 1.75명에서 1.08명으로 0.67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하락을 보였다. 고등학교 이하 학력의 여성과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 간의 기간 합계 출산율의 격차는 1997년에는 0.41명 이었으나 2017년에 와서는 각각 1.08명과 1.07명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취업 여성과 비취업 여성의 기간 합계 출산율의 차이는 1997년 1.99명에서 2017년 0.79명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두 집단 간의 기간 합계출산율 격차가 감소한 이유는 비취업 여성의 출산율이 같은 기간 동안 2.49명에서 1.50명으로 무려 0.99명 급격하게 하락한 반면에 취업 여성의 출산율은 그 절대적인 수준은 낮지만 0.50명에서 0.71명으로 0.21명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림 3-7] 교육 수준별 및 취업 상태별 기간 합계출산율



주: PTFR(기간 합계출산율), Education(학력), Univ\_above(대학 이상), Less\_HS(고등학교 이하), Total(전체), employee(취업 상태), Employee(취업), Non employee(비취업), year(연도).

자료: Shin et. al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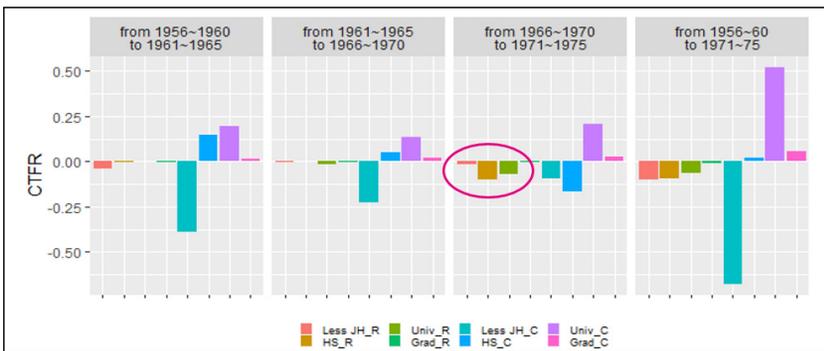
- 3) 교육 수준과 취업 상태는 기간 합계출산율이 측정된 15~49세의 상향 즉 자녀를 출산했을 시점에서의 상황이다. 따라서 아직 재학 중에 있는 여성의 경우 학력 수준이 추후에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취업 상태 역시 출산 휴가 혹은 육아 휴직 상태일 경우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자녀 출산 이전에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출산 시점에 그만 둔 경우 비취업으로 분류된다.

### 5. 코호트 합계 출산율의 분해와 표준화 결과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사회경제적 집단의 구성비 변화와 출산율 변화로 분해한 결과, 1961~65 코호트와 1966~70 코호트에서는 인구 구성비 변화와 출산율 변화가 전체 코호트 합계출산율 변화에서 각각 약 50% 내외로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71~75 코호트로 오면서 인구 구성비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로 감소하고 출산율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의 코호트 합계 출산율의 하락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구 특성의 변화보다는 각 집단의 출산율 하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코호트 합계 출산율 하락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한 집단은 특히 1971~75 코호트로 오면서 고등학교 졸업 여성 혹은 서비스 판매직이나 단순노무직 등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거나 직업적 지위가 낮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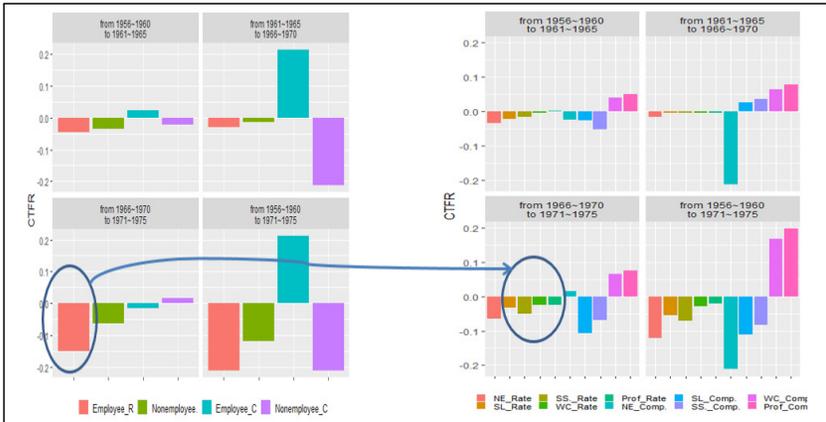
[그림 3-8]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학력 수준별 분해



주: CTFR(코호트 합계출산율), Less JH(중졸 이하), HS(고졸), Univ(대학교졸), Grad(대학원졸), R(출산율효과), C(구성비효과).

자료: Shin et. al (2019)

[그림 3-9]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취업 여부별·직업 유형별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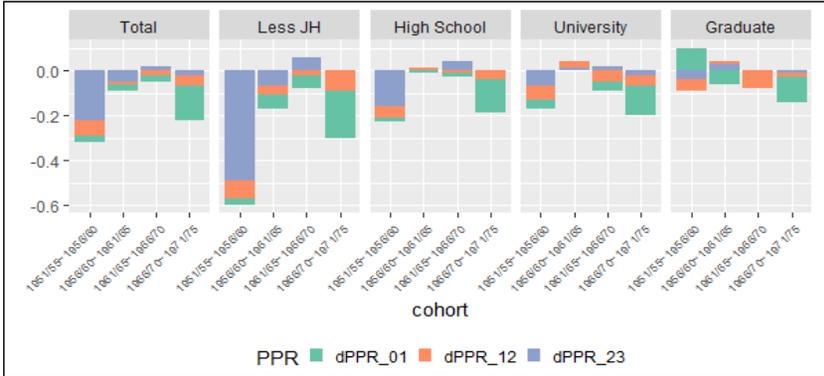


주: CTFR(코호트 합계출산율), Nonemployee(비취업), Simple Labor(단순노무직), Service & Sales(서비스판매직), White Collar(사무직), Professional(전문직), R 혹은 Rate (출산율효과), C 혹은 Comp. (구성비효과).

자료: Shin et. al (2019)

코호트 합계 출산율의 변화에서 어떠한 순위의 출산율 감소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분석한 결과, 1950년대 말 코호트에서는 셋째아 출산의 감소가 코호트 합계 출산율 감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중졸 이하 혹은 고등학교 졸업과 같이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1971~75 코호트로 오면서 첫째아 출산의 감소가 코호트 합계 출산율 감소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학력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집단에서 관찰되고 있었다. 직업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1950년대 말 코호트에서는 셋째아 출산의 감소가 코호트 합계 출산율 감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은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판매직 여성들에게서 현저하게 발견되었다. 1971~75 코호트로 오면서 첫째아 출산의 감소가 코호트 합계 출산율 감소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은 직업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에게서 관찰되는 현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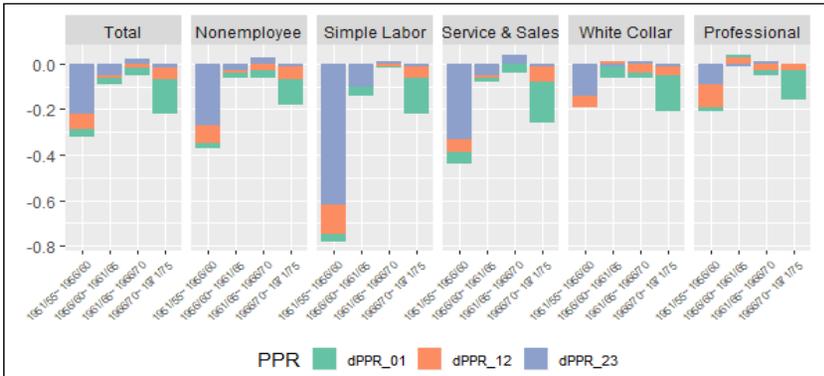
[그림 3-10] 코호트 합계출산율 변화에서 출산 진도비 변화 영향 분석: 학력 수준별



- 주 1. Total(전체), Less JH(중졸 이하), High School(고졸), University(대학교졸), Graduate(대학원졸), cohort(출생코호트).
- 2. dPPR\_01은 첫째야 출산 진도비, dPPR\_12는 둘째야 출산 진도비, dPPR\_23은 셋째야 출산 진도비 각각의 변화가 코호트 합계출산율 변화에서 차지하는 크기임.

자료: Shin et. al (2019)

[그림 3-11] 코호트 합계출산율 변화에서 출산 진도비 변화 영향 분석: 직업 유형별



- 주 1. Total(전체), Nonemployee(비취업), Simple Labor(단순노무직), Service & Sales(서비스 판매직), White Collar(사무직), Professional(전문직)
- 2. dPPR\_01은 첫째야 출산 진도비, dPPR\_12는 둘째야 출산 진도비, dPPR\_23은 셋째야 출산 진도비 각각의 변화가 코호트 합계출산율 변화에서 차지하는 크기임.

자료: Shin et. al (2019)

## 6. 결론

본 절에서는 한국의 합계 출산율 현황을 고찰해 보고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학력 수준·직업 유형·취업 상태별로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초저출산 장기화 현상에 갖는 함의점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기간 합계 출산율의 하락은 만혼화와 비혼화에 따른 출산 연기와 연기된 출산의 포기에 따른 것으로 현재의 추세를 이어간다면 향후 현격한 수준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인 코호트 합계 출산율도 1977년 출생 코호트를 기준으로 1.5명으로 하락하여 인구 대체 수준 이하를 보이고 있다. 미루어진 출산이 이후의 연령대에서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비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비혼인 상태에서 자녀 출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국 상황에서 미루어진 출산의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비혼자 증가 뿐 만 아니라 최근 들어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가 없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출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을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고학력이나 전문직이 전반적으로 더 낮은 출산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저학력과 서비스판매직 등 직업적 지위가 더 낮은 계층에서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과거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수준을 보였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출산율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보다 더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보이게 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집단 간 출산율 격차는 과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경제적 집단 간 출산율 차이의 감소는 전체적인 출산율 하락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 이는 합계 출산율의 감소에서 상대적으로 큰 기여를 한 집단이 교육 수준이 낮거나 직업적 지위가 낮은 여성들이었다는 분석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사회적 양극화와 심화되고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증폭된 사회에서 취약 계층의 자녀 양육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소득 수준과 양육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일괄적인 형태의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형평성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편적인 지원에서 취약 계층이 직면하고 있는 상대적인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의 학력 수준의 향상 혹은 전문직 여성의 증가 등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출산율 하락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들이 출산과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직은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 취업 여성의 기간 합계 출산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일과 가족 생활 균형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하지만 아직도 취업 여성의 출산율이 비취업 여성과 비교하여 현격하게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과 가족 생활 균형 정책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서비스판매직 혹은 사무직 여성의 출산율이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정규직 중심으로 확대된 육아 휴직 정책과 임신과 출산에 따른 고용 안정성 보장을 비정규직 여성을 대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작한 2006년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유럽식 모형을 따

라 보육 서비스 확대, 아동 수당과 양육 수당 등 현금 지원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출산율은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1명 이하로 더 추락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유럽의 가족 정책 모형이 한국 실정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재고려가 필요하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인구대체수준에 가까운 출산율을 보였던 북구유럽국가를 비롯하여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에서도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성 평등과 가족 정책의 확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유럽의 모형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유럽 국가의 출산율 하락을 가져온 새로운 사회경제적 요인을 찾자 하는 노력이 현재 유럽의 인구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성 평등과 가족 정책이 적정한 출산율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관련된 이론도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모형이 한국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국가에는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정책의 타겟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율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양적인 조사 및 분석과 함께 질적인 분석 그리고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적 연구 등 다각도의 차원에서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제2절 일본의 최근 결혼과 출산 동향<sup>4)</sup>

Setsuya Fukuda

일본 인구문제사회보장연구소

### 1.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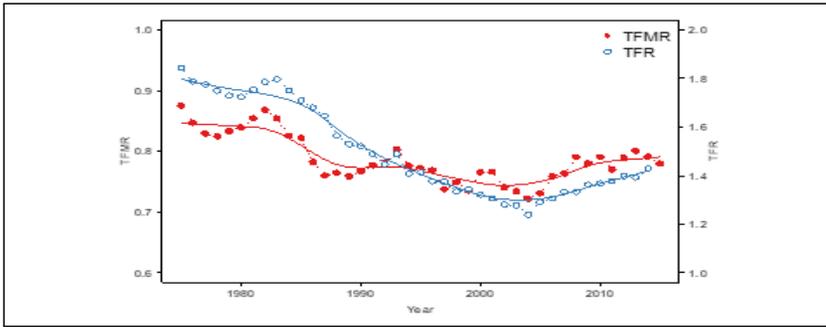
일본의 기간합계출산율(period total fertility rates, 이하 PTFR)과 기간합계 총초혼율(period total first marriage rates, 이하 PTFMR)을 기준으로 측정한 출산율과 혼인율은 2005년경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 일본의 결혼과 출산율의 증가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통찰력을 제공하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찰한다. 결혼과 출산율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여성 집단을 파악하고, 더불어 일본의 출산율이 “최저 출산율” 단계에서 “저출산율” 단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경제 불평등 증가, 성별구성의 변화, 그리고 보조생식기술의 보급 등과 같은 기타 중요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최근 결혼 및 출산의 증가

PTFR과 PTFMR이 일본의 출산율과 초혼율 모두 2005년경부터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12]과 같이 PTFR은 2005년 최저수준인 1.26이었으며, PTFMR의 경우 2004년 0.73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 후 2015년에는 PTFR과 PTFMR이 각각 1.45와 0.81로 증가했다.

4) 본 연구에 소개된 관점은 연구자의 견해이므로, 해당 연구소나 일본 정부의 공식적 견해로 이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림 3-12] 일본의 PTFMR과 PTFR 최근 경향



주: PTFMR의 값은 1년 차이를 보임

자료: Vital 통계 및 HMD에 기반한 Yoda의 산출

PTFMR과 PTFR의 최근 추세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둘의 긴밀한 상관성은 일본의 결혼 및 출산율에 관한 최소 세 가지 사실을 반영한다. 첫째로, 출산은 결혼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 거의 모든 출산은 결혼 가정에서 비롯된다(2017년 혼외 출산은 2%). 둘째, 전체 출생아 수(2017년 46%)에서 초산 비중이 상당히 크다. 마지막으로, 결혼 후 첫 자녀 출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히 짧다(2017년 결혼 후 2년 이내에 첫아이를 출산한 부부가 전체 55%를 차지한다) (NIPSSR 2019).

거의 모든 출산이 결혼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일본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지역의 출산 분석에서 결혼과 결혼 가정 내에서의 출산이 서로 관련이 있지만 별개의 과정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결혼을 하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출산의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지만, 결혼과 결혼 가정 내에서의 출산을 독립적으로 고찰할 경우,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경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독립적으로 고찰할 경우 출산을 고려 중인 부부들의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시행 중인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정책

효과를 평가할 때 유용할 수 있다. 지금부터 연구자는 최근 일본의 결혼과 출산율 증가와 그들의 사회경제적 차이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통찰력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보고서의 끝 부분에서는 최근 일본의 결혼과 출산 패턴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통찰력을 공유하고자 한다.

### 3. 일본의 결혼 추세

일본의 PTFMR의 추세에서는 2004년 이후 기간 초혼율의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다. 초혼의 평균연령의 추세는 PTFMR가 회복된 이유가 결혼을 미루는 분위기가 사라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2005년과 2015년 연령별 초혼율(ASFMR)을 비교한 결과, PTFMR의 회복은 30대와 40대 초반의 여성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TFMR의 회복세가 강하고 일관되기 때문에, 사실상 2008년 이후의 TFMR은 1990년대(1993년 제외) TFMRs보다 더 높다. 이와 같은 초혼율의 기간회복세는 1973년 코호트 이후 코호트 합계초혼율(CTFMR)의 미미한 증가로 나타났다. 40세까지 1973년 코호트, 1974년 코호트, 1975년 코호트의 코호트 합계 초혼율은 각각 0.836, 0.838, 0.840이다. 비록 최근의 초혼율 증가가 코호트 트렌드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리겠지만, 일본의 결혼율 감소가 중단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령별로 한번도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4. 일본의 출산율 추세

다음으로, PTFR의 회복은 연령과 출산아수에 따라 측정치를 세분화하여 검토한다. 검토결과, PTFR의 회복은 출산아수가 4명이 될 때까지 모

든 출산이력을 관찰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출산아수는 1명 이었다. 결혼과 달리, Bongaarts-Feeney의 시점 조절 PTFR뿐만 아니라 평균 출산연령과 관련해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출산은 여전히 나중으로 연기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최근 PTFR의 상승은 많은 유럽 국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출산 연기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은 아니다(Goldstein et al., 2009). 오히려 양의 증가에서 기인한다. 연령별 출산율을 검토해보면 결과, PTFR의 회복은 주로 모든 패러티에서 30대와 40대 초반의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PTFR 상승이 CTFR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했다. CTFR의 추세는 코호트 출산율이 2017년 코호트 수준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초혼과 마찬가지로, 1975년 36세 코호트의 CTFR와 비교했을 때 1980년 코호트(CTFR: 1.29)의 CTFR가 약간 증가했다. 다시, 완료된 CTFR 수준은 다시 10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 PTFR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1980년 젊은층 코호트에서 높은 수준의 CTFR을 기대할 수 있다.

## 5. 일본의 결혼가정의 출산 경향

기혼 여성의 출산행태를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료의 최근 연구를 (Yoda and Iwasawa, 2018) 을 참고하여 기간합계 기혼출산율(PTMFR) 추이를 보여줘야 한다. 그들의 분석에 사용된 기간합계 기혼출산율은 결혼 기간별 출산율의 합이다. 제7회부터 제15회까지 일본 국가유공자조사(전일본 국가유공자조사, 1977년,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2005년, 2010년, 2015년 실시)가 제공한 집계자료를 이용하여, 초혼 여성의 출산 이력을 바탕으로 기간 및 결혼 기간의 1개월 데이터를 작성한다. 35세 이하에 결혼한 여성만 사용하며 결혼기간별 출산율은 0~15세까지 합산해 TMFR을 구축한다.

PTFR과 PTMFR를 비교한 결과, PTMFR이 기혼부부의 출산율의 수준과 추세를 조사하기에 알맞은 수준으로 구축돼 있다는 인상을 준다. 예상대로, 2005년 이후 기혼부부의 출산율은 PTFR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회복됐다. 패러티를 세분화하면, 모든 패러티에서 회복이 관찰되지만 패러티 1(출산아수 1명)의 회복이 특히 두드러진다. 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결과, 30세 이상 결혼한 여성들 사이에서 PTMFR의 회복이 좀 더 두드러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불임 치료를 한 번이라도 받은 여성들 사이에서 PTMFR의 급격한 증가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2016년 보조생식기술의 지원으로 인한 출생아 수는 54,110명으로, 해당 년도에 출생한 영아 18명 중 1명을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일본이나 다른 동아시아 지역과 같이 만혼이 대세인 국가에서는 보조생식기술이 기혼부부의 출산율 추세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기혼부부의 출산종료를 결혼기간별로 분석했다. 15-19년 결혼생활을 한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2002년 2.2명에서 2015년 1.9명으로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10-14년간 결혼생활을 한 여성의 평균 자녀수는 1992년 2.2명에서 2015년 1.8명으로 감소했다. 5-9년 결혼생활을 한 여성의 평균 자녀수 역시 1987년 2.0명에서 2015년 1.6명으로 감소했다. 결혼한 지 0~4년 이내의 여성의 경우만 출산 자녀의 수가 2010년 0.7명에서 2015년 0.8명으로 다소 증가했다. 결혼 5년에서 9년 차 여성들 사이의 기간 패러티 분포의 추세는 한 자녀만을 둔 부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혼부부의 출산완료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PTMFR 측정치가 연령과 출생 코호트별 기혼부부의 출산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약간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최근 기혼부부의 출산율 회복은 결혼 10년차 미만의 여성들의 출산종료 감소율을 둔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이 첫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6. 최근 일본의 결혼 및 기혼부부 출산의 사회경제적 차이: 결혼/출산을 회복을 견인하는 집단은?

마지막으로, 일본의 결혼과 결혼의 출산율 상승에서 사회경제적 차이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검토한다. 일본은 여성의 소득과 결혼이 부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몇 안 되는 나라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결혼에 관한 연구는 2002-2011년(MHLW 2013) 기간의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소득과 결혼 여부가 긍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의 또 다른 연구 역시 여성의 소득과 결혼 확률의 관계가 1960년대 코호트에서는 부정적이었으나, 1970년대 코호트(Fukuda, 2013)에서 긍정적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다. 여성의 소득과 결혼 관계의 이 같은 변화는 결혼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토대가 변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weeney, 2002). 요즘 젊은 여성과 남성이 남성 중심의 외벌이 가족 형태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소득을 올리는 맞벌이 가족형태를 선호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듯이(NIPSSR, 2017), 결혼시장에서 고소득 여성이 외면 받던 과거와 달리 매력적인 결혼상대로 부상하고 있다.

결혼과 관련해서 교육 정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변화가 감지된다. 2009년 이후 일본의 PTFMR에서 고등교육과 여성의 출산 사이의 부정적 상관관계가 사라졌고, 2013년부터는 긍정적인 관계로 바뀌었다(Fukuda et al., 출간예정). 교육수준과 관련된 이와 같은 변화는 저학력 여성의 결혼율이 감소한 반면 고학력 여성의 결혼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저학력 여성의 결혼율 감소는 세계화와 노동시장 분업 틀(예: 저학력자들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에 집중돼 있음)에서 도출된 예상치와 일치하고, 고학력 여성의 결혼율 증가는 성혁명 프레임워크(예: 고학력 여성이 저학력 여성에 비해 결혼시장에서 더 각광받음)에서 도출된 예측과 일치한다. 이러한 변화

의 패턴은 일반적으로 미국과 다른 많은 선진국에서 문서화된 경향과 일치한다. 또한 전문대 및 대학 졸업 여성의 결혼 증가가 전반적인 초혼율의 안정화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합계출산율의 최근 안정화(그리고 작은 증가)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Yoda와 Iwasawa(2018)가 제시한 다양한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기혼부부의 기간합계출산율(PTMFR)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PTMFR의 확대는 고등교육, 도시거주, 평등주의적 성가치, 조부모와의 근거리 거주 등의 특성을 가진 기혼부부들이 주도하거나 그들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거에는 조모와 근거리에 거주하는 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징들은 출산율이 낮은 기혼부부의 특징으로 여겨졌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출산 및 육아 휴직이 가능해지면서, 정규직 여성이 전업주부만큼 둘째/셋째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따라서 결혼율 증가와 유사하게, 출산율 상승 또한 기혼부부의 사회경제적 기반에 변화가 생기면서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7.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일본의 결혼과 출산율 상승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통찰력을 제공하고 코호트별 결과물과의 관계를 조사했다. 연구자는 분석을 통해서 최근의 결혼과 출산율 상승이 30대와 40대 초반의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출산율 상승은 모든 패러티에서 관찰되지만 패러티 1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이러한 발견은 Kaneko(2010)와 Iwasawa와 Kaneko(2013)의 다른 연구와도 일치한다. 최근 자료를 이용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출산을 연기하는 분위기는 여전하지만, 결

혼을 미루는 사회적 분위기는 더 이상을 찾아 볼 수 없다. 즉, 최근 일본의 기간합계출산율 상승이 템포 효과의 둔화나 종료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적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Yoda와 Iwasawa(2018)가 제공한 PTMFR을 분석한 결과, 불임 치료를 받은 여성이 기혼부부의 출산율 증가 추세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결혼과 출산율의 증가에 힘입어, 1970년생 코호트 이후 결혼과 출산율의 감소는 중단된 것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1980년생 코호트의 결혼과 출산율 회복의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은 더 지켜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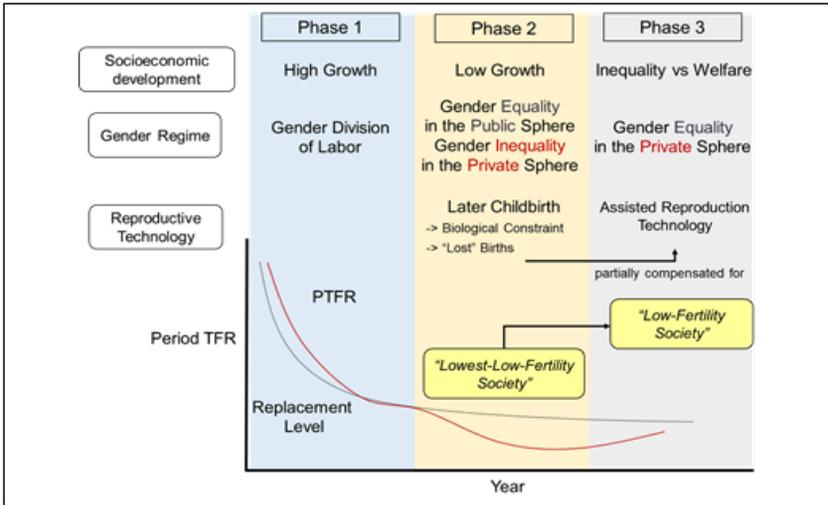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결혼과 기혼부부의 출산과 관련해서 그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검토했다. 이러한 발견들은 최근의 결혼과 출산율이 사회경제적 변화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혼율 회복기의 경우, 고소득 고학력 여성이 저소득 저학력 여성보다 결혼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MHLW, 2013; Fukuda, 2013; Fukuda et al., 출간예정). 마찬가지로 PTMFR의 증가는 고등교육, 도시거주, 평등주의 성가치, 조모와의 근거리 거주 등의 특성을 가진 기혼부부들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Yoda and Iwasawa, 2018). 또 2010년 이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Fukuda and Kato, 2018)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정규직 여성이 전업주부보다 둘째 혹은 셋째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하기에서는 Yoda와 Iwasawa(2018)<sup>5)</sup>가 제안한 장기출산율 변화 모델을 참고하여 최근 일본의 결혼·출산 추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3-12]에서 보듯이 장기출산율 추세의 3단계 전개 모델이 제시되어 있다. 각 단계는 사회경제적 발전, 성체제와 생식기술로 특징지어진

5) 이 모델은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가 여성 혁명과 출산의 관계에 대해 제안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결혼에서의 사회경제적 차이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을 그들의 해석에 첨부했다.

다. 일반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의 기간으로 특징지어지는 1단계에서는 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으로 감소하고, 엄격한 성역할의 구분과 출산시기 때문에 생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노동시장 분화가 시작된 2단계에서 PTFR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동시에, 비록 가정 내에서의 성 역할의 엄격한 구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여성의 고등교육 기회증가와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일반화됐다. 또한 2단계에서는 효율적인 생식기술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크게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정부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육아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인 가족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PTFR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또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평등의 확대는 젊은이들의 성 가치를 강화시켰다. 특히 남성들은 여성의 가계 경제 기여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 결혼시장에서 고수입 잠재력을 가진 여성들의 시장우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3단계에서는 소득이 높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의 결혼률이 증가하는 반면, 소득이 낮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의 결혼률은 감소한다. 또한 고등교육을 받은 기혼부부들은 원하는 출산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경제력을 활용한다. 이것은 교육수준별 집단 간의 기혼부부 출산율 격차를 감소시킨다. 보조생식기술은 3단계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보편화되면서, 출산 연기로 감소한 출산율을 부분적으로 상쇄했다. 결과적으로, 3단계의 PTFR은 더 이상 “최저수준”이 아니라 “낮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림 3-13] 출산을 장기적 추이 모형



자료: 요다 및 이와사와의 번역(2018)

3단계의 이와 같은 변화는 제시된 결과에 잘 부합하며, 최근 일본의 결혼율과 기혼부부 출산율 회복에 대한 해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같은 변화가 관측되는지 여부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출산율을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이다.

## 제3절 대만의 성별 및 교육 수준별 출산율 격차

Yen-hsin Alice Cheng

대만 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

### 1. 서론

본 연구의 목표는 1975-2015년 남녀 및 1910-1970년 출생한 코호트의 교육수준별 출산력 패턴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다. 시간 경과에 따른 교육수준별 출산력 기울기와 남성의 출산 패턴에 대한 연구는 데이터 가용성으로 한계가 있었다. 본 보고서는 다양한 인구 동태 통계 및 인구조사 데이터를 사용해 기간 및 코호트 측면 모두에서 출산력 변화를 연구한다. 조사 결과 기간과 코호트 측정치 모두 남녀 교육 그룹 전체에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났지만, 최근 대만 남녀 코호트의 무자녀 수준과 넷째 출산진도비에서는 변화가 감지됐다. 또한 남성의 교육수준별 기간출산율 기울기는 1970년대 중반 음의 값에서 1990년대 중반 양의 값으로 바뀌었지만 여성은 대부분 음의 값을 유지했다. 코호트 출산의 경우, 남녀 모두 모든 코호트에서 교육수준별 기울기가 음의 값을 유지했다. 교육수준별 기울기는 모든 출생순위의 출산진도비에서 코호트에 대해 확장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자녀의 출산진도비가 낮았다. 마지막으로, 무자녀 수준이 급증했고 여성이 양의 값으로, 남성이 음의 값으로 교육수준별 기울기가 커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산업화 이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가족 행동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불평등이 관찰된 대만 사회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20세기 후반 들어 대만은 출산력이 급변하고 인구가 고령화되고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기간합계출산율(PTFR: Period total fertility rates)이 1951년 7명에서 2015년 1.2명으로 감소했고, 2010년에는 0.9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출산력 급감에는 경제 발전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지만, 교육 확대에 의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성취와 노동시장 참여가 이러한 인구변천의 중요한 동인으로 간주된다(Thornton and Lin, 1994). 대만은 21세기 탈산업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 불평등을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증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증상은 서구 탈공업화 사회에서도 관찰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행동은 사회의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의 인적 자본 증가는 필연적으로 인구통계학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과 출산력의 연관성은 사회 변화와 함께 시간 경과에 따라 진화하기 마련이다. 산업계 아웃소싱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확대에 의해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의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수십 년 전에 비해 남녀의 소득능력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이들 모두는 21세기 성인이 되는 젊은 대만 남녀의 가족행동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최근 대만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육수준별 결혼과 이혼의 기울기 변화를 보여주는 연구가 여럿 진행되었다(Chen, 2012, Cheng, 2014, Cheng, 2016). 그러나 교육수준별 완결 출산율 변화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행동의 사회경제적 차이는 사회 불평등 심화 및 재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오랫동안 사회학 및 인구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어왔다. 실제로 전세계 여러 지역에서 교육수준별 결혼, 동거, 이혼 및 출산행동 차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이뤄졌다. 탈산업화와 2차 인구변천의 도래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연구는 더욱 중요해졌다(Esping-Andersen, 1999, McLanahan, 2004). 실제

로, 많은 선진국의 출산력이 매우 낮아진 전세계 출산력 변천이 사회불평 등 심화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구 변천 전후를 포함한 장기 추이에 관한 연구는 데이터 가용성으로 인해 한계를 가지고 있고 남성이 제외된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목표는 여러 출생 코호트 및 1975년-2015년까지 40년 동안 대만 남녀의 기간 및 코호트 합계출산 패턴에서 교육수준별 기회를 검토하여 이러한 공백을 채우는 것이다. 1984년 기간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내려간 점을 고려해 출산력 변천 단계와 변천 후 기간 모두를 연구 기간에 포함시켰다. 대만은 인구 2,300만 명으로 큰 나라는 아니지만, 대만에서 관찰된 인구통계학적 현상은 아시아 다른 지역의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대만은 아시아에서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가장 높고 양성평등과 시민자유 또한 최상위권에 속한다. 따라서 대만의 인구통계학적 발전은 아시아 다른 선진국의 가족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이유로 기존 문헌 자료에 기여한다. 첫째, 출산력 지표의 장기 추이에 대한 연구는 지난 수십 년간 여러 나라의 인구동태통계 및 등록 데이터를 수집해온 유럽에서 주로 이뤄졌다. 아시아 국가는 이보다 늦게 출산력 변천이 시작됐지만,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전세계 가족변화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둘째, 교육수준별 인구통계학적 행동 차이 분석이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본 연구는 아시아 지역의 취약한 관련 문헌에 기여할 수 있다. 아시아는 경제선진국의 인구가 극적으로 변천하고 사회계층 간 인구통계학적 결과가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째, 대만은 양질의 인구동태통계 데이터를 관리해 장기적 관점에서 여러 코호트에 대해 남녀의 출산력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했다.

## 2. 이론적 배경

### 1) 대만의 사회 변화

#### 가. 경제개혁

경제발전은 비교적 단기간에 대만 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대만은 1960년대부터 거의 20년 동안 산업고도화를 통해 농업기반의 개발도상국에서 일명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리는 경제선진국으로 성장하면서 국제 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1950년-1990년까지 40년 동안 1인당 GDP는 20배까지 증가했다(고정달러)(DGBAS, 2014). 대만 현대사에서 1990년대 초는 산업국가에서 탈산업화 국가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1990년 서비스 부문 노동력이 처음으로 50% 기준을 넘어서기도 했다. 최근 한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대만이 탈산업화로 진입하면서 사회경제적 생활이 극적으로 변화한 결과 새로운 형태의 사회 계층화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Lin, 2009). 실업률 상승, 자본 유출, 소득 격차 확대, 근로소득 정체, 인구고령화 및 가계소비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및 노동시장 참여율 감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대만은 경제발전 및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숙련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교육을 확대했다(내정부, 1975-2015). 이에 중등교육을 마친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여성이 증가했고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도 1975년 12%에서 2012년 31%로 증가했다. 대졸이상자 비율도 1975년 2.15%에서 2015년 약 21%로 증가했다(내정부, 1975-2015), 특히 대학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 21%에서 2010년 50%까지 증가했다(교육부, 2012). 코호트의 경우, 1970년 이후 출생한 코호트는 남성보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훨씬 높아져, 21세기

전반기에 출생한 코호트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그림 3-14] 참조). 여성의 인적 자본이 향상됨에 따라 핵심노동연령층의 노동 참여율도 크게 높였다. 실제로 1987년과 2010년 사이에 25-29세의 노동 참여율은 56%에서 84%로, 30-34세는 55%에서 77%로 크게 증가했다(DGBAS, 1987-2010). 결과적으로 여성의 소득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장기 교육과 여성의 경제적 독립으로 결혼이 늦어지고 심지어 포기한 경우도 늘어났다. 실제로 1950년대 이후 출생한 코호트에서 50세까지 미혼인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내정부, 1975-2015; Thornton and Lin, 1994). 대만은 혼외출산이 여전히 매우 드물기 때문에(즉, 매년 전체 출산의 약 4%) 이러한 결혼 문화 변화는 출산력이 더욱 하락하는 원인이 되었다.

21세기 들어 탈공업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대만에서도 남아시아 개발도상국과 중국으로의 대규모 제조공장 및 일자리 아웃소싱, 사회계층 간 소득격차 심화, 실업률 증가, 서비스 부문 일자리 급증과 같이 탈공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이 일자리를 잃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 남녀의 소득능력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이들 모두는 21세기 성인이 되는 젊은 대만 남녀의 가족행동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 제2차 인구변천이론은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계층이 혼인율과 출산율 감소를 주도한다고 보는 반면, 탈공업화된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실업 및 경제적 불안을 경험하고 가족행동이 더욱 극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Esping-Andersen, 1999).

## 나. 인구변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경제개혁은 개인차원에서 대대적인 행동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대만의 농업에서 산업 사회로의 전환과 이어지

는 가족행동의 변화는 Thornton과 Lin(1994)이 자세히 설명했다. 탈공업 사회의 도래는 혼인율과 출산력이 감소하는 인구통계학적 행동에 더욱 잘 반영되어 있다.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증가에 맞춰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늘어감에 따라, 남녀에 관계없이 대만 청년들의 가족형성 과정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매우 중요해졌다. 실제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혼 가능성은 낮아져, 최근 수십 년간 대만의 가족 형성 및 해체 패턴에서 사회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Chen, 2012, Cheng, 2014, Cheng, 2016).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는 행동변화 외에도 지난 수십 년간 대만 사회가 비전통적이고 자유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항상 더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늘고 있다(Cheng and Yang, 2016). 결혼 후 시부모와 함께 사는 대신 독립적으로 가정을 꾸려야 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늘었다(Cheng and Yang, 2016). 더욱이 1990-2010년대 대중들 사이에서 자녀를 가지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든지 자녀가 없으면 결혼 생활이 불행해진다는 인식이 많이 사라졌다(Cheng and Yang, 2016). 유교 문화에서 혼내 다산은 가문의 번영을 상징하는 가족주의의 핵심이다. 대만은 집단주의가 강해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족의 이익을 우선시하고(Chang and Song, 2010), 따라서 출산이 만족스러운 삶의 필수 요소로 간주된다(Chuang, 2012). 2002년 횡단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60%가 자녀가 없으면 인생이 공허해진다고 응답했다(DGBAS, 2008). 그러나 장기적 추이를 보면 1965년 22-39세 기혼 여성의 이상자녀수는 4명이었지만 1998년 2.4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1970년 3.8명에서 1976년 2.9명으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Lin et al., 2002). 1998년

이후 관찰된 기간합계출산율은 보고된 이상자녀수보다 훨씬 적었고 (1965- 2012, KAP 설문조사를 사용한 저자의 자체 분석), 반전의 기미 없이 감소했다.

혼인율 감소와 초저출산율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여러 사회계층에서 나타난 이러한 가족행동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탈산업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면서 예상치 못한 불평등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음 장에서는 중요한 개념적 틀을 설명하고 교육과 다산에 대한 기존 실증적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그런 다음 기간 및 코호트별 합계출산, 출산진도비(PPR) 및 무자녀 패턴을 알아본다.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함의와 기존 연구 및 정책 담론과의 관계를 정리한다.

## 2) 개념적 틀

장기적 차원의 교육수준 및 성별 출산력 변화는 미시경제적 요소와 문화제도적 요소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전자는 남녀 간 교육수준별 출산력 차이에, 후자는 구조적 변화로 인한 인구통계학적 행동 패턴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교육수준은 주로 경제력과 역할 갈등을 통해 출산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능력도 높아져서 더욱 많은 자녀를 낳고 양육할 수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 자원이 가족형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미시경제적 백커리안(Beckerian) 관점이다 (Becker, 1991). 다른 한편으로, 교육은 진학과 경력 유동성에서 발생하는 역할 갈등을 통해 출산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전자는 특히 여성들에게 학생 역할과 출산을 병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후자는 출산을 위해 유망한 경력을 포기하기를 꺼려하는 고학력 여성의 출산의향을 저해

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두 가지 메커니즘은 한쪽 성별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쳐, 교육수준별로 남성의 출산력은 양의 기울기를, 여성은 음의 기울기를 보였다.

미시경제적 요소 외에도 문화적, 제도적 맥락 또한 남성과 여성의 출산 행동과 시간 경과에 따른 교육수준별 출산력 차이를 형성한다. 동아시아는 가정에서 여성을 종속적 위치에 두고, 성역할 분리를 강조하는 유교 문화가 강해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회 비용이 커진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공공부문의 양성평등은 개선되었지만, 집안 일과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다. 이는 일과 가정의 불균형을 초래해 여성의 출산력을 낮출 수 있다. 한편, 탈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최근 가족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나타났다. 즉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실업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계층의 혼인율이 감소하고 이혼율이 증가하는 새로운 패턴이 형성됐다. 경제적 불안과 결혼 기간 단축은 취약계층의 출산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제도적 영향을 고려하면 장기적 차원에서 교육수준별 출산력 차이가 축소(convergence)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남성의 경제력이 결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해 교육수준별 여성의 출산율 차이는 음의 값을 유지하는 반면 남성의 교육수준별 완결출산율 기울기가 양의 값으로 바뀔 수 있다.

### 3) 교육수준, 성별 및 출산력에 대한 기존 연구

기존 연구에서는 인구변천이 나타나기 전까지 남성은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평생 출산력이 높게 나타났다(Skirbekk, 2008). 현대 사회에서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되면서 세대에 걸쳐 높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손에게 더욱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하므로 사회경제적 자원이 많을수록 자녀수를 줄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Livi Baci(1977)는 2세기에 걸친 이탈리아 출산력 변화를 연구하고 사회적 지위와 자녀 수의 관계가 어떻게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었는지 보여준다(Livi-Bacci, 1977).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뿐 아니라 성별 사이에서도 사회적 지위와 출산력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교육은 여성의 출산력을 억제하고 남성의 출산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Skirbekk and Samir, 2012). 여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 기간이 길고 경력단절의 기회비용이 높아 출산율이 낮은 반면, 남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일부다처제와 여러 여성과의 출산으로 자녀 수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Skirbekk, 2008).

20세기 중반부터 많은 선진국에서 대중교육이 확대되면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크게 높아졌다. 출산율 감소하는 인구통계학적 현상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전문가들이 교육과 출산행동의 관계를 조사해왔다.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기로의 전이가 늦어지고, 자녀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다(Jejeebhoy, 1995; Bongaarts, 2003). 그러나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노동 시장 진출이 증가하면서, 이들 분석이 진행된 국가의 최근 코호트에서는 고학력 그룹과 저학력 그룹간 사회적 출산력 차이가 축소됐다(Kravdal and Rindfuss, 2008; Van Bavel, 2014; Yoo, 2014).

교육과 출산의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다시 말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후에도 기존 교육과 출산력의 관계가 지속되는가? 아니면 역전되는가? 이러한 실증적 질문은 현재 인적자본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인구 구성이 바뀌고 있지만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많은 나라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남성의 출산행동을 조사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여성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남성의 출산력 패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전통적으로 성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문화로 인해 남성이 여성보다 출산의 기회비용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수준별 남성의 출산력 기울기가 여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화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의 출산 패턴과 시간 흐름에 따라 사회적 계층별 이들의 출산력 변화를 기록하기에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남성이 포함된 연구는 대부분 남녀의 교육-출산율 분석이 가능한 방식으로 인구등록 데이터가 저장된 북유럽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Kravdal and Rindfuss, 2008; Boschini et al., 2011).

북유럽 이외 지역에서 성별 변화 또는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고사하고 교육 효과에 초점을 맞춘 출산력 연구도 크게 부족한 편이다. 대중 교육의 확대로 대만의 평균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남성보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이 두드러졌다. 지난 수세기 동안 여성보다 남성의 교육수준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한편으로 출생 코호트에 대해 3차 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면,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은 자녀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미국의 연구 결과와 같이 고학력 여성일수록 결혼 가능성 및 교육수준이 비슷한 남성과의 결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현재 대만 출산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어느 쪽 증거도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만의 출산율이 2.8명에서 1.2명으로 감소한 1975-2015년까지 사회적 출산행동의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다. 또한 1910-1960년대 출생한 코호트의 출산 패턴을 추적하여 코호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할 수 있다. (i) 시간 경과 및 코호트

에 따라 성별 및 교육수준별 합계출산율 패턴이 어떻게 진화했는가? (ii) 출산력이 완결된 코호트에서 성별 및 교육수준별 출산진도비(PPR: parity progression ratio)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iii) 출생 코호트에 따라 성별 및 교육수준별 무자녀 비율이 달라졌는가?

### 3. 자료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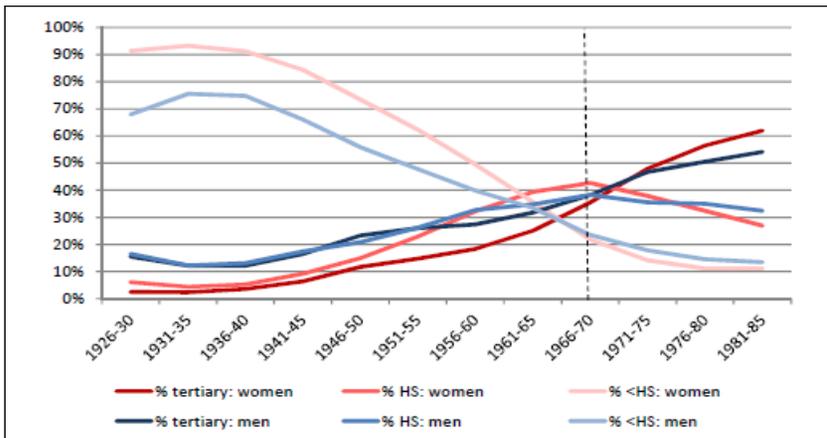
대만 통계연감에서 1975년부터 2015년까지 남성과 여성의 5세 계급별 및 교육수준별 상세한 출산 수 교차표를 사용했다. 교육수준별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을 산출하기 위해 연령, 교육수준 및 성별로 15세 이상 인구 수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들 데이터는 지난 40년간 기간합계출산율을 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1980년과 2010년 인구조사에서만 현재까지 출생한 총 자녀 수를 조사했던 점을 고려해 이 두 데이터세트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분석했다. 1980년 인구조사를 사용해 1910년부터 1940년대 초까지 여성 코호트의 완료 출산력을 산출했다. 총거주인구의 16%를 무작위 추출해 실시된 2010년 인구조사는 1930년대 말부터 1975년 사이에 출생한 여성의 완료 출산율 산출에 사용됐다.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별 출산진도비와 무자녀율도 산출했다. 단, 1980년 인구조사에서는 남성 조사 대상자의 총자녀수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 인구조사에서만 남성의 출산력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집한 데이터 중 가장 개방형 출산 데이터인 1980년 인구조사의 경우 6세 이상 아동, 2010년 인구조사의 경우 4세 이상 아동이었다. 1-4 이상의 출산력을 범주화해 두 인구조사를 조정했다.

#### 4. 분석 결과

전체 코호트의 남녀 교육수준 구성 변화 내에서 연구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중졸 이하, 고졸 및 대졸이상 등 3개 교육그룹별 성인의 구성변화를 조사했다(그림 3-14). 조사 결과 중학교 졸업자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비율은 코호트 경계를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어린 1970년 이후 코호트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도 감소하고 대학교 졸업자 비율이 상당히 증가한다. 또한 주목할만한 현상은 이들 코호트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 교육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최근 결혼 코호트에서 교육적 동질성과 하강혼이 증가함에 따라 이는 고학력 여성에 대한 결혼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Cheng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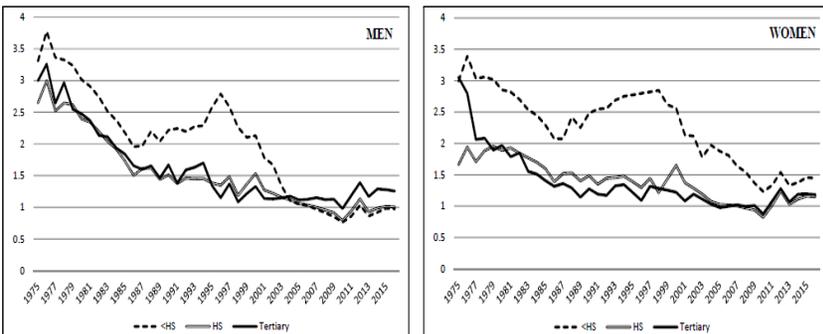
[그림 3-14] 대만의 출생 코호트별 학력 비중 (2010년)



### 1) 기간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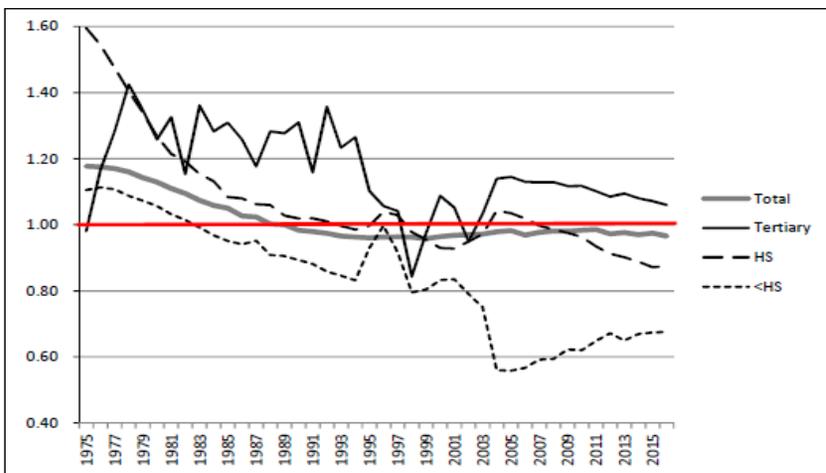
기간합계출산율은 1975년 약 2.8명에서 2015년 1.2명으로 감소했다. 교육수준별 기간출산율 차이는 남성과 여성이 다양한 패턴을 보였다(그림 3-15 참조). 남성의 교육수준별 합계출산율 기울기는 1970년대 중반 음의 값에서 1990년대 중반 양의 값으로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1970년대 중반 중졸 남성은 같은 조건의 대졸 남성보다 자녀 수가 0.5명 많았다. 최근에는 고졸 남성보다 대졸 남성의 자녀수가 최대 0.4명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교육수준별 합계출산율 기울기는 패턴이 다소 약화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 사이 몇 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음의 값을 유지했다. 198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사이에는 중졸 이하 여성들의 출산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1987년부터 대만에 들어온 외국인 신부의 출산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들 여성은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하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노출 인구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남성의 출산율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고졸 이하 여성은 대졸 여성보다 출산율이 약 0.3명 정도 높았다. 그러나 고졸 및 대졸 여성의 출산율은 지난 15년 동안 거의 비슷해졌다.

[그림 3-15] 대만의 15~49세 남성과 여성의 학력 수준별 기간 합계출산율 (1975-2015년)



[그림 3-16]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PTFR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초까지는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기간합계출산율이 높았으나 대졸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 사이에서 급변했다. 결과적으로 2020년까지 여성보다 높은 PTFR을 유지하는 그룹은 대졸 남성뿐이었다. 이는 여성과 비교해 대졸 남성의 경제력이 안정적이어서 자녀 수가 많을 가능성이 높고, 저학력 남성의 결혼 전망이 지난 수십 년간 급격히 악화되면서 혼외출산율이 낮은 환경에서 이들의 출산율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3-16] 대만의 남성 기간 합계출산율과 여성 기간 합계출산율 비율 (1975-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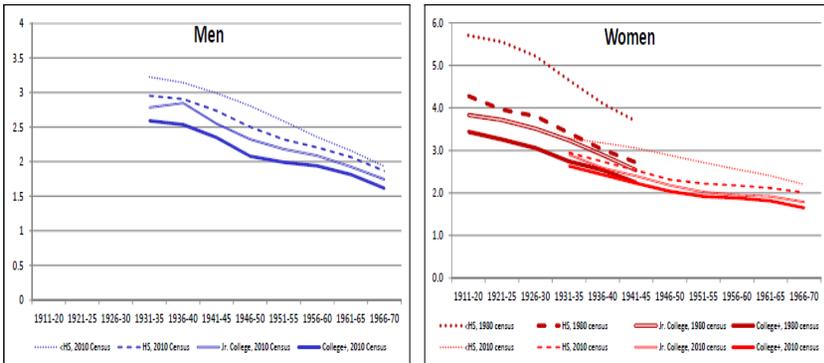
## 2) 코호트 패턴

### ① 완결 출산율

코호트 패턴에서는 남녀 출산율 추이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3-17]은 1980년과 2010년 인구조사에서 수집한 출산력 데이터를 사용해 작성한 도표이다. [그림 3-17]에서 볼 수 있듯이 코호트 전체에 걸쳐

남녀 모두 교육 수준별 완결 출산력 격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었다. 기간 추이에서 남성의 교육수준별 합계출산율이 양의 기울기를 보인 것과 달리, 교육-출산율 관계는 남성의 출생 코호트 전체에서 음의 값을 유지했다. 연령이 높은 코호트일수록 교육수준별 음의 격차가 큰 반면, 남녀 모두 교육수준별 기울기가 여전히 음의 값을 유지하지만 가장 어린 1960년대 말 코호트에서는 차이가 크게 감소했다.

[그림 3-17] 대만 남성과 여성의 교육 수준별 출생 코호트별 합계출산율



주: 1980년 센서스는 남성 응답자에게 출산 자녀 수를 묻지 않았다  
 자료: 센서스 1980,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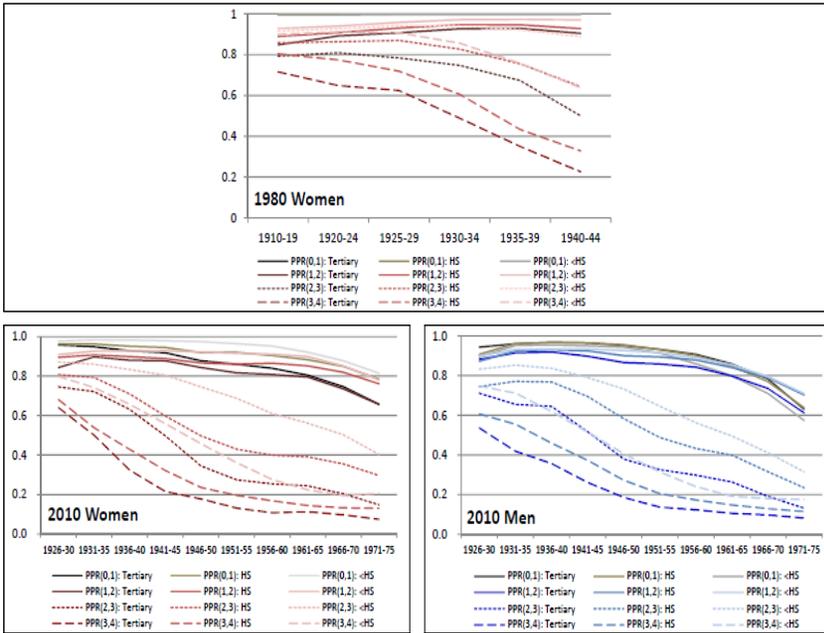
## ② 출산진도비 변화

코호트 출산 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 출산진도비를 산출했다. [그림 3-18]의 위쪽 그래프 상단에서 검은색과 회색 실선 3개가 모두 겹쳐있다는 것은 1980년 인구조사에서 1910-1944년 출생한 여성이 모든 교육 집단에서 자녀를 출산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둘째 자녀 출산진도비는 교육수준별 음의 변화를 보여주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어린 1940-44년 코호트에서도 0.9 이상을 유지한다. 셋째 출산진도비는

1920년대 말 출생한 코호트에서 급감했으며, 고연령 코호트부터 저연령 코호트로 교육수준별 음의 기울기가 확대됐다. 넷째 출산의 교육수준별 기울기는 코호트 전체에서 음의 값이 더욱 커졌다. [그림 3-17]의 아래쪽 좌측 그래프는 2010년 인구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첫째 자녀 출산진도비는 1930년대 출생한 여성 코호트에서 음의 기울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첫째 자녀 출산 전환비는 1940년대 코호트부터 현저한 감소를 시작했다. 1960년대 이전에 출생한 여성 코호트는 모두 0.8 이상의 둘째 출산진도비를 유지했다. 반면, 셋째 출산진도비는 모든 코호트에서 음의 기울기가 훨씬 크게 유지된다. 넷째 출산 전환은 1930년대 코호트에서 교육수준별 음의 기울기가 급감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1940년대 말 이후 출생한 코호트부터 격차가 감소했다.

[그림 3-18]의 아래쪽 우측 그래프는 2010년 인구조사의 남성 출산진도비 패턴을 보여준다. 거의 모든 남성이 자녀를 출산했고, 1950년대 말 코호트까지 교육수준별 기울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1950년 이후 출생한 코호트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 수가 적게 나타났다. PPR(0,1) 및 PPR(1,2)의 교육수준별 기울기는 1950년 이후 모든 코호트에 대해 반대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격차는 여성보다 작았지만, 교육수준별 셋째 출산진도비는 남성 그룹에서도 음의 기울기를 보였다. 교육수준별 넷째 출산 전환 격차는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남성과 여성과 마찬가지로 1950년 이후 코호트에서 감소했다.

[그림 3-18] 대만의 교육 수준별 출산 진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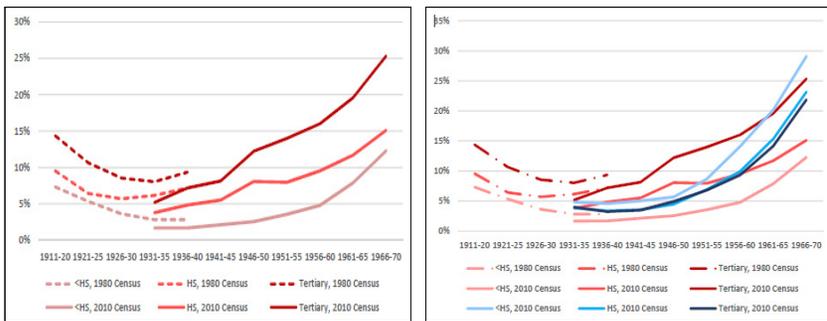
주: 분명한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첫째아에서 둘째아 출산 진도비 그림은 포함하지 않았다. 첫째아에서 둘째아 출산 진도비 그림은 첫째아 출산 진도비 그림과 유사하거나 약간 낮다.

### ③ 무자녀

마지막으로 [그림 3-19]은 1980년과 2010년 인구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191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사이에 태어난 남녀의 교육수준별 무자녀율을 보여준다. 코호트 추세는 최저 수준을 기록한 1930년대 코호트를 중심으로 U자형 패턴을 보였다. 교육수준별 무자녀율은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이 반대의 패턴을 보였다(남성: 양의 기울기, 여성: 음의 기울기). 이러한 교육수준별 차이는 모든 출생 코호트에서 이어지지만 여성의 경우 1920년대 말 코호트부터, 남성의 경우 1950년대 코호트부터 격차가 커졌다. 다시 말해서, 최근 코호트에서는 취약 계층

남성과 대졸 여성들 사이에서 평생 아이를 갖지 않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1960년대 이후에 출생한 저연령 코호트에서는 최저학력 남성의 무자녀율이 최고학력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졸과 대졸 남성이 대졸 여성의 무자녀율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성별 무자녀율 격차가 커졌다.

[그림 3-19] 대만의 40세 이후 여성과 남성의 무자녀 비중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만의 풍부한 인구동태통계 및 인구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장기적 차원에서 남녀의 기간 및 코호트 출산 패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지난 40년간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별 기울기가 음의 값에서 양의 값으로 바뀐 반면, 여성은 대부분 관찰기간 동안 음의 값을 유지했다. 이는 탈산업화 환경에서 남성의 교육수준별 경제적 불균형이 커지고, 고학력 여성들 사이에서 일과 가정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적 배경에 따라 남녀의 사회적 출산행동 격차가 남아 있지만 교육수준별 출산력 격차는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주로 중졸 이하 그룹의 출산율이 급감한 반면, 고학력 그룹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력 격차 축소는 사회계층간 불평등 완화로 해석될 수 있지만, 탈산업화 사회에서 출산에 대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이들 추세 뒤에 숨어 있는 프로세스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의미할 수 있다.

코호트 출산 패턴의 경우, 1930년대와 1960년대 사이에 출생한 남성의 교육수준별 출산 기율기에서는 유사한 반전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적 격차는 남녀 모두에서 음의 기율기를 보였다. 2010년 인구조사 데이터에서 1970년 전에 남녀 그룹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전히 자녀 수도 많게 나타났다. 이는 일부 초저출산 국가에서 여성의 고용과 출산율의 관계가 음의 값에서 양의 값으로 전환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Esping- Andersen, 1999; Billari and Kohler, 2004). 최근 몇 년간 기간 패턴에서 나타났던 양의 값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남성 코호트의 교육수준별 출산력 기율기가 음의 값으로 바뀔 수 있다. 기간 추세와 마찬가지로, 완결 코호트의 교육수준별 출산력 차이는 전체 코호트에 걸쳐 축소됐고, 최근 코호트에서는 남녀 모두 합계출산율의 사회적 격차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코호트의 합계출산율 격차가 감소하는 이러한 추이는 북유럽 국가(Kravdal and Rindfuss, 2008; Andersson et al., 2009)과 한국 (Yoo, 2014)에서도 보고되었다. 교육과 초저출산율의 관계가 약화되었다. 이는 현대사회의 높은 양육비와 대학졸업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결혼 가능성이 취약계층의 출산율을 낮추는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기간 추이는 2010년 최저점을 기록한 후 반등하는 신호를 보인 반면, 저연령대 여성 코호트는 모든 교육 수준에서 코호트 출산 추이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대만 여성의 출산 연기가 출산 포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40년 간 출산율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코호트 사이에서 매우 제한적이지만 회복세가 나타

났다. 출산율 감소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코호트 전체에서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을 유지하는 미혼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45-49세 남성과 여성의 미혼율은 1978년 각각 10%와 2.4%에서 2018년 18.5%와 16%로 증가했다. 대만은 혼외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생애미혼율 증가는 출산율 감소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한국도 대만과 마찬가지로 지난 40년간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했지만, 1960-1970년 출생한 코호트에서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코호트 출산율 급감세가 바닥을 찍은 것으로 간주되어 대만보다 낙관적인 코호트 패턴이 예상된다(Yoo, 2014).

기존 연구는 코호트의 출산진도비 패턴을 거의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출산력 전환 패턴을 조사 결과, 고연령 코호트에서 교육수준별 첫째 자녀 출산진도비 기울기가 이후 자녀 출산진도비보다 훨씬 완만하게 나타났다. 20세기 전반기에는 교육수준과 성별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인구가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젊은 세대에서는 남녀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수가 감소했다. 특히 넷째 자녀 출산진도비는 1950년 이후에 태어난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교육수준별 격차가 축소됐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행동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i) 1950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는 산업화가 꽃 피고 교육이 확대된 시기에 성장했고 소가족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ii) 저학력 그룹은 넷째 자녀 출산진도비가 훨씬 가파르게 감소했다.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경제구조조정과 산업 아웃소싱으로 큰 타격을 입은 코호트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대만의 혼외출산율이 4%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혼인율과 다자녀 출산진도비 감소는 대만이 초저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또한, 대만은 코호트 전체에 걸쳐 다자녀 출산에서도 교육과 출산이 상당히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과는 다른 패턴이 관찰되었다(Wood et al., 2014). 이는

남성의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고 강력한 가족주의로 인해 문화적 및 정책적 차원에서 변화하는 여성의 역할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자녀율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 모두에서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다. 젊은 코호트의 경우 남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여성은 대학교육을 받고 학력이 높을수록 평생 무자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1920년대 후반 코호트부터, 남성은 1950년대 코호트부터 교육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다. 전자는 산업화 시기 교육 확대로, 후자는 탈산업화 시기 경제구조조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40-1964년 출생한 코호트에서 남녀 모두 교육수준별 무자녀율 격차가 사실상 사라진 노르웨이의 패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Kravdal and Rindfuss, 2008). 이러한 상반된 코호트 패턴은 양국 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과 양성평등 수준이 다른 결과일 수 있다. 여성의 변화하는 역할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국가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함께 출산 및 여성의 교육수준과 무자녀 간 연관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Balbo et al., 2013). 대만은 아직 양질의 공공 보육시설이 부족해 젊은 부모들이 비싼 민간 시설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결국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만은 2002년 성별노동평등법(Act of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이 제정됐지만, 고용주의 차별적 및 징벌적 처우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이 임신 중 및 출산 후 주어진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사 결과, 남녀 교육 그룹 전체에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났지만, 최근 대만 남녀 코호트의 무자녀 및 넷째 출산진도비에서 변화가 감지됐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화 이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출산율이 급감하고 무자녀율이 증가하면서 가족행동에서 새로

은 형태의 사회 불평등이 관찰된 대만 사회에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제시한다. 즉, 21세기 들어 교육수준별 여성들의 결혼의향 기울기가 음의 값에서 양의 값으로 바뀌었고(Cheng, 2014), 남녀 모두 대졸자 그룹의 이혼 위험이 저학력 그룹보다 훨씬 낮아졌다(Chen, 2012; Cheng, 2016). 최저학력 그룹의 이혼 위험이 증가하면서 대만에서 편부 가정 증가했다. 저소득 편부 가정은 혜택을 많이 받은 편부 가정보다 부모와 자녀 관계 및 상호 작용이 훨씬 약한 경향이 있다(Cheng and Wu, 2016). 탈산업화 사회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나면서, 취약계층의 가정형성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고 가족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주의가 강한 국가는 여성의 새로운 역할에 부합하는 가족/노동 정책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앞으로 몇 년 동안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하면, 취약 계층의 권한을 증진하는 정책은 혼인율 감소세를 역전시켜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사회적 배경이 다양한 남녀의 사회적 출산 패턴 격차를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



# 제 4 장

## 국제 비교를 위한 출산 자료 구축 방안

제1절 저출산·정책 및 국가 간 비교 자료의 필요성

제2절 아시아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구축 방안

제3절 프랑스의 무자녀 및 출산 의향에 대한 질적 연구



# 4

## 국제 비교를 위한 출산 자료 << 구축 방안

### 제1절 저출산·정책 및 국가 간 비교 자료의 필요성

Anne H. Gauthier

네덜란드 학제간 인구연구소

#### 1. 서론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이 관찰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저출산율이 가치관, 가족의 변화, 성 역할의 큰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가의 저출산 문제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직업 불안정성 등과 같은 노동시장의 큰 변화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Vignoli, 2019).

세대 및 성별 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포함한 국가 간 데이터(cross-national data)는 연구자들이 저출산 현상, 그 변화, 상관관계, 국가별 특성을 연구하는 데 절대적인 기여를 해왔다(Gauthier et al., 2018).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동시대의 저출산 현상을 다시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연구자들은 출산의향을 결정하는 과정과 삶의 다른 영역 사이의 상호 관계뿐만 아니라 성별의 차이에 주목했다(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Goldscheider et al., 2015). 그들은 또한 공통된 과정과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현재 저출산 및 그 결정요인에 관한 지식은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유럽 국가들의 연구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비교 가능한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도 국가별 출산율과 가족 관련해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비교가 불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이를 비교 가능한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중반 실시된 세대 및 성별 조사(Generations and Gender Survey)의 1차 데이터 수집에 전폭적으로 참여한 아시아 국가는 없었다. 일본은 연계조사를 통해 참여를 했지만, 비교 가능한 자료의 수가 부족했고, 다른 국가의 데이터와 조화를 이룰 수 없었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출산의사 결정 과정이 (어떤 조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국가적인 맥락에서 출산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들이 부족함을 호소해왔다(Rindfuss and Choe, 2016).

앞으로 2020-2021년에 새롭게 진행될 제2차 “세대 및 성별 조사(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GGS)”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저출산 분석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리적 분석 범위를 동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본다. GGS의 주요 학문적 기술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 2. 세대 및 성별 조사의 다면적 접근법

GGG(Generation and General Survey)는 GGP(Generation and General Programme)의 주요 조사 도구다. 인구통계학적 연구 인프라로서 GGP는 유럽의 주요 인구통계연구소와 학술 인구통계연구센터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관리하며,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오늘날, 그것은 전세계적으로 4,000명 이상의 사용자들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으며, 전세계 총 이십만 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럽 전략포럼(European Strategic Forum on Research Infrastructures)에서 주요 연구인프라로 인정받았다.

### 1) 회고적 및 미래적 차원의 접근법

사건의 발생, 시기, 순서에 대한 정보를 회고적으로 수집하는 작업의 중요성은 인구통계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전통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보건조사(Demographic Health Survey)와 GGS를 포함한 모든 주요 인구통계 조사는 출산이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러나 GGS가 다른 점은 개인이 구축해왔던 동반자 관계에 관련한 모든 이력을 수집한다는 데에 있다. 즉, 결혼을 통한 관계 구축뿐 아니라 비혼에 의해 구축된 파트너쉽 및 그것의 해체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가족의 구성과 가족 주기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반자 관계 구축에 관한 모든 이력을 수집한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GGS의 하위 산물인 Harmonized Histories는 모든 출산 이력 및 동반자 관계에 대한 개인의 모든 이력을 바탕으로 구축되며, 가족형성 및 출산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학술

간행물에서 활용되어 오고 있다(Koops et al., 2017; Mikolai et al., 2018).

GGG가 다른 점은 예측적 접근법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패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GGS는 세계적인 인구통계학적 연구 인프라로서 패널 구조를 고려할 때 독특하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출산의향이 아니라 출산의향과 그것의 실현에 특히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GGS는 향후 3년 내에 출산의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동일한 응답자가 3년 후 이를 실현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서 출산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고, 출산의향의 실현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Kapitani and Speder, 2012).

## 2) 출산의사 결정 경로

많은 국가에서 관찰된 저출산 현상은 이상적인 가족 규모, 개인적 선호도, 출산의향, 궁극적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을 연결하는 전체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GGS는 이러한 모든 요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자들이 기대 자녀수와 실제 출산 자녀 수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GGS 내 출산을 결정 경로의 다양한 요소들의 측정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1차 데이터 수집에서는 출산의향과 출산 결과로 이어지는 경로를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ur)”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이는 해당 이론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즉, 출산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 출산과 관련해서 개인이 인지한 주관적 규범, 출산에 대한 인지된 통제 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때문에 다수 인용된 연구보고서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예: Dommermuth et al., 2011).

GGs는 새로운 데이터 수집에서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파생된 몇 가지 요소를 반복하지만, 밀러의 “출산의향 이론”에서 파생된 새로운 요소도 소개할 것이다(Mynarska and Rytel, 2018). GGS가 가장 효과적이고, 출산에 따른 대가와 효용이 인식되는 방식 그리고 출산의향이 어떻게 형성되고, 실제 출산으로 실현이 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어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 3) 젠더 차원에서의 접근법

성별 규범, 가치관, 행동은 가족 역학관계와 출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GGS는 성 역할에 대한 인식된 사회규범, 부부의 유급과 무급 노동의 실제 분업, 그리고 성별 분업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데이터 수집 연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Gauthier et al., 2018). GGS는 네 가지 주요 통찰력을 제공했다. 첫째,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노동의 성별 분업에 대한 만족도가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Neyer et al., 2013). 둘째, GGS에 기반을 둔 연구에서도 이념과 행동의 차이를 부각시켰다. 예를 들어 남녀평등에 대한 태도와 실제 성평등 관행(미수직의 성분할)의 관점에서 부부가 실제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지가 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assve et al., 2015). 셋째, GGS의 예측적 성격은 성 불평등의 역동적인 차원을 드러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대부분의 부부들은 젠더에 기반해 가사노동을 재분배한다. 마지막으로, GG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은 성 규범, 가치관, 행동에 있어서 국가 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결국, 이러한 데이터는 각국이 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 4) 불확실성, 삶의 만족도, 그리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

근로조건이나 무급 및 유급 노동의 젠더별 분업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이 출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정할 수 없을 만큼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주관적인 인식 또한 증대한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 직업이나 재정에 대한 인식된 불확실성이 출산결정에서 미치는 역할을 고찰한 연구가 새로운 연구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구학적 결정과 관련해서 흥미롭고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Vignoli, 2019). 1차 GGS 데이터 수집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포함돼 있었다. 이 문제는 다음 조사에서는 직업 불안정(현재의 직장을 잃게 될 가능성을 응답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 및 향후 예상소득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로 보강이 되었다.

삶의 만족과 행복이 출산의향 및 궁극적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최근 한 연구의 일환으로, 출산과 주관적 행복 그리고 제도적 환경을 연관 지어 고찰했다(Margolis and Myrskylae, 2011; Aassve et al., 2015). 새로운 GGS에서 주관적 행복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이 추가되었으며, 이 문헌에도 더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직장 and 사생활의 균형과 출산 후 여성의 직장복귀 여부 및 출산 및 육아 휴가에 관한 데이터는 연구자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에서의 책임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어떻게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춰나가고 있는지에 관한 데이터는 가족의 변동과 관련된 성역할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 5) 인생과정 및 삶의 기타 영역

출산에 관한 의사결정은 분명히 진공상태에서 형성되지 않으며, 일, 재정, 가정환경 등 삶의 다른 영역과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첫아이 출산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문제와 난임의 문제는 점차 고려할 만한 중요한 요소들로 부상하고 있다. GGS는 임신의 어려움과 보조생식 기술(ART)의 사용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데이터들은 출산 의향과 출산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동시에, 몇몇 국가에서는 30세 이후에 아이를 갖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쌍봉형 (bi-modal) 출산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여성의 경우, 상당히 어린 나이에 자녀 양육을 시작하는 경우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쌍봉형 패턴은 완전히 다른 매커니즘과 뿌리 깊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형성이 된다. 임신의 계획성과 무계획성 및 현대적인 피임기술의 접근에 관한 GGS 데이터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관한 데이터와 더불어, 이러한 매커니즘과 내재된 불평등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GGS가 이 분야에서 두 가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지표를 추적하기 위해 고안된 인프라라는 것이다. 즉, 지표 3.7.1 (현대적 방법에 만족해하고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느끼는 가임기 여성의 비율)과 지표 5.6.1(성관계, 피임법 사용 및 출산관련 건강관리에 관한 현명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15~49세 여성의 비율)를 추적할 수 있다.

성장한 자녀와 나이든 부모 간의 세대 간 교류가 출산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중요한 한 영역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GG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조부모들이 제공하는 육아 지원이 자녀가 있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Arpino et al., 2014; Tanskanen et al., 2014). 그러므로 GGS는 조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육아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건강, 지리적 거리 등)를 고찰한다. 이러한 차원에 대한 연구는 세대 간 지원에 관한 사회규범은 물론 노인들이 처한 환경과 관련해서도 국가 간 큰 차이를 확인했다. 예를 들어, 노인들의 외로움의 정도는 서유럽보다 동유럽에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nsen and Slagsvold, 2016). 일본의 상황과 비교한 연구가 조금 있었지만(De Jong and Van Tilburg, 2010), 건강, 행복, 젊은이들의 인생과정 및 그들의 나이든 부모의 인생과정을 적절히 연계해 관련성을 파악할 만한 충분한 국가 간 비교데이터가 부족한 현실이다.

## 6) 정책

수십 년 동안 정부는 특히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녀를 둔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대책을 도입해 왔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가족의 건강과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부의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정책의 다양성 및 설계,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정책들 간의 상호 관계에서 기인한다.

전반적으로, 과학자들에 의해 도출된 결론은 이러한 정책들이 이론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러한 영향은 적절한 정책 설계(예: 충분한 재정혜택), 다른 사회적 규범과의 호환성(예: 아버지의 육아 참여) 및 그들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특정한 맥락, 특히 직장과 관련된 환경(노동시간, 고용주의 지원)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Gauthier and Bartova, 2018). GGS의 데이터는 인간의 삶에서 정책의 역할을 이해하

는데 도움을 주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미시적 차원의 데이터에 정책 시뮬레이션 요소를 도입하는 작업은 유망하며, 향후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GGP 컨텍스추얼 데이터베이스는 미시적-거시적 차원의 연계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인프라이다.

### 3. GGS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지원

지난 몇 년 동안, GGS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과 국가 간 협력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좀 더 적절한 시기에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데이터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이 강화됐다. GGS의 기술적 운영 요소에는 다음의 다섯 가지 주요 기능이 포함돼 있다. 보다 적시에 공개되고 데이터 품질과 비교가능성이 높아졌다.

#### 1) 과학적 기술적으로 평가된 설문조사

GGS는 GGP의 주요 조사 도구로서 문헌에 대한 학문적 기여, 과학적 핵심개념과 측정, 자료의 품질 등의 측면에서 엄격한 평가를 받게 된다. 2009-2012년까지, 국제 특별조사위원회가 새롭게 부상하는 학문적 변화에 대처하고 1차 데이터 수집에 기반을 두기 위해 GGS 핵심 설문지를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2018-20년까지, 새롭게 구성된 국제 테스크 포스가 GGS 기준 설문지와 그 후속 구성 요소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 작업은 전문가는 물론 사용자들과의 논의를 거친 후에 이루어졌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파일럿들을 통해 새로운 도구들을 철저히 평가했다.

## 2) 국가 간 비교 및 현장연구 지침

2018-20년까지 소프트웨어 Blaise를 이용한 중앙 코드화된 CAPI(및 CAWI) GGS 설문지가 도입되었고, GGS 현장연구 지침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데이터의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데이터를 보다 적시에 공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Blaise-suite는 더 빠른 데이터 공개와 관련 메타 데이터 및 문서화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 중앙 집중화를 통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후 조화의 필요성을 제거한다.

현재 GGS의 실제 활용은 NIDI(네덜란드 학제간 인구통계연구소)에 위치한 인프라의 중심 허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심 허브의 구성원들은 현장 연구를 진행하는 국가들을 모든 단계에서 지원한다. (i) 현장연구 전 단계(샘플링 틀에 대한 결정, 기기에 대한 설문지 활용, 면접관 교육 등을 포함), (ii) 현장 연구 중(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포함), (iii) 현장연구 사후(최종 데이터 파일 생산 및 문서화)

## 3) 혁신 및 데이터 수집의 혼합모드

새로운 GSS는 혼합 모드 조사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었으며, 표본의 일부는 직접 대면 방식의 면접을 수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 주관 웹 버전의 설문지를 통해 수행된다. 이러한 변화는 조사 방법론의 발전과 조사 응답률의 감소, 대면 인터뷰 비용 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동시에 GGS는 개인 차원의 샘플링 프레임도 포함하여 대부분 웹 조사가 가능한 특정 조건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욱이 혼합 모드 설계는 태도와 가치에 대한 데이터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모드 영향을 추정하는 데 중요하다.

연구 인프라로서, GGP는 또한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연구 커뮤니티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다. 예를 들어, GGS는 최근 GGP 사용자 컨퍼런스 전날에 데이터 시각화에 관한 워크숍을 구성했다.

#### 4) 유수의 인구통계 연구소와 협력 기관과의 협업

GSS를 운영함으로써,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들은 NIDI에서 GGP 팀뿐만 아니라 GGP 컨소시엄에 속한 사람들을 포함한 다른 GGP 파트너들과 협력할 기회를 얻는다. 여기에는 출산, 가족, 인생 과정, 성별, 세대간 교류, 건강, 이주, 정책 분야의 여러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들은 GGS 연구 결과를 과학자와 다른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전달하는 것을 돕기 위한 이벤트 및 기타 활동 조직에서 GGP Central Hub의 지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최근 GGS를 실시한 일부 국가는 세미나나 회의를 조직해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및 정책 입안자들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GGP는 또한 2년마다 자체 사용자 컨퍼런스(2019년 10월, 파리)를 개최하고, 매년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들의 회의를 열어 GGS를 활용하면서 배운 교훈을 공유하고, 연구자금을 조달하고, 자료를 배포한다.

#### 5) 접근 가능한 공개 데이터 및 대규모 사용자 커뮤니티

마지막으로 GGP는 개방 접근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학술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이용자에게 무료로 자료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각 국가를 대표하는 그룹은 데이터의 소유자로 남아있지만, GGP와 데이터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에게 일치된 데이터를 재배포할 수 있다. 데이터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개인 식별자는 국가별 대표집단에만 남아 있다. 현재 GGP에 등록된 사용자는 4,000명이 넘는다.

#### 4. 결론

저출산 연구는 출산관련 의사결정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만, 특히 삶의 다른 영역과의 상호 관계, 즉 근로 조건과 직업 불안정성, 유급과 무급 노동의 젠더 기반의 분업 및 성별 규범, 그리고 인생과정의 변화에 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학문적으로 우수한 연구 인프라로서의 GGP는 연구자들에게 저출산 및 가족 역학을 연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GP는 지리적 범위를 동아시아로 확대해, 연구자들이 다른 국가적인 맥락에서 이론을 시험하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책 수립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제2절 아시아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구축 방안

Stuart Gietel-Basten

홍콩과학기술대학교

### 1. 아시아의 일, 가정 및 젠더에 대한 비교연구: 경험적 진공

지난 수 십 년간 많은 동·동남 아시아 국가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은 인구에 기반한다. 즉, 이들 지역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아 '인구배당' 효과도 높다. 이는 포괄적인 가족 계획사업은 물론 급격한 도시화와 여성해방 운동 등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유리한 인구조건은 많은 지역에서 중요한 성공 요소로 작용했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들 지역은 출산율이 매우 낮고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제도적 역량이 부족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과 일본 등은 사회복지제도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Shinkawa, 2005), 중국과 태국 등은 '인구고령화(getting old before they get rich)'의 위험을 안고 있다(Oksanen, 2010; Economist, 2018).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인구 고령화와 정체는 '인구학적 해결방안'이 필요한 '인구학적 문제'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최소한 인구학적 출산 척도 측면에서 곧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자 이 지역이 인구 고령화와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저출산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적 견해가 등장했다 (Wattenberg, 2005; Wolfgang Lutz et al., 2006).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구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2차원적 프레임워크는 지나치게 단순한 관점이다(Dorling and Gietel-Basten

2017; Gietel-Basten, 2019). 고령화와 연금의 ‘인구학적 위기’는 인구 변동과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제도와 더욱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 장려보다는 제도 개혁이 더욱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지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대체로 정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거의 ‘이상적’이라고 간주하는 상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아시아인은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둘 정도 남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우고, 집을 사고, 소비를 하고 늙어서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원한다. 따라서 저출산 자체를 고쳐야 하는 문제로 간주하기보다 이러한 희망과 현실의 차이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초저출산(또는 더욱 정확히 희망과 현실 간 차이)은 다른 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현된 증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 또한 원래 관점만큼이나 왜곡되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한 가지 이유는 가족 형성(일 또는 성역할 또는 세대 간 관계 등과 같은 관련 문제)에 대한 심층 동인을 연구하기에는 동·동남아시아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워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저출산 현상은 이러한 경험적 진공 상태(empirical vacuum)로 인해 실제 ‘가장 중요한 동인’을 연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저출산 자체든 희망과 현실 간 차이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적절한 해결책을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문제를 정의해야 한다. 단순한 현금 지원으로는 출산을 장려하기 어렵고 다각적 측면에서 저출산의 본질을 조명해야 한다. 오히려 가족 형성에 대한 희망과 실현은 일, 성역할, 복지제도, 가계 경제, 세대 간 관계 등과 연결되는 일련의 복잡한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체론적이고 가정, 일, 젠더(및 기타)의 광범위한 연관관계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시적 수준에서 정책 개입의 영향을 평가할 수 없고, 합계출산율치

럼 매우 개략적이고 거시적인 인구통계학적 척도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즉, 출산지연으로 인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개별화 과정을 통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하향식 정책 개입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창출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험적 진공 상태에서 파생된 정책은 미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럽(및 앵글로색슨 국가들)은 20세기에 이미 사망률과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현상을 겪었고, 그 결과 의료 및 복지 제도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에서 나타났다. 인구통계상 이들 국가는 이민자 비중이 높고 대부분 결혼과 출산이 서로 단절되었다. 또한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고 이를 국가적 문제로 간주한다.

물론 아시아는 완전히 다르다. 아시아는 저출산율과 사망률, 빠른 고령화의 인구변천과정이 지역마다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일본과 태국은 합계출산율 수준은 유사하지만, 정책체계, 문화, 경제 및 소득 수준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홍콩과 대만도 마찬가지로 출산율은 비슷하지만, 사회복지와 가족지원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결정적으로 중국은 다소 독특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해온 탓에 항상 예외 사례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저출산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아시아 다른 나라와의 공통점이 커지고 있다.

아시아 국가 간 및 아시아와 유럽 등지의 인구학적 선도국 간 관찰된 이러한 이질성은 이론적 관점과 정책적 관점 모두에서 매우 중요하다. 통계 중심의 베이지안(Bayesian) 방식이든 질적 추정 가정 공식화든, (선도국의) 과거 경험을 미래를 위한 지침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과거 UN은 유럽의 경험을 아시아에 그대로 적용해 향후 인구 변화를 전망했었다. 그러나 유럽/앵글로색슨/서양과는 다른 양상이 가능하다면 어떠한가. 경험이 쌓일수록 다양한 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현재 아시아는 국가 및 가계소득이 훨씬 낮고 비공식 근로(informal work) 수준이 훨씬 높은 지역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회적 및 문화적 맥락이 다르면, 국가 이외의 주체가 고령인구를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가? 또는 가족 현대화와 저소득으로 인해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능해졌는가? 거시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외국'의 제도를 토대로 인구학적 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심 지역의 인구학적 미래에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가?

아시아 지역은 뛰어난 설문조사와 마이크로 데이터세트를 갖추고 있지만,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비교가능성 또는 조화성이 제한되어 있다. 고령인구(예: CHARLS)와 일반사회 조사는 조화성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가족 형성 측면은 아직 연구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는 변수와 척도뿐 아니라 의미와 해석도 다르고 심지어 매개변수도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예: 기혼 및 미혼 여성을 별도로 비교) 서로 직접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대한 횡단면적 연구만 참조했다. 아시아 지역의 인구통계건강조사(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는 고출산율 환경과 가족계획에 대한 미충족 욕구를 주로 고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정책 형성과 평가를 위해 가정, 일, 젠더 문제에 대해 종단조사(longitudinal survey)를 실시해야 하는 근거는 확실하다. 먼저 이를 통해 맥락 속에서 지역을 검토할 수 있다. 실제로 특정 장소를 이해하려면 최소한 다른 장소와의 비교를 통해 벤치마크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서로 다른 그룹(남성과 여성)의 인생 여정 그리고 가정, 일, 젠더 및 세대 간 관계의 이러한 기능이 작동하고 충돌하고 연합하여 인구통계학 및 기타 방식으로 측정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명시적 개입 또는 경제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또는 심지어 근대화(및 탈근대 시대로의 전환)가 진행되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러한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아시아의 ‘근대-탈근대’ 인구통계학적 경험을 유럽 등지 선도국가와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앞서 논의한 대로 인구통계체제 및 관련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제도가 근대화/탈근대화하는 방식이 하나 이상인지 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

## 2. 한국에서 GGS 수행을 위한 전략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UNPD, 2019). 많은 전문가가 오래 전부터 이러한 저출산 현상에 대해 연구했고 성역할, 노동 문화, 주택, 생활비, 직접 및 간접 출산비 및 경직된 결혼-출산 관계 등을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다(Choe et al., 2004; W. Lutz, 2008; Frejka et al., 2010). 저출산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물론 가족의 특성 변화와 국가의 미래에 대한 보수적 담론까지 모든 측면에서 국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leman, 2002; Choi, 2009; Ysj.or.kr, 2014; Gietel-Basten, 2019). 한국은 과거 출산율 ‘목표’를 1.5명으로 높이는 정책을 도입했으나 최근에는 일과 보육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개별 출산 선호도 실현을 돕는 ‘탈근대’ 정책으로 이동했다(Jun 2009; Haub 2010; Frejka, Jones and Sardon, 2010; Gietel-Basten, 2019). 그러나 이러한 개입 정책에도 합계출산율이 낮고 심지어 감소세를 보여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Yoo and Sobotka, 2018).

한국은 현재 저출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십 년간 운영해온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는 출산선호도와 가족형성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횡단면적 조사이다. 그러나 횡단 조사의 특성상 시간 경과에 따른 미시적 수준의 변화와 출산 맥락상 개입 또는 기타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추적하기가 어렵다. 한편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는 추적할 수 있지만 GGS와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GGS와의 비교가 어렵다. 그 외에도 다양한 종단면적 조사가 진행 중이며, 국제 설문조사와 유사한 형식으로 비교 분석이 가능한 조사도 있다<sup>6)</sup>. 한국은 종단 조사를 통해 사회경제적 현상을 매우 심도 깊게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 결정, 일과 생활의 균형, 성인기로의 이행 및 세대 간 교류에 대한 적절히 조정되고 비교 가능한 종단 연구는 부재하다.

아시아 지역의 출산 결정, 일과 생활의 균형, 성인기로의 이행, 세대 간 교류 연구 시 GGS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시아 지역은 경제적 및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크고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연구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초점을 맞춘 파일럿 조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최소한 도시화라는 변수를 통제할 수 있어 지역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18-5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경우, 최소 순표본 크기는 5,000명이다. GGP는 3년 간격으로 3번 이상의 파동 동안 실시되도록 설계되었고 데이터 소유권은 국가 팀이 영구 보유한다. GGP 중앙 조정 팀(Central Coordination Team)은 연구 커뮤니티의 자료 보관, 조정 및 보급을 지원한다. GGS는 출산 결정, 일과 생활의 균형, 성인기로의 이행 및 세대 간 교류와 관련된 경험적 문제뿐 아니라 SDG와 관련된 다양

6) 한국아동패널연구, 한국복지패널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청년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한 평가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고 실제로 사용되어왔다.

GGs는 범위, 권한 및 영향이 매우 강력하다. 2004년 이전에는 19개국에서 20만 명 이상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마이크로 데이터 파일은 연구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GGS 웹 사이트 1과 웹 사이트 2에서는 20개국, 14개국의 데이터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몇 년간 남미, 카자흐스탄 등 유럽 이외의 지역에도 적용되었다.

주요 방법론이 진화함에 따라, GGS는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다(대면 옵션 제공). 즉, 우편과 같은 물리적 수단으로 잠재 응답자에게 연락하면 응답자가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대상 표본 크기: 18-49세 5천명, 도시 지역, 남녀).

한국은 고유한 과학적 및 이론적 관심뿐 아니라 새로운 가족 정책이 출산 선호도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GGS형 기구가 필요하다. 물론 기존 설문조사의 경로 의존성이 강하게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념 증명' 버전을 사전 시범 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국가 수준의 대규모 GGS 도입을 촉진하는 강력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설문지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문화적 관점에서 모든 질문이 적절한지 및/또는 다른 질문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에 관해 한국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표본추출틀(주소 목록)을 조립하고 1,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우편(재래식 우편제도)으로 이들 가구에 연락하여 한국 GGS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와 고유 코드를 알려준다. 조건 없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설문조사 완료 시 후속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 적절한 인센티브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 잠재 응답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다른 그룹에는 소액의 인센티브(약 5달러)를 제공한 후 두 그룹의 응답 속도를 비

교할 수 있다. 인센티브 5달러를 지급 받은 팀의 응답 속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경우, 2차 테스트를 통해 5달러와 10달러 인센티브 그룹의 응답 속도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런 다음 NIDI에 데이터를 전송하여 처리 및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완료한 후, 개념 증명을 실시하고 한국에서 GGS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온라인 양식을 운영할 수 있다.

## 제3절 프랑스의 무자녀 및 출산 의향에 대한 질적 연구

Laurent Toulemon

INED

### 1. 서론

개인 및 부부가 인공수정기술에 희망을 걸면서 출산을 결정하거나 출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작용하는 일련의 요인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좌우될 수 있다. 제도적, 문화적 환경이 개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 즉, 전반적인 상황을 조성한다. 개인 차원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출산에 대한 열망이나 의향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자신이 내린 결정에 뒤따르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와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성적 행동을 할 것이라는 이와 같은 가정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범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그 궤적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택은 중장기적 결과를 모두 지칭하는 것일 수 있다.

현재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 경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출산 결정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이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 동기를 묻는 표준화된 설문 문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Gauthier, 2019). 이러한 표준화된 설문조사에는 정성적인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출산 행위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개인의 관점과 설문문항들이 적절한지 혹은 개인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으리 만큼 타당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고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자녀 가정(Le Voyer, 1998)과 무자녀 가정(Donati, 2000a)과 관련해서 20년 전 프랑스에서 실시한 정성적 연구 두 편과 자발적 무자녀 가정(Debest, 2012; Gotman, 2017)에 대한 정성연구와 정량연구가 결합된 최근의 연구 두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들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주요 연구결과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후 이를 아시아 맥락에 대입시킨 논의를 이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들이 출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아가 그들의 답변이 향후 가족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 2. 프랑스인들의 출산 의향 및 행동에 관한 두 편의 정성연구

### 가.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이 생기기까지의 과정

Anne-Claude Le Voyer (1998)의 연구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이 생기기까지의 과정(Process leading to the desire for children in France)”는 출산에 대한 규범과 의향을 조사하기 위한 정량연구의 준비를 목적으로 진행됐으며(Toulemon and Lerdon, 1999; Mazuy, 2006), 이는 이후 출산의향 및 그에 따른 출산행위에 대한 패널 연구로 발전했다(Toulemon and Testa, 2006).

#### 1) 인터뷰 내용

자녀가 있거나 혹은 자녀가 없는 25-30세 또는 35-45세 남녀로 이루어진 총 8개 그룹에 대해 50건의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했다. 각 그룹은 총 6-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그룹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

거주지, 배우자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면접은 작은 마을과 교외 지역, 총 두 개 도시에서 실시됐다. 면접 참가자들은 일련의 학자들이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모집했다.

면접은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일련의 회고적인 성격의 질문을 응답자에게 제시했다(부록 2 참조).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첫 번째 질문 세트에 생애사(life course)의 세 가지 시점을 반영했다.

- 첫아이 출산 전: 커플의 역사, 자녀 출산 의향, 부모가 되는 자신의 모습 투영해보기
- 첫 출산 즈음: 첫 출산이 늦어지는 이유, 아이를 가지려는 이유, 결정의 성숙
- 첫 아이 출산 이후: 부모가 된 후 부부의 삶, 사회생활, 인간관계에 생긴 구체적인 변화(일일 기준), 추가 출산에 대한 의향, 그 이후의 각 출생에 대한 유사한 질문

그런 다음 또 다른 세 개의 질문은 아래 질문으로 돌아간다.

- 출산에 대한 압박, 친구 혹은 동료의 영향 (응답자 및 배우자)
- 그 외 중요한 인생사건: 낙태 또는 유산, 결속력 와해, 직장생활
- 향후 출산의향: 자녀 수, 시기, 양부모, 고령 응답자에 대해서는 회고적 의향에 대한 질문

무자녀 커플들을 위한 질문은 아래와 같다:

- 첫 아이의 출산을 연기하거나 피하는 이유
- 이 주제에 대한 커플 간의 논의: 이 문제를 논의했는가? 했다면 시기는? 각 배우자의 의견 혹은 출산에 대한 의향은 무엇인가? 의견 일치를 볼 가능성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은?

이후 아래의 동일한 세 개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 출산에 대한 압박, 친구 혹은 동료의 영향 (응답자 및 배우자)
- 그 외 중요한 인생사건: 낙태 또는 유산, 결속력 와해, 직장생활
- 향후 출산의향: 자녀 수, 시기, 양부모, 고령 응답자에 대해서는 회고적 의향에 대한 질문

인터뷰의 첫번째 파트의 질문 문항에는 성별, 나이, 배우자와의 동거 상황, 직업, 교육, 거주지, 및 자녀 수와 같은 기본적인 변수에 대한 동질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일련의 질문들이 제시돼 있다.

인터뷰의 두 번째 파트는 30 줄 정도로 기술된 구체적인 시나리오 텍스트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읽은 후, 응답자들은 커플에게 가장 좋은 결정이 무엇일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혹은 상대 배우자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것인지를 답변해야 한다. 또한 자신들의 견해를 설명하기 위한 논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몇 가지 표준화된 상황에 충돌할 경우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은 물론 어떻게 그러한 생각이 만들어지고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젊은 의붓아버지와 함께 사는 재혼가정을 묘사하고 있다. 재혼한 부부와 함께 사는 첫째 딸은 동생이 생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한 차례 유산을 경험한 38세 여성은 다시 아기를 갖기를 원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임신이 어려운 상황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경우, 재혼한 이 부부는 아기를 갖는 것을 포기하는 편이 나올까? 그래도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것이 나올까? 아니면 입양을 선택해야 할까?와 같은 질문들이 제시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세 딸을 둔 보수적인 가정의 한 부부를 보여준다. 이 부부는 시댁과 친정 부모로부터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딸들도 어린 남동생을 예뻐하기는 하겠지만, 두 부모 모두 나름의 어려움을 갖고 있고, 자녀 하나를 더 낳는 것에 대한 확신도 없다. 과연 이들이 자녀를 더 낳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세 번째 시나리오에 묘사된 가정 또한 재혼가정이다. 42세의 아버지에는 성장한 두 명의 딸이 있다. 재혼한 여성은 나이가 더 어리고, 자녀가 없는 회사 중역으로 재혼 전 다양한 경험을 해본 여성이다. 현재 그녀는 35살이고 직업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5년 만에 처음 안정된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이다. 그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은 또 다른 자녀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다. 전처와 헤어질 때의 경험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들이 자주 재혼한 이 부부를 방문한다. 남성이 현재의 부인에게서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그녀가 독립적이며 활발하다는 것과 엄마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이들은 아이를 낳아야 할까?

인터뷰의 세 번째 파트는 육아에 관한 참가자들의 의견(질문의 대부분은 양적 연구에 포함돼 있음)을 묻는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자들은 먼저 질문에 답을 한 다음, 다시 각 질문으로 돌아가 해당 질문이 제대로 이해됐고, 관련성이 있으며, 잘 작성되었는지 점검했다.

-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남성 혹은 여성에게 자녀가 있는 것이 중요한가?
- 기혼자들 중에는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의 선택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부부에게 자녀가 생겼을 때, 여성의 직장 생활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한 여성의 결정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몇 명의 자녀를 낳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
- 다자녀를 둔 가정을 꾸리겠다고 결심한 부부들이 있다. 그들의 결정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여성의 첫 아이 출산 나이로 몇 살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 여성 (혹은 남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올까?
- 폐경 이후 난자기증을 통한 보조생식기술 (Assisted reproduction techniques, ART)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출산하기를 원하는 여성들도 있을 수 있다. 그녀들의 선택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불임 부부의 경우, ART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낳는 것이 더 나올까? 아니면 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나올까? 혹은 자녀 갖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나올까?
- 동성 커플이 아이를 갖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나?
- 부부의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를 넘어갈 때, 자녀를 갖는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 자녀의 성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적어도 아들이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적어도 딸이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첫째 자녀는 아들 혹은 딸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가?

## 2) 인터뷰 요약

응답자들의 답변은 표본의 각 집단별로 요약되어 제시될 것이다. 예를 들면,

- 자녀가 없는 남성: 자유에 대한 욕망과 불확실성 사이의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파트너와 오랜 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남성 응답자들은 완벽한 아버지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표현했다. 남자들은 먼 미래에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이사를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두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젊은 아버지들: 이른 나이에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을 보인다. 젊은 아버지들은 자녀를 갖는 것이 부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시간이 부족하고 (배우자의) 일과 사생활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문제, 혹은 맞벌이의 필요성 등을 문제로 꼽았다. 논의되고 결합된 결정으로 간주되는 문제로서 또 다른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질문, 이 부부가 또 다른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는 부모들의 욕구가 모두 필요하다. 부부가 논의하고 합의한 문제로서의 자녀를 더 낳는 것의 문제는 부부가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 35세 이상의 아버지: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입장을 취한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남성들의 경우, 그들의 인생 여정에서 첫 아이의 출산을 중요한 터닝포인트로 묘사한다. 한편으로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 예상보다 강렬한 감정으로 다가오며,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배우자가 엄마가 된 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보고한 응답자들이 많았다. 또한 엄마와 자녀 사이의 강한 유대감이 형성된 가운데 자신은 다소 소외됐다는 감정을 느낀다고도 말했다.

- 자녀가 없는 젊은 여성들: 결혼의 적당한 시기를 찾고 있다. 극소수의 응답자들만 아이를 갖지 않기를 원하지만, 모두들 "준비가 됐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여성들은 평안한 상대를 찾고 있거나, 혹은 경력을 쌓거나 다른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도 갖고 있다 (“내 아이가 열 살 때 대체 내 나이는 몇 살인 거야?”).
- 젊은 엄마들: 가정하고 공유된 선택. 모든 젊은 엄마 응답자들은 항상 아이를 갖고 싶었다고 말했다. 아이를 낳게 된 배경으로 부부의 합의된 결정과 또래 부부들에게서 받는 사회적 압박을 꼽았다. 반면, 집안의 압박이 아이를 갖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많은 여가 활동을 포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여성이 엄마가 된 후 부부 관계(낮은 시간)에 변화가 있었으며, 새로운 (그리고 더 작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생겼고, 대부분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장으로 돌아갔거나 최대한 빨리 직장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 35세 이상의 아이를 갖지 못한 여성들: 마냥 편할 수 없는 상황에도 달해서 불안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 35세 이후에 아이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 암묵적 선택의 결과다. 즉, 응답자들은 적절한 시기를 찾지 못했거나(너무 이른 시기에 결정하거나 너무 늦은 시기에 결정한 탓), 혹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다.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결핍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한 명만이 아이가 없는 것이 충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고 답변했다.
- 35세 이상의 어머니: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입장. 안정된 삶을 사는 여성 대부분이 첫 아이 출산은 어느 정도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여성들은 궁극적으로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 3) 시나리오

응답자들은 그들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것을 좋아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부부 간의 논의가 이루어진 후 함께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자녀, 친구, 가족의 말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만 최종 결정은 부부가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의 결과 혼합된 결과가 도출됐다. 아들이든 딸이든 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과 너무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응답자 대부분이 남아선호사상과 가족의 압박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대가족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커플의 의견 불일치가 문제를 야기한다. 궁극적으로 배우자 간 합의에 도달하거나, 부부 관계가 나빠지는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는 출산결정을 할 때 여성의 의견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배우자 모두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한다.

### 4) 의견

응답자들은 임신에 대한 심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으며, 어느 정도 나이가 든 후 자녀가 없는 경우,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성의 경우, 25세, 남성의 경우, 25-30세 사이에 첫아이를 낳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 자녀 출산에 적정 연령으로는 여성의 나이 40세, 남성의 나이 40-45세를 꼽았다. 이러한 제한 내에서 부모들 간의 나이 차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첫째 아이 출산을 포함한 인생의 중대사건들을 통제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은 자녀의 성을 결정할 때 상당히 유보적인 자세와 함께 나타난다. 다수의 응답자가 적어도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한편, 자녀 출생 전에 성별을 모르는 편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선택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다수의 설문 응답자들은 남자기증 및 자연분만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50세 이상 여성의 임신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상적인 아이 수에 대한 답은 “적절한 자녀의 수는 2명”이고 “3명의 자녀를 둔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상적인 상황에서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자녀 셋을 낳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2명의 자녀를 낳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부모의 헌신, 즉 경제적 부담이 따라오기 때문이다(대학교육 비용).

다양한 상황과 선택(아이 없는 것 포함)에 대한 관용도 평가가 다수 이루어지지만, 많은 응답자들은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잘못되고 이기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적 결혼이 아닌 사실혼 상황의 여성이나 동성 부부가 자녀를 키우는 상황을 인정하기는 하나, 단 그와 같은 동거의 형태가 어린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러한 부모들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장애물 중 하나는 가족 내부의 본질적인 문제보다 다른 아이들 또는 그 아이들의 부모들에 의해 본인의 자녀가 차별을 받는 경우이다.

아이들의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성평등과 엄마가 사회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라고 답변했다. 소수만이 직업이 없는 엄마가 아이 양육에 더 좋다고 생각했다. 자녀를 가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육 시설이나 보다 유리한 시간제 근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전적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경우 입양보다는 ART를 선호하는 것을 나타냈다. 그러나, ART의 도움을 받은 경우, 자녀가 한 쪽 부모의 유전적 성질만을 닮는 경우가 생기는데, 입양을 할 경우,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 5) 주요 결론

면접 안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하지 않는 주제들을 다시 살펴보겠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응답자들이 가족에 대해 사회가 정해 놓은 기준보다는 개개인의 자유와 관용을 훨씬 중시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것들을 받아들여든 말든 성별에 따른 차이가 많이 드러나 있다는 점이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무자녀는 여성과 남성의 삶에서 어느 정도 의도된 선택으로 나타났다.

자식이 없는 응답자 그룹은 매우 이질적인 것처럼 보였고, 모호한 대담과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두 번째 프로젝트는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무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Donati, 2000a;b). 반구조화된 인터뷰에 바탕을 두어 사회적 차이를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자녀가 없는 성인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이 프로젝트는 아이가 없는 성인들이 “자녀가 없다”는 느낌을 받는지, 명확한 선택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아이를 갖지 않은 것이 그들의 가족과 사회사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두 가지 표집 방식, 즉, 스노우볼 표집 방식과 일련의 일간지와 주간지에 항목별

광고를 통해 60명의 응답자를 모집했다. 응답자들은 궁극적으로 아이를 갖기 어려운 고령으로 40-50세의 여성, 남성은 45-55세의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스칼 도나티의 연구는 구체적인 연구 질문과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아이를 갖는 것이 여전히 부부관계의 균형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과 무자녀 가정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첫 아이 출산을 미루거나 부정하는 것을 '순수한' 부부 관계를 즐기려는 쾌락적 목적과 관련 지어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아이의 출생이 배우자 사이의 관계보다 더 우선한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아이와의 관계와 배우자와의 관계보다 가족과의 관계와 개인적 발전의 필요성 사이에 반대가 더 클 것이다.

둘째, 여성의 직업적 활동은 엄마가 되는 것보다는 부차적인 일로 간주되는 반면, 남성의 직업적 투자는 아버지가 되면서 더 증가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않을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율성 면에서 얻을 것이 더 많다. 부부 내에서, 피임과 임신은 여성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무자녀 가정을 선택할 때 여성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남성이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가설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 두 가지 연구 질문에 기초해 설계된 포괄적인 반구조적 인터뷰는 다루어야 할 주제 목록에 기초하였다. 첫째로, 가족 내에서의 어린 시절과 사회화는 부모님의 평가에 의해 완성되었다.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통계학적 정보가 수집되었다. 그 후, 이 전기는 아이의 문제와 관련된 주요 순간과 사건(경쟁사건의 등장, 가임 연령의 종료 등), 그리고 아이의 탄생에 대한 문제가 이차적, 분산적(부부의 일상생활) 또는 부재적(감정적 독신)으로 나뉘었다. 또 다른 주제는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이

고 구체적인 감정(연령이 다른 관계된 소년과 소녀와의 접촉)과 부모로서의 자아 인식(일정한 형태의 무능을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여성의 경우, 피임,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낙태, 임신에 대한 감정에 대한 추가 질문을 받았다. 그 후, 물질적·경제적 제약(주거, 고용 등)은 물론, 친구나 가족의 사회적 지원도 아이를 갖는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시간과의 관계, 특히 장기간의 추적을 요하는 프로젝트(학력, 전문성, 감정적 투자) 참여에 관한 질문이 주어졌다. 또 다른 주제는 부부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의무적 출산”의 기준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어떻게 인지되고 경험되는가(가족 환경, 친구들의 압력, 부부의 논의)이다. 마지막으로 가치관과 기준체계(종교, 페미니즘, 사회관계, 인류에 대한 일반적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

면접 분석에 기초하여, 자녀가 없는 개인을 여성 자치권, 남성의 자유, 그리고 불임 등, 세 개의 이상적인 유형의 범주로 분류했다. 많은 기술에 따라 응답자를 이 세 가지 유형 사이에 배치했다. 기술된 선택은 어느 정도 심사숙고한 결과라는 것을 강조했다.

여성의 자율성이란, 적극적인 어머니의 긍정적 재현을 의미한다. 적극적인 어머니는 때로는 아들보다 딸의 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 전승된 배경, 가치관, 기준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적극적인 어머니 모델의 전승이 강하게 남아 있으나, 다소 암묵적이다. 어떤 엄마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휴식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들이 필요한 높은 학력을 갖추고 입사를 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력에 투자하고, 전문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지위를 얻는다. 그러나 아이를 갖지 않는 선택은 직업적 투자의 형식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나타나며, 매우 긍정적일 때가 많다. 함께 살 배우자를 찾고 아이를 갖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제가 아니었다. 이 여성들은 로맨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함께 사는 것은

독립성 유지를 강조하는 관계를 위협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 여자들은 그 아이의 문제를 잊어버렸다. 그들이 그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싸울 때나 그들이 일단 그들의 생활방식에 정착한 후에도 아이를 갖는 문제는 그들의 의제가 아니었다. 이 여성들이 늘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다수 여성들에게 엄마가 된다는 것은 가족유산의 일부였기에 연기된 것일 뿐이었다. 여성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엄마가 된다는 문제는 엄마의 역할에 대한 부정과 연관이 있다. 엄마의 역할은 여성들의 남편인 아버지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상의 헌신과 책임을 요구한다. 남녀의 역할이 평등해지거나 역전될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이 여성들은 결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아이가 없는 남자들과의 인터뷰는 아이를 갖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자유 때문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가족생활의 의무, 책임 그리고 참여와 관련된 모든 사회적 제약을 거절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경력에 대한 투자는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자아의 표현과 관련이 있으며, 사회질서나 직업적 안정에 부정하는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는 남성들의 우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생기면 남성들의 우정은 위협을 받는다. 첫 사랑은 강한 헌신 없이 지속될 수 있는 모험담으로 남았다. 인생의 후반기에 새로운 형태의 감상적인 애착은 관계에서 더 큰 안정과 오랜 지속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된 관계는 나이와 함께 강화된 자유에 대한 열망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이상적 유형은 폭력이나 갈등에 대한 기억으로 묘사된 가족사의 결과로서 그리고 자신들의 부모처럼 될 것을 두려워해 부모가 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부모가 될 수 없어서)하면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 새로운 깨달음의 과정을 거쳐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까지는 오랜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자기 평가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체성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부모가 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예술 활동이나 다른 사람의 발전을 지원하는 등 또 다른 형태의 자기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이 세 가지 유형들 사이에서, 인생의 다양한 궤적에서 선택과 제약을 유발하고, 이러한 선택과 제약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인생주기에서 우선 순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적절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어떤 이들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적도 없고 아이를 가지려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한 번쯤 아이를 갖고 싶어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이에 대해 전혀 생각해본 적도 없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이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지 않는다. 남성들의 경우, 배우자가 원할 경우,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없는 상황은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로 묘사될 수 없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생 과정 중 하나이다.

고용기회의 증가, 효율적인 피임 방법의 등장, 결혼 제도의 약화, 이혼과 비혼 동거 증가가 여성에게는 자아를 확립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일부가 되어왔다. 이러한 중대한 변화는 남편과 자녀에 대한 여성의 헌신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바탕을 둔 가정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러한 코호트의 여성들은 더 이상 어머니 혹은 가정 주부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 나. 무자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두 편의 연구

### 1) 무자녀 선택: 사회규범이나 성규범에 맞선 개인의 선택

Debest(2012)의 연구는 부분적으로 질적 면접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일부는 프랑스의 출산 의도에 대한 양적 조사의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연구자는 아이가 없는 고학력자들의 현재 상황이 자녀를 낳지 않고 살겠다는 그들의 의식적 결정의 결과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아이 없는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예외적인 상황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이가 없는 자신들의 상황을 개인적 차원에서 나아가 사회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한편, 그들은 매우 어려운 일인 육아에 대한 투자도 높게 평가한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범적인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전제조건으로는 남녀 배우자가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갖춰야 하고,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자녀를 낳을 적기를 선택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개인적인 발전과 양립할 수 없는 희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아이가 없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 사회 생활을 할 때 융통성이 있고 자신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기꺼이 변화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없는 응답자들은 자유(별도의 육아로 인한 결과에 대처하지 않고도 관계를 끝낼 수 있는 가능성 포함)를 포함하는, 아이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순수한” 부부 관계를 중시한다. 반면, 부모들은 아이를 공유하는 것을 사랑과 장기적인 부부간의 약속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여긴다. 자녀 없는 응답자들은 부모보다 더 보수

적인 육아 관점을 보이고 “좋은 부모 되기”에 대해 높은 기대를 보이는 반면, 부모들은 많은 제약을 극복하고 그들의 기대치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 2) 무자녀,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의지

Anne Gotman(2017)의 연구는 미국의 “자녀 안 갖기 운동”에 대한 문헌 분석과 프랑스 도시에 사는 직장 여성, 관리자 또는 “지적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종합적인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다. 아이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성별규범이 뚜렷하게 존재한다. 즉, 이들은 가족 계획을 세우고 피임을 하는 것을 여성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아이가 없는 여성은 영원히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반면, 아이가 없는 남성은 두 그룹으로 나뉜다. 일부 남성들은 자유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한 반면, 어떤 남성들은 만약 배우자가 아이를 갖기를 원할 경우, 여성의 결정에 따라 자유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여성이 희생할 것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부담과 직장 출근하고 퇴근해서도 집에서 일을 해야 하는 이중생활을 해야 하는 반면, 남성이 아버지가 되는 일은 하루 일과로 봤을 때 여성이 비해 덜 힘든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없는 응답자들은 두 가지 유형의 긍정적인 담론을 제시했다. 첫째, 개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이다. 이 경우, 개인의 자유를 선택하고, 직장생활과 관련된 차별을 거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육아의 전적인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담론에서 암묵적으로 드러나는 자유에 대한 규범은 자녀가 있는 직장인(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차별이 가해지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점과 삶에서 융통성과 순응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의 담론은 환경보호론적이다. 세계인구의 급증, 도시의 팽창, 지구의 자원의 유한성으로 인해 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자녀 없는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며, 자녀를 둔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자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이러한 주장들이 첫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항의 합리화, 자유에 대한 요구의 합리화이며, 프랑스에서 이러한 행동 방식은 규범을 거스르는 행동으로 여겨진다.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그렇게 비춰진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불변”이라는 용어가 그것이 적용되는 사람의 부족을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아이가 없는 응답자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실제로 자녀가 있는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상황에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역할을 재현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책임질 수 없는 욕망을 버리는 것은 정확히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성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여자”나 “남자”의 범주 밖에 있는 어른이 되는 방법이다. 자녀가 없는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한 적극적 거부라고 주장한다. 한편 엄마가 된다는 것은 강한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러한 내적 갈등이 연구대상이 되지 못할 정도로 엄마가 되는 경험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이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터뷰가 모두 쉽게 수행된 것도 아니었다. 많은 아이들이 없는 응답자들은 그들의 가족사,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결심과 관련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렸다. 또는 그 문제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

기 때문에 이번 면접에서 그와 같은 주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인터뷰 중에 일부 자식이 없는 응답자는 방어적 또는 유보적 담론을 채택한다. 어떤 응답자는 나중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라고 주장하거나, 불임이나 입양 계획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다른 응답자들은 아직 배우자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거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공고하지 못해서 아이를 낳을 형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므로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한다 하더라도, 자식이 없는 것은 명백한 선택 이상의 지속적인 상태로 나타난다.

일부 자녀가 없는 응답자들은 단순히 자녀를 낳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제약이나 장애가 없는 삶을 원한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응답자들은 지인들의 자녀(딸이나 조카, 친구의 자녀)와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없는 이들이 세대 전달의 논리에 맞는 역할을 하게 된다. 양부모 역할을 하는 것은 중간 정도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양부모는 양육할 친부모가 있는 아이들과 돈독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 3. 인터뷰에 나타난 주된 주제

이 모든 연구들은 아이가 없는 성인들이 그들의 현재 상황과 가족사 또는 인간사를 기술하는 방식에 대한 수렴된 결과를 보여준다.

#### 가. 개인화 및 계획된 행동

자녀의 최선의 이익과 양립할 수 있다면, 개인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된다. 대다수 부모들은 부부가 자식을 낳지 않을 경우 이상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자녀를 낳고 싶은 바람은 이타적이며,

부모가 모두 가져야만 한다.

아이를 낳고 낳지 않는 선택은 바뀌었으며, 아이를 갖기 위한 방법으로 명시적인 결정을 내리는 규범이 만들어졌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규범은 의학적인 출산기법(피임, 낙태, 보조의학적 생식)에 의해서도 형성되었고, 또한 개인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발흥에 의해서도 형성되었는데, 여기에는 그들이 사생활과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영역에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성적인 것과 출산 간의 관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한다.

남성이 아버지가 되는 일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통제의 규범은 훨씬 더 수월하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가장으로서의 과거의 역할에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부과된다. 즉, 자녀들을 보살피고 양육해야만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아버지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엄마의 그것에 비해 훨씬 가볍다.

## 나. 피임 및 일관된 출산행위

프랑스에서 자녀를 낳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부부가 효과적인 피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낙태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것은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에 대한 질적 인터뷰를 바탕으로 Donati 외(2002)는 자발적 낙태를 선택하는 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이들의 결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제외하면 가족이나 친구가 그러한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반면, 부부 관계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들의 연구에서, 배우자와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여성들 대다수가 낙태를 경험했다. 그러나 안정적인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들 역시 낙태를 경험했다.

## 다. 임신에 대한 강한 압박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결정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자유를 선택하거나 결정 능력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결정은 박탈감, 결핍과 관련이 있으며, 아이를 낳지 않고 살겠다는 긍정적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서 1940-50년대 코호트들(Toulemon, 1996)이 역대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후, 궁극적으로 자식을 낳지 않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 증가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부모가 된다는 것과 관련된 규범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즉,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점점 더 까다로운 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규범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더욱 그렇다(Debest and Hertzog, 2017).

## 라. 자식을 낳지 않는 이유

아이가 없는 젊은 성인들은 다른 우선순위 때문에 첫 아이의 출산을 연기할 수 있다(Debest and Mazuy, 2014). 그들은 아이가 없는 기간을 잘 활용한 이후 자녀를 낳을 “적절한” 시기를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경쟁적인 가치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는 개인의 삶에 대한 개인의 지배라는 이상과 관련이 있고, 개인의 성취, 독립, 직업적 기동성 및 부부의 기동성 같은 개념과 관련이 있다. 반면에 가족의 가치는 직업 및 부부 관계의 안정성, 또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여성의 경우, 개인, 직업, 가족 사이에서 갈등을 훨씬 더 힘들게 경험한다. 남성의 경우, 가정을 꾸

리기 전에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가정 내에서 출산 의향이 형성되는 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차이점이 보인다. 여성들은 이 좀 더 일찍 출산을 결심하는 반면, 남성들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좀 더 점진적으로 조건부적으로 결심하게 된다. Donati (2000b)는 자녀를 갖지 않은 남성과 여성을 반대한다. 이들은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혔으며, 자녀 문제에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 또한 이들은 자녀를 낳는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우며 무관심하다(여성의 입장보다는 남성의 입장이 더욱 그렇다).

## 마. 자유 및 성평등

프랑스 여성들 사이에서는 자유를 평가하고 이중적인 일과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된 제약을 거부하는 담론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내가 그들을 원했다면, 나는 시간을 발견했을 것이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자식이 없는 여성들의 동기가 자유를 다른 것도 포함하는 뿌리 깊은 정체성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모성애를 거부하는 것 외에 삶의 선택들은 부모들 사이의 성 불평등과 훨씬 더 명백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유를 중시하고, 이중화된 일과와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의 문제와 관련된 제약을 거부하는 담화는 프랑스 여성들 사이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자녀를 원했다면, 시간을 내보려고 노력했을 거야.” Gotman, 2017:35 인용). 반면 스웨덴의 경우, 자녀가 없는 여성들은 뿌리 깊은 정체성의 일부로 자유를 존중하며, 여기에는 자식을 낳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부모 사이에 성차별성과 좀 더 극명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Peterson, 2017).

#### 4. 결론

이러한 결과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프랑스 상황에 국한되어 있다. 이 결과들은 그러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정성적 면접 연구에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연구자들은 무자녀 및 부모가 되는 것과 관련된 성구범에 초점을 맞췄다. 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식을 낳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의견과 주장을 조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출산행위에 관한 질적 연구들은 출산 의향 및 출산 행동과 관련된 다른 옵션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다. Freeman 외(2018)는 대만 부부들이 아이를 하나 더 낳기로 결심하게 되는 동기를 연구했다. 첫 출산 이후의 부부 조정과 육아 책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업주부가 되지 않으려는 여성의 욕구 사이의 긴장감은 이 논문에 제시된 다른 대안들을 의미한다. 또 다른 아이를 갖는 옵션에 대해 남성은 출산 비용을 언급하는 반면, 여성은 시간 제약을 생각한다. 둘 다 부모 간의 성 불평등 문제(직장, 자녀와의 시간, 정신적 부하)를 인지한다. 둘째 아이를 갖는 것은 성역할이 평등할 경우 공동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제들은 부모가 되는 것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

질적 면접은 한 맥락 안에서 미시적 수준의 의사결정을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즉, 개인은 거시적 수준의 맥락으로 인한 제약조건 하에서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채택한다. 그들은 옵션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대안 선택을 명시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주택 부족이나 한국의 교육비 등) 출산의 주요 장애물들은 거시적인 수준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질적 면접에서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질적 면접은 양적 조사와 특히 국가별 비교조사(Gauthier, 2019)에 대한 참여를 준비할 수 있으며, 그 맥

락에서 질문이 이해되고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시나리오의 방법은 응답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특정한 대안에 직면하도록 할 수 있다. 그것은 가족의 규범과 행동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가정을 시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 Aassve, A., Meroni, E., and Pronzato, C. (2012). Grandparenting and childbearing in the extended family.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8, 499-518.
- Aassve, A., Letizia, M., Maria, S. (2015). Institutional Change, Happiness, and Fertilit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ume 31, Issue 6, December 2015, 749-765.
- Aassve, A., Fuochi, G., Mencarini, L. and Mendola, D. (2015). What Is Your Couple Type? Gender Ideology, Housework Sharing, and Babies. *Demographic Research*, 32(30): 835- 858.
- Adsera, A. (2004). "Changing fertility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The impact of labour market institution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7(1): 1-27.
- Adsera, A. (2017). "Education and fertility in the context of rising inequality."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017(15): 63-92.
- Alkema, L., Raftery, A. E., Gerland, P., Clark, S. J., Pelletier, F., Buettner, T. and Heilig, G. K. (2011). "Probabilistic projections of the total fertility rate for all countries." *Demography* 48(3): 815-839.
- Arpino, B., Esping-Andersen, G. and Pessin, L. (2015). "How do changes in gender role attitudes towards female employment influence fertility? A macro-level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1(3): 370-382.
- Arpino, B., Pronzato, C. D., and Tavares, L. P. (2014). The Effect of Grandparental Support on Mothers' Labour Market Participation: An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0(4): 369-390.

- Bagavos, C. (2019). "On the multifaceted impact of migration on the fertility of receiving countries: Methodological insights and contemporary evidence for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Demographic Research*, 41 (1): 1-36.
- Balbo, N., Billari, F. C. and Mills, M. (2013). "Fertility in advanced Societies: a review of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9(1): 1-38.
- Bartus, T., Spéder, Zs., (2015). Panel Attrition in the GGP Data. Evidence from Nine European Countries Presentation at the 3d GGS User conference, Vienna 30 November 1 December,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 Basten, S., Sobotka, T. and Zeman, K. (2014). "Future fertility in low-fertility countries." Chapter 3 in W. Lutz, W. P. Butz and S. K.C. (eds.) *World Population and Human Capital in the 21st Century*. Oxford University Press, 39-146.
- Beaujouan, E. and Berghammer, C. (2019). The Gap Between Lifetime Fertility Intentions and Completed Fertility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 Cohort Approach.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1-29.
- Berrington, A. (2004). Perpetual postponers? Women's, men's and couple's fertility intentions and subsequent fertility behaviour. *Population Trends* 117: 9-19.
- Berrington, A., Stone, J. and Beaujouan, É. (2015). "Educational differences in timing and quantum of childbearing in Britain: A study of cohorts born 1940-1969." *Demographic Research*, 33(26): 733-764.
- Billari, F. C. (2009). "The happiness commonality: Fertility decisions in

- low-fertility settings.” Ch. 1 in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How Generations and Gender Shape Demographic Change: Towards Policies Based on Better Knowledge. Conference Proceedings. United Nations Publications, 7-38.
- Billari, F. C. (2018). "A 'Great Divergence' in Fertility?" In: Dudley L. Poston, Jr. (Ed.) *Low Fertility Regimes and Demographic and Societal Change*. Springer: Cham, pp. 15-35.
- Billari, F. C. and Kohler, H.-P. (2004). "Patterns of low and very low fertility in Europe". *Population Studies*, 58(2): 161-176.
- Billari, F. C., Liefbroer, A. C. (2010). Towards a new pattern of transition to adulthood?.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5 (2-3): 59-75.
- Bloom, N. (2014). Fluctuations in Uncertain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8(2): 153-176.
- Bongaarts, J. and Sobotka, T. (2012). "A demographic explanation for the recent rise in European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8(1): 83-120.
- CBS Statline. (2019). Data on fertility rates by country of birth of the mother, first and second generation. [Geboorte; herkomstgroepering en leeftijd moeder, vruchtbaarheidcijfers]. Statistics Netherlands <https://opendata.cbs.nl/statline/#/CBS/nl/dataset/37884/table?fromstatweb> . <http://statline.cbs.nl/StatWeb/>.
- CFE database. (2019). Cohort Fertility and Education database. [www.cfe-database.org], accessed December 2019.
- Choe, M., Retherford, R. D. and Kim, S. (2004). "Very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Patterns and Prospects." Population Association Association of America Annual Meeting. Boston, MA.
- Choi, S. (2009). "Ageing Society Issues in Korea."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3(1): 63-83.

Ciganda, D. and Todd, N. (2019). "The limits to fertility recuperation." MPIDR Working Papers, No. WP-2019-024.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Rostock, Germany.

Coleman, D. A., (1998). "Reproduction and survival in an unknown world: what drives today's industrial populations, and to what future?." NIDI Hofstee Lecture Series 5, NIDI, The Hague.

Coleman, D. A. (2002). "Replacement Migration, or Why Everyone Is Going to Have to Live in Korea: A Fable for Our Times from the United Nation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57(1420): 583-98.

Comolli, C. L. (2017). "The fertility response to the Great Recession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tructural economic conditions and perceived economic uncertainty." Demographic Research 36(51): 1549-1600.

Comolli, C. L., Neyer, G., Andersson, G., Dommermuth, L., Fallesen, P., Jalovaara, M., Jónsson, A., Kolk, M. and Lappegård, T. (2019). "Beyond the economic gaze. Childbearing during and after recessions in the Nordic countries." Stockholm Research Reports in Demography, 2019:16

Comolli, C. L. and Vignoli, D. (2019). Spread-ing uncertainty, shrinking birth rates. DISIA WORKING PAPER, 2019/08.

Das Gupta. (1993). *Standardization and Decomposition of Rates: A User's Manual*, Current Population Reports, Special Studies, P23-186,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Bureau of the Census.

Debest, C. (2012), "Le choix d'une vie sans enfant : des individus confrontés aux normes sociales et de genre" [The choice of

- childlessness: individuals confronting social and gender norm], Sociology thesis, Université Paris 7, INED, 586.
- Debest, C. and Mazuy, M. (2014), "Childlessness: a life choice that goes against the norm", *Population and Societies*, n° 508, p 1-4. <https://www.ined.fr/en/publications/editions/population-and-societies/childlessness-life-choice/>
- Debest C., Hertzog I.-L., (2017), "Désir d'enfant - devoir d'enfant" Le prix de la procréation ["Desire for a Child - Duty to Have a Child" The Price of Procreation], *Recherches sociologiques et anthropologiques*, 29-51. <https://journals.openedition.org/rsa/1907>.
- De Jong G, J. and Van Tilburg, T. G. (2010). The De Jong Gierveld Short Scales for Emotional and Social Loneliness: Tested on data from Seven countries in the UN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s. *European Journal of Ageing*, 7(2), 121-130.
- Dommermuth, Lars., Klobas, J. and Lappegård, T. (2011). Now or later?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iming of fertility intention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6. 42-53. 10.1016/j.alcr.2011.01.002.
- Donati, P. (2000a). "Ne pas avoir d'enfant: Construction sociale des choix et des contraintes à travers les trajectoires d'hommes et de femmes." [Not having children: Social construction of choices and constraints through the trajectories of men and women] *Allocations Familiales: dossiers d'étude de la Cnaf*.
- Donati, P. (2000b). "L'absence d'enfants. Un choix plus ou moins délibéré dans le parcours d'hommes et de femmes" [Not having children. A more or less deliberate choice in men and women's life courses], *Revue des politiques sociales et familiales*, 62, p. 43-56.

- Donati P., Cèbe D., N. and Bajos N. (2002). Interrompre ou poursuivre la grossesse ? Construction de la decision [End or continue a pregnancy? Construction of the decision], chapter 4 in Bajos N., Ferrand M. et al., 2002, De la contraception à l'avortement, sociologie des grossesses non prévues [From contraception to abortion, sociology of unplanned pregnancies]. Paris, INSERM.
- Dommermuth, L., Klobas, J., Lappegård, T., (2013). Realization of Fertility intentions by different time frames. *Advancement in the Life Course Research*, 24(1): 34-46.
- Dommermuth, L., and Lappegård, T. (2017). Nedgangen i fruktbarheten fra 2010. Betydningen av utdanning, økonomisk aktivitet og økonomiske ressurser for førstefødsler og tredjefødsler. *Rapporter*, 2017/12, 1-73.
- Dorling, D., and Gietel-Basten, S. (2017). *Why Demography Matters*. Cambridge, UK: Polity Press.
- Esping-Andersen, G. and Billari, F. C.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https://doi.org/10.1111/j.1728-4457.2015.00024.x>
- Esping-Andersen, G. and F. C. Billari.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 Eurostat. (2019). Period total fertility rates, fertility indicators [demo\_find]. Fertility rates by age [demo\_frate]. Accessed in October 2019 at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 Fadel, L., Emery, T., Gauthier, A. H., (forthcoming). Current and future contributions of the Generations and Gender Programme to life course research, In: J. Falkingham et al. (eds). *Handbook of Demographic Change and the Lifecourse*. Edward Elgar publishing.
- Ferrera, M. (2016). "Resemblances that matter: Lessons from the

- comparison between Southern Europe and East Asia.”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6(4): 374-383.
- Freeman, E., Xiaohong, M., Ping, Y., Wenshan, Y., and Gietel-Basten, S. (2018), ‘I couldn't hold the whole thing’: the role of gender, individualisation and risk in shaping fertility preferences in Taiwan, *Asian Population Studies*, 14(1): 61-76.
- Frejka, T., Gavin, W. J., and Jean-Paul, S. (2010). “East Asian Childbearing Patterns and Policy Developmen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3): 579-606.
- Frejka, T. and Sardon, J. P. (2003). *Childbearing Trends and Prospects in Low-Fertility Countries. A Cohort Analysis*. EAPS, Kluwer Academic Press.
- Frejka, T. and Sobotka, T. (2008). Overview Chapter 1: Fertility in Europe: Diverse, delayed and below replacement. *Demographic Research*, S7(3), 15-46.
- Fukuda, S. (2013). The changing role of women's earnings in marriage formation in Japa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46(1), 107-128. <https://doi.org/10.1177/0002716212464472>.
- Fukuda, S., Raymo, J. M. and Yoda, S. (forthcoming). Revisiting the educational gradient in marriage in Japa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 Fukuda, S. and Kato, T. (2018). Policy or Male Involvement?: Revisiting Female Employment and Marital Fertility in Japan. Presentation given in Wittgenstein Centre Conference 2018 / 3rd Human Fertility Database Symposium “Fertility Across Time and Space: Data and Research Advances” in Vienna, Austria (December 6th 2018).

- Gauthier, A. H. (2019). "On measuring the obstacles to fertility and the impact of policies",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Effectiveness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Policy Implication for Low Fertility of Korea. Policy Briefs and short papers, 67-80.
- Gauthier, A. H. and Bartova, A. (2018). The impact of leave policies on employment, fertility, gender equality and health. In: K. Shockley, W. Shen and R. Johnson, Cambridge Handbook of Work-Family in Global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uthier, A.H., Cabaço, S. and Emery, T. (2018).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Study Profile. Longitudinal and Life Course Studies, 9: 456-65. <http://www.llcsjournal.org/index.php/llcs/article/view/500>
- Gauthier, A. H., Kotowska, I. E. and Vono de Vilhena, D. (eds). (2018): Gender (In)Equality over the Life Course. Evidence from the Generations and Gender Programme. Discussion Paper No. 10, Berlin: Max Planck Society/Population Europe.
- Gietel-Basten, S. (2019). The "population Problem" in Pacific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oldscheider, F., Bernhardt, E. and Lappegård, T. (2015). "The gender revolu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hanging family and demographic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2): 207-239.
- Goldstein, J., Kreyenfeld, M., Jasilioniene, A. and Karaman Örsal, D. (2013). Fertility Reactions to the "Great Recession" in Europe: Recent Evidence from Order-Specific Data. Demographic Research, 29(4), 85-104. <https://doi.org/10.4054/DemRes.2013.29.4>.
- Goldstein, J. R., Sobotka, T. and Jasilioniene, A. (2009). "The end of lowest-low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5(4): 663-700.

- Gotman, A. (2017). *Pas d'enfant. La volonté de ne pas engendrer* [No children. The will not to procreate] Paris :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256.
- Gray, E. and Evans, A. (2019). "Changing education, changing fertility: a decomposition of completed fertility in Australia." *Australian Population Studies*, 3(2): 1-15.
- Hansen, T. and Slagsvold, B. (2016). Late-Life Loneliness in 11 European Countries: Results from the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9(1): 445-464.
- Hamilton, B. E. and Kirmeyer, S. E. (2017). "Trends and variations in reproduction and intrinsic rates: United States, 1990-2014."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s*, 66(2). Hyattsville, MD: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 Haub, C. (2010). "Did South Korea's Population Policy Work Too Well?" *Population Reference Bureau Website*. <http://www.prb.org/Publications/Articles/2010/koreafertility.aspx>.
- Heaton, T. B., Jacobson, C. K. and Holland, K. (1999). Persistence and Change in Decisions to Remain Childl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2): 531-539.
- Hellstrand, J., Nisén, J. and Myrskylä, M. (2019). "All-time low period fertility in Finland: drivers, tempo effects, and cohort implications." *MPIDR Working Papers No. 2019-006*,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Rostock, Germany.
- Hellstrand, J., Nisén, J., Miranda, V., Fallesen, P., Dommermuth, L. and Myrskylä, M. (2020). "Not just later, but fewer: novel trends in cohort fertility in the Nordic countries." *MPIDR Working Papers No.2020-007*,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Rostock, Germany.

- Human Fertility Database. (2020). Period total fertility rates, period and cohort fertility rates by age and birth order.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Germany) and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Austria). Website: [www.humanfertility.org](http://www.humanfertility.org), accessed February 2020.
- Iacovou, M. and Tavares, L. (2011). Yearning, Learning and Conceding: Reasons Man and Women Change Their Childbearing Intention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7, March, 89-123.
- INE. (2019). Vital Statistics (Births, Deaths and Marriages). Basic Demographic Indicators. Year 2018. Provisional data. Madrid, Press Release, INE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19 June 2019.
- ISTAT. (2019). "Birthrate and Fertility among the resident Population". 2018. Rome: The Italian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ISTAT).
- Iwasawa, M. and Kaneko, R. (2013). Period Fertility Measures and the Structure of the Recent Japanese Fertility Upturn. *Journal of Population Problems*, 69(4): 103-123. (in Japanese.)
- Jalovaara, M., Neyer, G., Andersson, G., Dahlberg, J., Dommermuth, L., Fallesen, P. and Lappegård, T. (2019). "Education, gender, and cohort fertility in the Nordic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5(3): 563-586.
- Jun, K. (2009). "Pronatalist Population Policy Options in South Korea's Sub-Replacement Fertility Transition." Busan, South Korea: IUSSP. <http://iussp2009.princeton.edu/papers/90343>.
- Kaneko, R. (2010). On the Determinants of the Recent Fertility Upturn in Japan: Application of a Fertility Projection Model to Period Effect Analysis. *Journal of Population Problems*, 66(2): 1-25. (in Japanese.)

- Kapitany, and Speder, Z. (2012). Realization, Postponement or Abandonment of Childbearing Intentions in Four European Countries. *Population (English Edition)*: 67(4):599-629.
- Koops, J. C., Liefbroer, A. C., and Gauthier, A. H. (2017). The Influence of Parental Educational Attainment on the Partnership Context at First Birth in 16 Western Societi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Revue europeenne de demographie*, 33(4): 533-557.
- "Korean Panel -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2017). February 10, 2017. [http://www.welfarestate.re.kr/index.php?mid=beluxe\\_aHXN48&document\\_srl=2066&ckattempt=1](http://www.welfarestate.re.kr/index.php?mid=beluxe_aHXN48&document_srl=2066&ckattempt=1).
- Kreyenfeld, M. (2016). Economic Uncertainty and Fertility. In K. Hank & M. Kreyenfeld (Eds.), *Social Demography Forschung an der Schnittstelle von Soziologie und Demografie*, 59-80. [https://doi.org/10.1007/978-3-658-11490-9\\_4](https://doi.org/10.1007/978-3-658-11490-9_4)
- Kreyenfeld, M., Andersson, G. and Pailhé, A. (2012). Economic Uncertainty and Family Dynamics in Europe: Introduction. *Demographic Research*, S12(28): 835-852. <https://doi.org/10.4054/DemRes.2012.27.28>
- Kristensen, A. P. (2019). Arbeidsledighet og fruktbarhet. En kvantitativ studie av betydningen av individuell og aggregert arbeidsledighet for kvinner og menn sin fruktbarhetsatferd [Unemployment and fertility. A quantitative study of individual and aggregated fertility on women and men's fertility] [Master thesis in sociology]. Oslo: University of Oslo.
- Kuhnt, A. K., and Trappe, H. (2016). Channels of social influence on the realization of short-term fertility intentions in Germany. *Advancement of Life Course Research*, 16-29.
- Le Voyer A.-C. (1998). Les processus menant au désir d'enfant en

France. [Process leading to the desire for children in France]. Documents de travail de l'Ined, n° 75, 1999, 200 pages. <https://www.ined.fr/fr/publications/editions/document-travail/les-processus-menant-au-desir-d-enfant-en-france/>

Liefbroer, A. C. (2009). Changes in Family Size Intentions Across Young Adulthood: A Life-Course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doi: 10.1007/s10680-008-9173-7.

Livingston, G. and D'Vera Cohn. (2012). "U.S. birth rate falls to a record low; decline is greatest among immigrants."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er Report, Social and Demographic Trends, 29 November 2012. <http://www.pewsocialtrends.org/2012/11/29/u-s-birth-rate-falls-to-a-record-low-decline-is-greatest-among-immigrants>.

Luci-Greulich, A. and Thévenon, O. (2013). "The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trends in developed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9(4): 387-416.

Luci-Greulich, A. and Thévenon, O. (2014). "Does economic advancement 'cause' a re-increase in fertility? An empirical analysis for OECD countries (1960-2007)."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0(2): 187-221.

Lutz, W. (2008). "Has Korea's Fertility Reached the Bottom? The Hypothesis of a 'Low Fertility Trap' in Parts of Europe and East Asia." *Asian Population Studies* 4(1): 1-4.

Lutz, W., Vegard, S. and Maria R. T. (2006). "The Low-Fertility Trap Hypothesis: Forces That May Lead to Further Postponement and Fewer Births in Europe."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2006:167-92.

- Margolis, R. and Myrskylä, M. (2011). A Global Perspective on Happiness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ume 37, Issue 1, March 2011, 29-56.
- Mazuy, M. (2006). Être prêt-e, être prêts ensemble? : entrée en parentalité des hommes et des femmes en France [Being ready, being ready together? Entry into parenthood of men and women in France], PhD Thesis in Demography, University Paris 1.
-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9. <https://doi.org/doi.org/10.1111/j.1728-4457.2000.00427>.
- McDonald, P. (2006). "Low fertility and the state: The efficacy of polic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3): 485-510.
- McDonald, P. and Moyle, H. (2019). "In Australia fertility is falling only for low educated women." N-IUSSP, 1 July 2019. <http://www.niussp.org/article/in-australia-fertility-is-falling-only-for-low-educate-d-womenen-australie-la-fecondite-baisse-uniquement-chez-les-femmes-peu-scolarisees/>.
- Mencarini, L. (2018). Does gender equality affect fertility decisions in Europe? In A. H. Gauthier, I. E. Kotowska, & D. Vono de Vilhena (Eds.), *Gender (In)Equality over the Life Course. Evidence from the Generations & Gender Programme*. Population Europe Discussion Paper No. 10.
- Mikolai, J., Berrington, A., and Perelli-Harris, B. (2018). The role of education in the intersection of partnership transitions and motherhood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Demographic Research*, 39: 753-794. [27]. DOI: 10.4054/DemRes.2018.39.27.
- Mills, M. and Blossfeld, H.-P. (2005).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the early life course. A theoretical framework." In: H.-P. Blossfeld,

E. Klijzing, M. Mills and K. Kurz (eds.)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Youth in Society. London/New York: Routledge Advances in Sociology Series, 1-24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13). Special report on the Longitudinal Survey of Newborns in the 21st Century and the Longitudinal Survey of Adults in the 21st Century: Ten year follow-up, 2001-2011. Tokyo: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Retrieved from <http://www.mhlw.go.jp/english/databas e/db-ls/l3.html>.

Myrskylä, M., Goldstein, J. R., Cheng, Y-H. A. (2013). New Cohort Fertility Forecasts for the Developed World.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1-57.

Morgan, S. P. and Rackin, H. (2010). The Correspondence between Fertility Intentions and Behavior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 91-118.

Munnell, A. H., Chen, A. and Sanzenbacher, G. (2019). "Is the drop in fertility due to the Great Recession or a permanent change?" Centre for Retirement Research (CRR) Working Paper CRR WP 2019-7.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362478>

Myrskylä, M., Kohler, H. P. and Billari, F. C. (2009). "Advances in development reverse fertility declines. *Nature* 460 (6 August 2009): 741-743.

Mynarska, M., Matysiak, A., Rybińska, A., Tocchioni, V. and Vignoli, D. (2015). Diverse paths into childlessness over the life course.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25: 35-48.

Mynarska, M., and Rytel, J. (2018). From motives through desires to intentions: investigating the reproductive choices of childless men and women in Poland.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50(3):

421-433.

-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17).  
The Fifteenth Japanese National Fertility Survey, 2015: Results of singles and married couples Survey. Tokyo: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in Japanese.)
-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19).  
Latest Demographic Statistics 2019. Tokyo: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in Japanese.)
- Neels, K., Murphy, M., Ní Bhrolcháin, M. and Beaujouan, E. (2017).  
“Rising educational participation and the trend to later childbearing.”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3(4): 667-693.
- Neels, K., Theunynck, Z. and Wood, J. (2013). Economic recession and first births in Europe: Recession-induced postponement and recuperation of fertility in 14 European countries between 1970 and 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8(1): 43-55.
- Neyer, G., Lappegård, T. and Vignoli, D. (2013).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Which Equality Matter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 Revue européenne de Démographie*. August 2013, 29(3): 245-272.
- Ní Bhrolcháin, M. and Beaujouan, É. (2012). “Fertility postponement is largely due to rising educational enrolment.” *Population Studies* 66(3): 311-327.
- OECD. (2019). *Education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f8d7880d-en>.
- Oksanen, H. (2010). “The Chinese Pension System - First Results on Assessing the Reform Options.” *European Economy - Economic Papers* 2008 - 2015.
- ONS. (2019a). *Births by parents’ country of birth, England and Wales: 2018*. London: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

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birthsdeathsandmarriages/livebirths/bulletins/parentscountryofbirthenglandandwales/2018.

ONS. (2019b). Childbearing for women born in different years. England and Wales: 2018. London: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birthsdeathsandmarriages/conceptionandfertilityrates/bulletins/childbearingforwomenbornindifferentyearsenglandandwales/2018>.

Pailhe, A. and Regnier-Loilier, A. (2017). The Impact of Unemployment on the Realization of Fertility Intentions. In: Regnier-Loilier, A., eds. A Longitudinal Approach to Family Trajectories in France. INED, Population Studies 7: 123-145.

Peterson, H. (2017). "I will certainly never become some kind of housewife." Voluntary childlessness and work/family balance in Sweden, *Travail, Genre et Sociétés*, 37: 71-89. [https://www.cairn-int.info/article-E\\_TGS\\_037\\_0071--i-will-never-be-a-housewife.html](https://www.cairn-int.info/article-E_TGS_037_0071--i-will-never-be-a-housewife.html).

Philipov, D. (2009). The Effect of Competing Intentions and Behaviour on Short-term Childbearing Intentions and Subsequent Childbearing.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5(4): 525-548.

Pötzsch, O. (2018). Aktueller Geburtenanstieg und seine Potenziale [Recent increase in births and its potential]. *Statistisches Bundesamt, Wista* (3/2018): 72-89.

Ramiro-Farinas, D., Viciano-Fernández, F. J. and Cobo, V. M. (2017). "Will highly educated women have more children in the future? In Southern Europe, it will largely depend on labour market conditions."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15 (2017): 49-54.

Régnier-Loilier, A. and Vignoli, D. (2011). Fertility Intentions and

- Obstacles to their Realization in France and Italy. *Population-E*. 66(2): 361-390.
- Reher, D. S. (2019). "The Aftermath of the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developed world: Interpreting enduring disparities in reproductive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DOI: 10.1111/padr.12266.
- Riederer, B., Buber-Ennsner, I. and Brzozowska, Z. (2019). Fertility Intentions and Their Realization in Couples: How the Division of Household Chores Matters. *J Fam Issues*, 40(13): 1860-1882.
- Rieder, E. and Bubner-Ennsner, I. (2016). Realisation of fertility intention in Austria and Hungary: are Capitals Different?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Working Papers 08: 29.
- Rindfuss, R., Choe, M. K. and Brauner-Otto, S. (2016). "The emergence of two distinct fertility regimes in economically advanced countrie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5(3): 287-304.
- Rindfuss, R. R. and Choe, M. K, (Eds.) (2016). *Low Fertility, Institutions, and their Policies. Variations Across Industrialized Countries*. Springer.
- Rindfuss, R. R., Guzzo, K. B. and Morgan, S. P. (2003). "The changing institutional context of low fertilit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2: 411-438.
- Sanderson, W. C., Skirbekk, V. and Stonawski, M. (2013). "Young adult failure to thrive syndrome." *Finnish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48 (2013): 169-187.
- Schoen, R., Astone, N. M., Kim, Y., Nathanson, C. A. and Fields, J. M. (1999). Do Fertility Intentions Affect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3): 790-799.
- Shin, Y., Lee, M., and Park, S. (2019). Analysis and Outlook of Korea's

Long-term Trends in Lowest-low Fertilit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hinkawa, T. (2005). "The Politics of Pension Reform in Japan: Institutional Legacies, Credit-Claiming, and Blame Avoidance." *Ageing and Pension Reform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Eleven Countries*, 157-181.

Sobotka, T. (2004). "Is lowest-low fertility explained by the postponement of childbearing?"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 (2): 195-220.

Sobotka, T. (2008a). "The rising importance of migrants for childbearing in Europe." *Demographic Research, Special Collection 7, Vol. 19(9)*: 225-248.

Sobotka, T. (2008b). "The diverse faces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Europe." *Demographic Research, Special Collection 7, Vol. 19(8)*: 171-224.

Sobotka, T. (2017). Post-transitional fertility: the role of childbearing postponement in fuelling the shift to low and unstable fertility levels.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49(S1): S20-S45.

Sobotka, T. and Beaujouan, É. (2018). "Late motherhood in low-fertility countries: Reproductive intentions, trends and consequences", In: D. Stoop (ed.) *Preventing Age Related Fertility Loss*, Springer, Cham, 11-29

Sobotka, T., Beaujouan, É. and Brzozowska, Z. (2017). "Reversals, diminishing differentials, or stable patterns? Long-term trends in educational gradients in fertility across the developed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XVIII IUSSP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Cape Town, 31 October 2017 (Session 71).

Sobotka, T., Beaujouan, É. and Van Bavel, J. (2017). "Introduction:

- Education and fertility in low-fertility settings.”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15 (2017), 1-16.
- Sobotka, T., Gietel-Basten, S. and Zeman, K. (2016). “The low-fertility future? Projections based on different methods suggest long-term persistence of low fertility. Paper presented at the 2016 Annual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Washington, D.C., 1 April 2016.
- Sobotka, T. and Lutz, W. (2011). “Misleading policy messages derived from the period TFR: should we stop using it?”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 - Zeitschrift für Bevölkerungswissenschaft* 35 (3) (2010): 637-664 (Date of release: 15.09.2011).
- Sobotka, T., Matysiak, A., Brzozowska, Z. (2019).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How effective are they? New York: UNFPA, Working Paper No. 1, May 2019 Technical Division Working Paper Series, Population & Development Branch. [www.unfpa.org/publications/policy-responses-low-fertility-how-effective-are-they](http://www.unfpa.org/publications/policy-responses-low-fertility-how-effective-are-they).
- Sobotka, T., Skirbekk, V. and Philipov, D. (2011). “Economic recession and fertility in the developed worl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7(2): 267-306.
- Sobotka, T., Zeman, K., Potančoková, M., Eder, J., Brzozowska, Z., Beaujouan, É. and Matysiak, A. (2015). *European Fertility Datasheet 2015*.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 Wittgenstein Centre for Demography and Global Human Capital (IIASA, VID/ÖAW, WU). <http://www.fertilitydatasheet.org/>
- Sobotka, T. and Zeman, K. (2020). “The post-recession fertility puzzle: fertility declines, cross-overs and convergence after the “Great Recession.” Paper presented at the European Population Conference 2020, Padova, June 2020.

- Spéder, Zs. and Kapitány, B. (2009). How are Time-Dependent Childbearing Intentions Realized? Realization, Postponement, Abandonment, Bringing Forward.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5(4), 503-523.
- Spéder, Zs. and Kapitány, B. (2014). Failure to Realize Fertility Intentions: A Key Aspect of the Post-communist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January 2014, doi: 10.1007/s11113-013-9313-6.
- Spéder, Zs. (2019). European differences in realization fertility intentions: the part macro social circumstances matter. Paper accomplished for the INED-KIHASA project, 28.
- Statistics Finland. (2019). "Share of persons with Finnish background in the birth rate has decreased." Helsinki: Statistics Finland, 4 December 2019. [https://www.stat.fi/til/synt/2018/02/synt\\_2018\\_02\\_2019-12-04\\_tie\\_001\\_en.html](https://www.stat.fi/til/synt/2018/02/synt_2018_02_2019-12-04_tie_001_en.html).
- Statistics Norway. (2019). 12482: Total fertility rate for immigration women, by region, mother's immigrant category, contents and year. Data accessed at Statistics Norway, Statbank. <https://www.ssb.no/en/statbank/table/12482/>.
- Stone, L. (2018). "Declining fertility in America."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December 2018. [www.aei.org/research-products/report/declining-fertility-in-america](http://www.aei.org/research-products/report/declining-fertility-in-america).
- Sweeney, M. M. (2002). Two decades of family change: The shifting economic foundations of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1), 132-147. <https://doi.org/10.2307/3088937>.
- Tanskanen, A. O. and Rotkirch, A. (2014). The impact of grandparental investment on mothers' fertility intentions in four European countries. *Demographic Research*, 31(July), 1-26.

- Testa, M. R. and Rampazzo, F. (2018). From intentions to births: paths of realisation in a multi-dimensional life course.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018.
- Testa, M. R. and Toulemon, L. (2006), "Family Formation in France: Individual Preferences and Subsequent Outcomes",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41-75.
- The Economist. (2018). "The next Japan Is Not China but Thailand." The Economist. The Economist. 2018.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18/04/05/the-next-japan-is-not-china-but-thailand>.
- Thévenon, O. and Gauthier, A. H. (2011). "Family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a 'fertility-booster' with side-effects." *Community, Work & Family* 14(2): 197-216.
- Tomkinson, J. (2016). "Fewer teenage births in England and Wales: a convergence towards Europe?" *Population & Societies*, No. 536, 2016/8, 1-4.
- Tønnessen, M. (2019). "Declined Total Fertility Rate among immigrants and the role of newly arrived women in Norway."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1-27. <https://doi.org/10.1007/s10680-019-09541-0>.
- Toulemon, L. (1996). "Very few couples remain voluntarily childless", *Population, an English selection*, 8, 1996, 1-27.
- Toulemon, L., and Leridon, H. (1999). La famille idéale : combien d'enfants, à quel âge ? [The ideal family: how many children, at what age?], *Insee première*, n° 652, 1-4.
- Toulemon, L., and Testa, M. R. (2005). "Fertility intentions and actual fertility: a complex relationship", *Population and Societies*, n° 415,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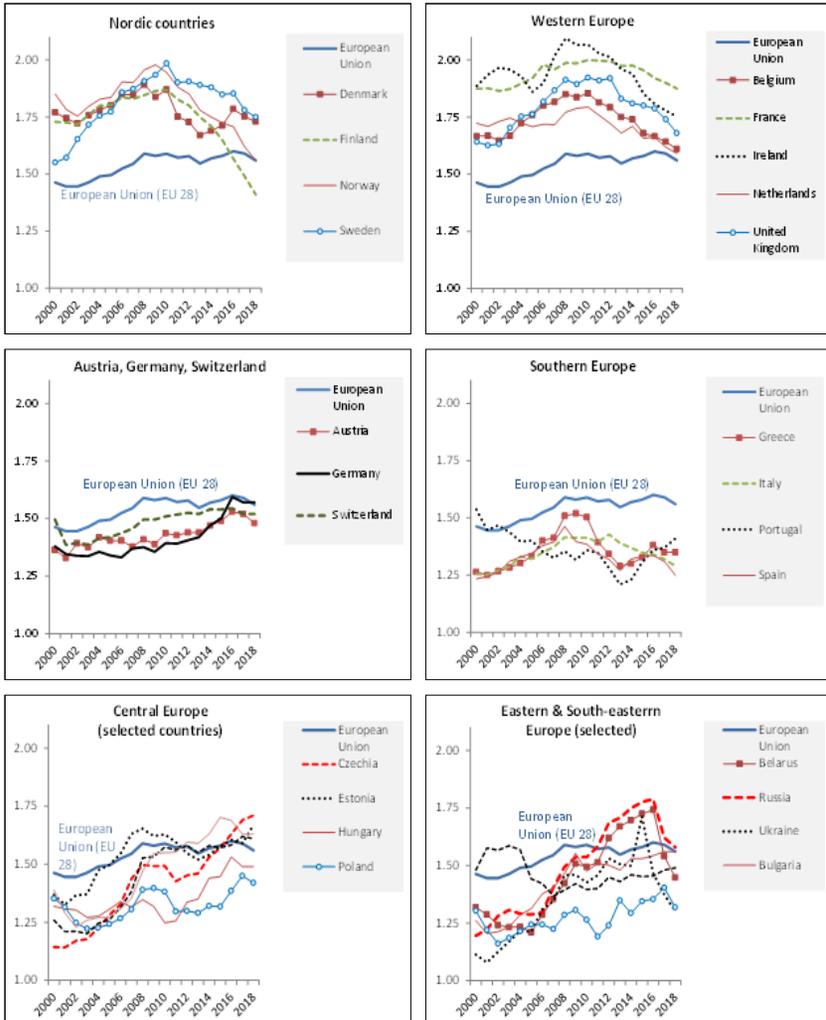
- UN. (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New York: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ynamics. <https://population.un.org/wpp/>
- UNPD. (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2019. <https://population.un.org/wpp/Download/Standard/>.
- Van Bavel, J. (2010). "Subreplacement fertility in the West before the baby boom. Past and current perspectives." *Population Studies* 64(1): 1-18.
- VID. (2016). *European Demographic Data Sheet 2016*.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VID) an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 (IIASA), Wittgenstein Centre (IIASA, VID/OEAW, WU), Vienna. [<http://edds2016.populationeurope.org>]
- VID. (2018). *European Demographic Datasheet 2018*.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VID) an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 (IIASA), Wittgenstein Centre (IIASA, VID/OEAW, WU), Vienna. <http://www.populationeurope.org>
- Vignoli, D. (2019). Keynote lecture at the GGP User Conference. Paris, October 2019.
- Vignoli, D., Drefahl, S., and De Santis, G. (2012). Whose job instability affects the likelihood of becoming a parent in Italy? A tale of two partners. *Demographic Research*, 26, 41-62. <https://doi.org/10.4054/DemRes.2012.26.2>
- Vignoli, D., Tocchioni, V., and Mattei, A. (n.d.). The Impact of Job Uncertainty on First-Birth Postponement. *The Impact of Job Uncertainty on First-Birth Postponement*, In press.
- Vila, M. R. and Martín, T. C. (2007). "Childbearing patterns of foreign women in a new immigration country: The case of Spain."

- Population-E 62(3): 351-380.
- Wattenberg, B. J. (2005). *Fewer: How the New Demography of Depopulation Will Shape Our World*. Chicago: Ivan R. Dee.
- Wittgenstein Centre. (2018). Wittgenstein Centre Data Explorer Version 2.0 (Beta). Wittgenstein Centre for Demography and Global Human Capital, 2018. Available at: [www.wittgensteincen tre.org/dataexplorer](http://www.wittgensteincen tre.org/dataexplorer).
- Yoda, S., and Iwasawa, M. (2018). Trends in total marital fertility rates: An explanation by socioeconomic developments, gender regime, and reproductive technology. *Journal of Population Problems*, 74(3), 205-223. (in Japanese.)
- Yoo, S. and Sobotka, T. (2018). "Ultra-Low Fertility in South Korea: The Role of the Tempo Effect." *Demographic Research* 38 (February): 549-76.
- Ysj.or.kr. (2014). "Lawmakers: 736 Year until Republic of Korea's Extinction." Press Release: National Existence Threatened by the Low Birth Rate Problem. [http://www.ysj.or.kr/bbs/board.php?bo%7B\\_%7Dtable=4%7B\\_%7D11%7B%&%7Dwr%7B\\_%7Ddid=853%7B%&%7Dsca=%7B%&%7Dsfl=wr%7B\\_%7Dsubject%7B%25%7D7C%7B%25%7D7Cwr%7B\\_%7Dcontent%7B%&%7Dstx=%7B%25%7DDB8%7B%25%7DEA%7B%25%7DC1%7B%25%7DBE%7B%&%7Dsop=and](http://www.ysj.or.kr/bbs/board.php?bo%7B_%7Dtable=4%7B_%7D11%7B%&%7Dwr%7B_%7Ddid=853%7B%&%7Dsca=%7B%&%7Dsfl=wr%7B_%7Dsubject%7B%25%7D7C%7B%25%7D7Cwr%7B_%7Dcontent%7B%&%7Dstx=%7B%25%7DDB8%7B%25%7DEA%7B%25%7DC1%7B%25%7DBE%7B%&%7Dsop=and).
- Zeman, K., Beaujouan, É., Brzozowska, Z. and Sobotka, T. (2018). Cohort fertility decline in low fertility countries: Decomposition using parity progression ratios. *Demographic Research*, 38(25): 651-690.
- Zeman, K., T. Sobotka, R. Gisser, and M. Winkler-Dworak. (2019). *Birth Barometer: Monitoring Fertility in Austria*.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 부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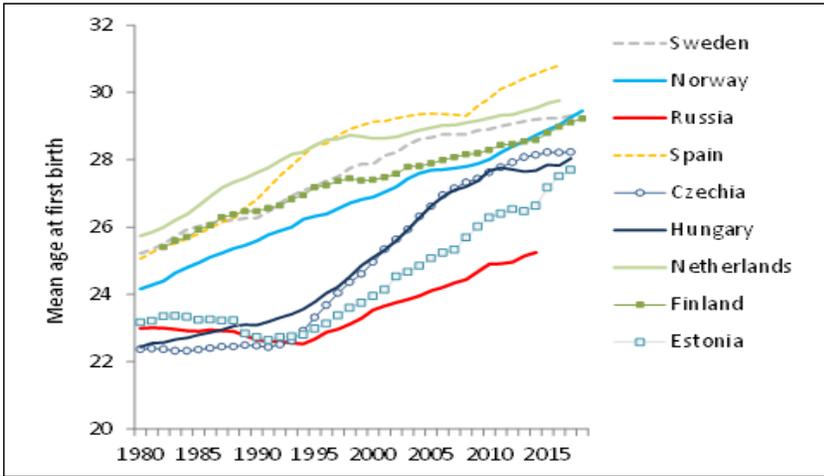
[부록 그림 1] 지역별 유럽 국가의 기간 합계 출산율 (2000~2018)



주: 남동유럽국가 중심으로 인구 1백만명 이하 혹은 다른 국가들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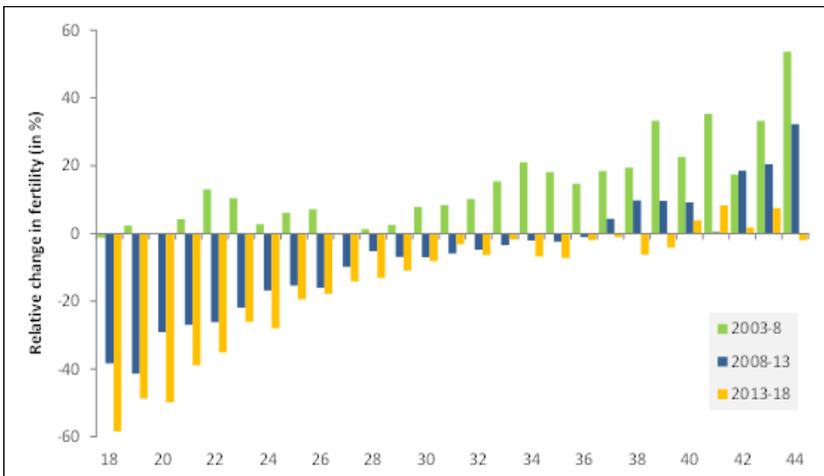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20), Eurostat (2019)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부록 그림 2] 유럽 국가의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 (198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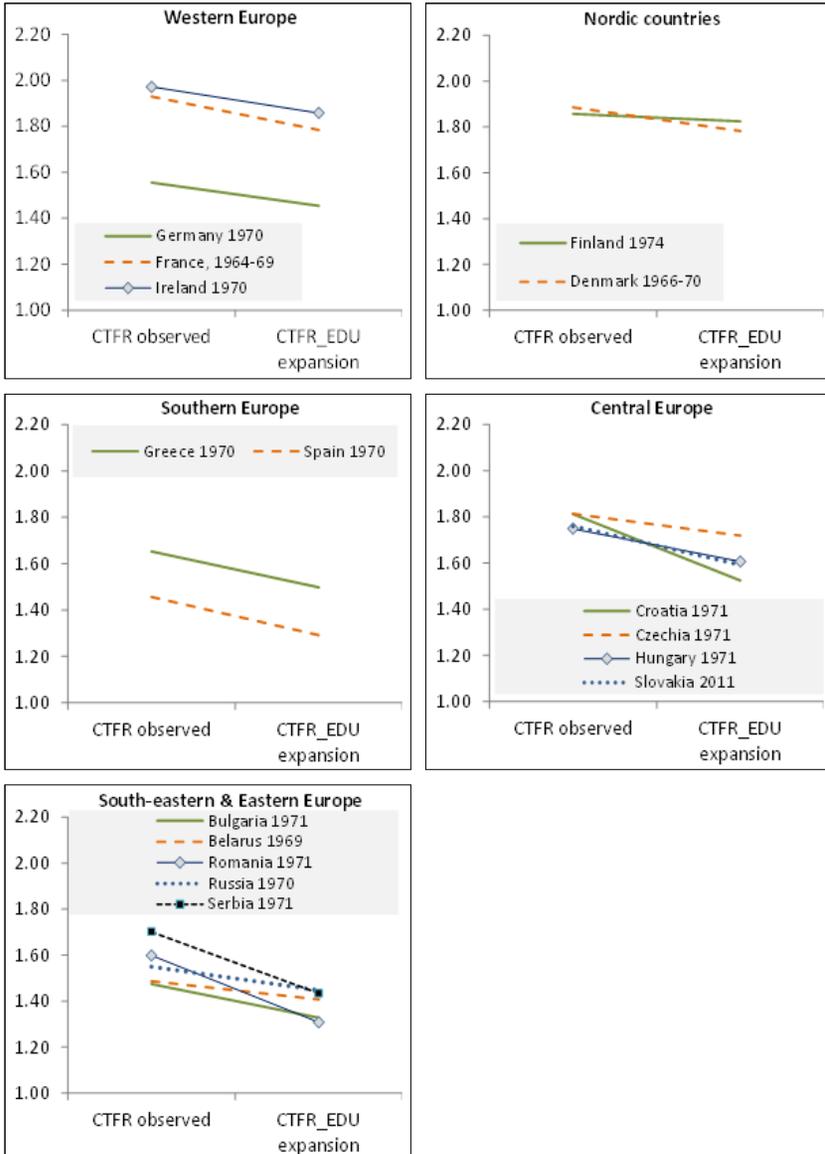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20)

[부록 그림 3] 노르웨이의 연령별 출산율의 상대적인 변화율 (2003~2018년)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20)

[부록 그림 4] 유럽 국가의 1970년 출생 코호트 여성이 한국과 같은 대학 학력(75%)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완결 출산율의 가정적인 변화



자료: Cohort Fertility and Education database (CFE database 2019)를 이용하여 산출함

## 부록 2

### 1. Le Voyer (1998) 인터뷰 노트

#### 1) 회상

〈자녀가 있는 사람들〉

- 첫째 아이 출산 이전 (한 명의 아이 출산 의향)
- 첫째 아이 출산 즈음 (연기, 이유, 동기, 부부의 결정)
- 첫째 아이 출산 이후 (부부, 경력,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양쪽 집안의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 가족으로부터 받는 출산 부담 (예고 및 배우자)
- 기타 사건 (낙태, 유산, 유대관계 붕괴, 직업)
- 미래에 대한 의향 (자녀수, 출산시기, 양부모역할, 회고적 의향)

〈자녀가 없는 사람들〉

- (첫 아이 출산을 연기하거나 피하는 이유)
- 해당 주제에 대한 부부 간의 논의 (어떤 의견인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 2) 사회-경제적 질문

성별, 연령, 배우자와의 관계, 직업, 교육, 거주지, 자녀수

#### 3) 일반 의견 질문

-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녀를 가져야 한다

- 아이를 낳는 것이 여자와 남자에게 중요하다
- 어떤 부부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그들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어할 때 여성의 직장 생활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배우자가 없이 아이를 갖기로 결심한 여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반적으로 한 가족에게 이상적인 자녀의 수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커플들은 아이를 많이 갖기로 결심한다. 그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자(남자)는 몇 살에 첫아이를 낳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이를 갖지 않아도 좋은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부 여성들은 폐경 후 난자 기증 등과 같은 보조생식기법(ART)을 통해 아이를 낳고 싶어하기도 한다. 그들의 선택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불임증인 경우 부부가 ART를 사용하거나 아이를 입양하거나 포기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부 동성애 커플들은 아이를 갖고 싶어한다. 그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우자 간의 나이차이가 많이 날 경우, 아이를 갖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녀의 성별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적어도 아들이 한 명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딸은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아들 혹은 딸?

#### 4) 커플 시나리오 및 최선의 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요청

각 시나리오에 대해 몇 가지 논쟁과 함께 조언과 의견을 물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 젊은 양아버지와 어린 여동생이 생기는 것을 꺼리는 첫 딸이 있는 재혼가정. 유산을 경험한 여성의 나이는 38세다.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 과연 출산을 포기해야 할까요? 다시 시도를 해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입장을 해야 할까요?
- 결혼한 부부, 세 명의 딸. 사내아이를 얻기 위해 다시 노력해야 할까요? 가족의 압박
- 재혼가정: 42세의 아버지에게는 성년이 된 두 명이 딸이 있다. 새엄마는 아빠보다 나이가 어리고, 결혼 전에 다양한 사회생활을 경험했으며 아이가 없는 회사 임원이었다. 현재 그녀는 35살이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안정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5년차 부부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낳고 싶어한다. 그러나 남자는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 2. Donati(2000) 인터뷰 노트

다음의 항목들은 순서와 관계 없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특정 시점에서 제기된 문제들이다.

- 연령, 성별, 형제, 배우자와의 관계, 함께 산 기간, 의붓자식, 교육, 직업, 거주지, 주택 소유 상태, 소득, 배우자의 직업, 아버지 및 어머니 등의 일반 정보가 포함된 시트

## 〈인터뷰 시 고려해야 할 주제〉

- 어린 시절과 사춘기의 경험(형제, 어머니와의 관계), 사회화(전승된 가족의 가치관, 학교와 직장에 대한 부모의 기대), 부모 부부에 대한 평가.
- 아동의 문제와 관련된 중요시점과 사건(경쟁 프로젝트 발생, 게임기 종료 압박...)
-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감정(일반적인 감정 /아이들의 나이와 성별에 따른 감정), 다른 아이들을 양육해본 경험.
- 부모로서의 자아의식(어떤 형태의 무능을 두려워함), 여성의 신체와의 관계(임신 인식, 피임 경험).
- 출산을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자주 또는 자발적 낙태)
- 물질적·경제적 제약(주거, 고용 등), 가족 네트워크(특히 부모 세대)의 한계와 지원
- 가치와 기준 체계(종교, 페미니즘, 사회관계, 인류에 대한 일반적 견해)
- 시간의 관계: 과거에 대한 언급,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장소, 장기간에 걸쳐 동원되는 투자와의 관계(학문적, 전문적, 감정적 투자)
-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부부간의 이견이나 합의에 기초가 되는 문제들.
- “출산 의무”에 대한 사회적 규범: 출산의 의무가 어떻게 인지되고 경험되는가 (가정환경, 친구들이 부과하는 압박) 출산의 적기 혹은 출산에 적합한 연령과 적합하지 못한 연령